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The logo is circular,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round the perimeter and 'JEJU 1952' in the center. Below the logo, the Korean text '제주대학교' is visible.

濟州大學校 大學院

韓國學協同課程

鄭 熙 鐘

2008年 12月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성과 변화 연구

指導教授 趙 誠 倫

鄭 熙 鐘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鄭熙鐘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12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대상과 방법	6
1) 연구대상	6
2) 연구방법	7
II.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의 특성과 사례	11
1. 제주도 상례의 특성	11
2.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 사례	19
1) 표선리 금촌칠씨 사례	19
2) 표선리 박원종씨 사례	32
3) 사례 분석	36
3. 상례에 포함된 무속의례	38
1) 무속의례의 종류	40
2) 귀양풀이 사례	44
III.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 변화 양상	54
1. 상례문화의 특성과 변화	54
1) 역할분담과 노동조직의 관계	54
2) 장례비용 및 부조와 문상	61
3) 풍수 사상과 장법	65
2. 농촌사회 상례문화 변화 사례	67
1) 하천리의 상례문화 변화	67
2) 성읍1리의 상례문화 변화	75
3. 변화 요인	82
1) 공동묘지의 도입	82

2) 행정 정책의 영향	84
3) 세대교체와 가족공동체의 약화	91
IV. 상례문화 변화의 의미	94
1.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그 의미	94
1) 장례 주관자의 소멸	94
2) 탈상 기일의 단축	96
3) 공동체 규범의 약화	97
4) 풍수사상의 약화	98
5) 장례 놀이, 전통 음식의 소멸	99
2. 지속되고 있는 현상과 그 의미	100
1) 의례 공간의 변화	100
2) 택일 전통의 지속	102
3) 화장의 증가	103
4) 부조와 답례품의 지속	104
IV. 결론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funeral-rite's culture in Je-Ju rural society

Hee-Jong Jung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8. 12.

This thesis has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표 차례

<표 1> 제주도 상례 절차 비교	16
<표 2> 2000년 이후 하천리 매장 및 화장 현황	74
<표 3> 성읍1리 공동묘지 장례시설 사용 현황	81
<표 4> 1997년도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에 대한 제주일보 기사 목록	86
<표 5> 장례 주관자 현황	95

사진 차례

<사진 1> 혼을 부른 흘적삼을 만며느리가 모시고 있다	21
<사진 2> 혼을 부른 흘적삼과 12매듭으로 묶은 시신	21
<사진 3> 관 안에 도장으로 칠성을 찍었다	22
<사진 4> 입관하고 나서 보공을 넣고 상제들이 땀수건을 집어넣고 있다	22
<사진 5> 입관 이후 시신을 묶었던 12매듭을 모두 풀고 있다	22
<사진 6> 보공을 넣고 12매듭을 푼 다음에 다라니경을 덮었다	22
<사진 7> 마지막으로 흰 종이를 덮은 상태	23
<사진 8> 혼을 불렀던 저고리를 관 위에 올려놓았다	23
<사진 9> 명정으로 관을 덮어놓았다	24
<사진 10> 저승길 개를 쫓는다는 개떡을 만상제가 들고 있다	24
<사진 11> 표선공동묘지에 있는 냉동실로 운반하는 장면	24
<사진 12> 냉동실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	24
<사진 13> 영혼을 모신 상차림	26
<사진 14> 성복제를 지내는 장면	26
<사진 15> 집 앞 올래(도로)에서 발인제를 지내고 있다	27
<사진 16> 장지로 가면서 아들 상제 집 앞에서 지내는 노제와 제물	27
<사진 17> 석관을 짜 맞추어 넣고 있다	28
<사진 18> 하관제는 삼헌 삼작 제법으로 지냈다	28
<사진 19> 봉분을 쌓고 있는 장면. 장의사에게 의뢰하여 작업을 하였다	31
<사진 20> 봉분을 다 쌓고 나서 초우제를 지냈다	31
<사진 21> 관 안으로 나무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명당토	33
<사진 22> 개광을 할 때는 방향을 잡는다	33
<사진 23> 토신제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고 있다	34
<사진 24> 천막 안에서 하관제를 지냈다	34

<사진 25> 하관제를 지내고 운구하는 장면	34
<사진 26> 하관하고 망인의 혼을 부른 옷을 관위에 놓고 묻는 장면	34
<사진 27> 마지막 인사인 하직배를 올리는 장면	35
<사진 28> 봉분을 쌓고 때를 입히는 장면	35
<사진 29> 귀양풀이 상차림. 왼쪽부터 사자상, 차사상, 영신상이다	36
<사진 30> 심방이 질치기를 하고 있다	36
<사진 31> 차사상 차림	44
<사진 32> 영개상 차림	44
<사진 33> 사자상 차림	45
<사진 34> 공식상 차림	45
<사진 35> 질치기를 하기 위하여 대나무 가지로 문을 만들고 있다	47
<사진 36> 문전상과 대령상을 현관 앞에 놓고 질치기를 하고 있다	47
<사진 37> 저승 12문에 인정을 걸고 있다	49
<사진 38> 저승 12문을 하나씩 열고 가는 장면	49
<사진 39> 성읍1리의 1995년도 운상 장면	80
<사진 40> 성읍1리의 1995년도 운상 장면	80
<사진 41> 토산 공동묘지에 있는 다양한 산담과 비석	84
<사진 42> 토산공동묘지에는 자유롭게 묘지들이 들어서 있다	84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상례는 고대부터 발달해 왔으며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상례가 존재하고 있다. 상례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상례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불교식 상례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상례가 민간에 뿌리를 내렸다. 현대의 상례에도 민간신앙과 조상숭배사상, 풍수사상, 무속의 기복신앙 등 종교적인 요소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

상례문화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러한 관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조선 후기부터 유교 상례가 보편화되었는데, 현대 농촌사회에서 그 전통이 지속되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삼년상을 치르는 관습을 비롯하여 풍수신앙에 근거를 둔 장법, 조상숭배 및 민간신앙에 입각한 의례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상례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년상을 치르던 관습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탈상 시기가 백일과 49재로 급격하게 단축되고, 풍수사상, 조상숭배신앙도 약화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생겨난 ‘3일장’의 전통이 뿌리내렸으며, 전문 장례업체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 의례가 수행해 왔던 종교적인 기능과 사회적 기능은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렸으며,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종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3일장을 치르면서 도시의 상례는 전통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의례의 형식만 남아있는 측면이 많다. 공동체가 함께 치르는 상례가 아니라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례는 상제와 문상객들 사이에 기존의 사회관계를 유지, 지속시키는 의식과 행사로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상례는 전통적인 형식과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물론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모습이 퇴색되고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체내에서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치러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습과 관행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유교 상례는 친족공동체 유지시키고, 농촌 공동체를 통합하는 규범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한 상례의 기능은 현대 농촌사회에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농촌사회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상례가 수행해 왔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 조상 숭배 및 효 사상의 약화에 따라 상례가 갖고 있던 의미가 상실되고 있으며, 죽음이 가져 온 슬픔, 부정, 고통 등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종교적인 성격도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전통 유교 상례가 해 왔던 친족공동체(가문)의 유지 및 질서의 재확립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공동체 해체 현상은 유교 상례가 수행해 왔던 공동체 통합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이농,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 농촌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해온 관습의 변화, 도시문화의 농촌 침투 등은 농촌공동체 문화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근대화 교육을 받은 세대가 농촌사회의 중심 세대가 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제주도 상례의 특징은 유교와 무속의 혼합된 형태로서 유교의 절차에 따른 의례를 치르면서 귀양풀이와 같은 무속의례도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속의례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으나, 제주도 농촌사회의 경우 ‘귀양풀이’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 있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무속신앙의 토대 위에 유교 의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유교와 무속의 조상 숭배 사상의 혼합, 유교의례와 함께 민간신앙에 따른 의례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은 유교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기존의 토착문화와 융합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농촌사회의 상례와 상례문화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 상례의 특성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유교 의례와 함께 귀양풀이와 같은 무속의례가 병행되고 있는 현상, 상례 절차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재정리할 것이다. 또한 농촌사회에서 상례문화가 갖고 있는 규범적인 역할, 가족 및 친족 공동체 유지, 상례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노동 및

부조 관계 등)에서 약화되고 있는 측면과 지속,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여 현대 제주도 농촌사회에서의 상례문화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상례 절차의 특성과 의미, 상례의 성격 변화(공동체 통합 기능이 약화되면서 마을 공동의례에서 가족의례로 변화), 의례 공간의 이동(집에서 치르던 상례가 장례식장, 공동묘지의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것), ‘장례 주관자’¹⁾의 소멸, 노동관계의 변화(의무 노동에서 상호 교환관계로 변화), 상여 및 상여소리의 소멸, 부조 문화의 변화, 화장의 증가, 납골당 및 납골묘의 등장 등이다. 제주도 상례문화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변화의 양상을 대표하는 현상들이며, 이를 통하여 제주도 농촌 문화의 특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 상례문화의 특성에 대한 정리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양상과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상례와 상례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례의 절차와 의미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중심으로 장례절차와 장례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들로는 이광규의 『한국인의 일생』(1985), 김시덕의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 : 상례절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2000) 등이 있다. 이광규는 장례절차를 “영을 다루는 영역, 체를 다루는 영역, 상주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시덕은 “망자(亡者)를 위한 의례, 혼을 위한 의례, 조상신을 위한 의례,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로 구분하였다. 또한 반 겐넵(Arnold van Gennep), 터너(Victor Turner) 등의 연구 성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반 겐넵은 『통과의례』에서 의례를 분리의례, 전이의례, 통합의례로 구분하였는데, 임재해는 『전통상례』(1990)에서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또한 「장례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1995)에서는 터너

1) 유교 장례 의례 절차를 전수받아서 마을 내에서 상이 발생하였을 때 의례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장례를 마칠 때 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인물을 말한다. ‘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로 마을내의 목수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현대의 장례업에서는 엄사(장례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직업을 구분하는 용어로서 제주도 농촌마을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장례를 지도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장례 주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의 반구조(anti-structure) 이론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둘째는 상례문화의 중요 요소인 죽음관에 대한 연구이다. 허용호, 「전통 상례를 통해서 본 죽음」(2000), 표인주, 「호남지역 상·장례와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관」(2000), 장하열, 강성경의 「한국의 전통장례와 죽음관 연구(I) 임종을 전후한 죽음의 인식」(2000) 등이 있다.

셋째는 전통 장례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로서 문애리, 「유림장의 의례절차와 사회적 의미」(1999), 정승모, 「상·장제도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1990) 등이 있다.

넷째는 상장례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는데, 상장례의 변화 요인으로서 종교, 국가, 사회변동을 다루고 있다. 안호용은 「조선전기 상제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1989)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 전후에 상·제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장철수는 『한국의 관혼상제』(1997)에서 선사시대 이후의 상장례의 변천, 일제시대 관혼상제의 변천, 관혼상제의 전통성과 사회변동 등을 다루었다. 이외에 국가 권력의 정책에 의하여 상장례가 변화한 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송현동의 「근대 이후 상장례 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0), 김시덕의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2002) 등이 있다.

제주도의 상·장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상·장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이며, 또 하나는 장묘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김영돈(1966)은 제주도민의 통과의를 다루면서 상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김영돈의 조사는 제주도민의 산육, 혼례, 장례와 제례 및 속신, 민요, 자장가와 상여소리, 무속의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²⁾ 이광규(1974) 역시 출산의례, 산후의례, 혼인의례, 장제 및 제례 등 통과의를 조사하면서 상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현용준(1977)은 제주도의 상례가 유교의례를 형식으로 치러지지만 무속의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례 외에 제사, 명절, 묘제, 상제(喪祭)와 친족의 범위, 상속과 제사 등 제주도 상례의 특수성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마을조사 결과를 정리한 학술조사보고서에 김기태(1977)가 상례

2) 김영돈의 조사 연구 내용은 1970년대 이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의 민속 I』(1993년)을 비롯하여 제주도 교육청 등의 자료에 인용되었으며, 또한 각 마을에서 발간한 향토지에도 인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를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최재석(1979) 역시 마을 조사를 통하여 장례 절차를 기술하고, 특히 제주도의 특수한 가족제도와 장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상복의 종류와 복제(服制), 부조, 장례 경비의 분담과 친족관계에서 육지의 농촌과 다른 점을 밝히고 있다. 현승환(1977)은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에서 제주도 상례와 제례 절차에 대하여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의 분리의례, 전이의례, 통합의례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제주인의 일생』(2007)에서도 상례 절차와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고부자는 제주도민의 복식을 연구하면서 상례복에 대하여도 고찰한 바 있으며(1984, 1985), 강문유(1990)의 제주도 상여노래에 대한 연구도 있다.

두 번째로 제주도의 장묘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도에 산담과 동자석이라는 특이한 장묘문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 김유정의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2003), 김유정, 손명철의 『제주의 무덤』(2007), 엄경화의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2007)등이 있다. 또한 제주도의 토롱 풍습에 대하여는 고정하의 「제주도 상·제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의 교육적 의미 연구」(2004)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상례를 중심으로 상례 절차와 그 의미,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 사회 기능적 현상, 상례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킨 것이다. 하지만 상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상례를 독자적인 현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농촌사회에서 상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포함한 상례문화와 함께 고찰하겠다.

제주도 상례에 대한 기존의 조사 자료들은 상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제주도 농촌사회에서 실제 상례와 상례문화의 존재양상, 변화하고 있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은 현대 제주도 농촌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도시의 상례문화는 전통적인 모습을 상실하였으며, 농촌사회 상례문화도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축소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현재의 변화양상에 대한 정리와 고찰이 필요하다.

3.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그 의미’이다. 상례문화는 상례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례를 둘러싼 제반 요소와 현상들의 종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시신처리를 위한 장례를 포함하여 죽음에 대한 관념, 타계관, 다양한 의례, 가족, 친족집단,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 등 다양한 현상들이 상례문화에 포함되어 있다.

상례문화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가족과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상례이다. 상례는 초상부터 탈상까지의 다양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의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례는 유교의 『사례편람』과 같은 예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근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교의례와 무속의례가 혼합되어 있다. 이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들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종교 관념(영혼관, 죽음관 및 타계관)과 그에 따른 행동
- 임종부터 탈상까지의 의례
- 귀양풀이, 시왕맞이 등 무속의례, 토신제 등 민간신앙
- 조상숭배사상, 풍수사상, 택일 풍습
- 상례 비용 조달

또한 농촌사회에서의 상례는 가족과 친족집단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로 지속되어 왔다. 단지 의례뿐만 아니라 상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의 동원과 공급을 둘러싼 문화가 있으며, 그 관습과 전통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촌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해 왔는데, 협업과 공동노동,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상례문화가 만들어져 왔다. 이에 속하는 현상들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상여와 운상
- 상여소리, 진토굿소리, 달구소리 등 놀이문화
- 상제 및 친족집단의 상호작용 관계

- 필요한 노동력의 조달과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응
- 부조와 문상
- 상복 및 음식
- 장법과 장묘방법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상례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변화하고 있는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첫째, 제주도 상례문화의 특성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으며, 의미가 있는 현상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2000년대의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마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둘째, 제주도의 상례에는 유교와 무속이 혼합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무속 의례가 사라지고 있으며, 탈상 시기의 단축 등 유교 의례도 축소되고 있다. 이는 조상숭배 관념의 약화와 농촌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유교 의례를 중심으로 상례가 치러지지만 무속의례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사례 조사를 토대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셋째, 상례문화의 변천을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상례문화의 변천을 나타내는 현상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공동묘지, 행정 정책의 영향, 의례 공간, 노동조직, 장례 주관자, 의례의 변화와 축소, 부조와 답례품, 상여와 상여소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례문화의 원인에 대하여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관습의 약화, 도시문화의 농촌 침투,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1) 문헌자료 조사

고대 탐라국과 그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상례와 상례문화가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조선왕조실록』과 『남환박물』 등에 일부 기록이 있으며,³⁾ 또한 조선시대의 상여계 및 차일장과 관련된 문서⁴⁾가 일부 남아있을 뿐이

다. 조선시대의 제주도 상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상례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제주도 상례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남제주군지』, 『북제주군지』를 비롯하여 제주도내 각 마을에서 제작한 향토지에도 수록되어있는 상례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였다.⁵⁾

(2) 현지 조사

현지 조사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2개 마을(하천리, 성읍1리)을 선정하였다. 표선면은 제주도내에서 동남부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유사한 문화적 특성도 있으나, 구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 정의현청이 있었던 지역으로 민속의 고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되어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⁶⁾ 표선면에 있는 10개 마을 중에서 하천리와 성읍1리를 조사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 마을들이 표선면에 있는 다른 마을들보다 상례문화의 변천을 보여주는 특성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리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활용하면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여 그에 따른 상례문화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제주군의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기도

- 3) 조선왕조실록 태종과 세종대의 기록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삼년상을 치렀다고 나와 있으며, 17세기에 제주 목사를 지낸 이원진의 『탐라지』, 18세기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제주도의 상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상사를 마치면 백일이면 상복을 벗고, 밭 머리를 조금 파서 무덤을 만들고, 간혹 삼년상을 행하는 자도 있다. 풍수지리와 복서(卜筮)를 쓰지 않고 부도법(浮屠法)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지금은 삼년상은 사람마다 모두 이를 행하고 있는데 지리복서(地理卜筮)를 혹 사용하는 사람은 업중(業中)으로써 주포 2필씩 징출(徵出)하여, 상평청(常平廳)에 회록(會錄)하는데 이른바 업중(業中)이라 한다. 대개 지술(地術)을 가리키는데 이는 반드시 탐라의 옛 관례이다. 그리고 밭머리에 분묘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옛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 10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서귀포 하효리와 서귀포 호근마을 상여계 문서가 남아 있다. 서귀포 하효리 상여계 문서는 1763년에 작성된 상여신조입참책록(喪興新造入參冊錄)이며 (김영돈·고광민,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제주의 민속 I』, 제주도별채, 1993), 서귀포 호근마을의 상여계와 장막계(차일장) 문서들은 1707년 3월에 작성된 차일장(遮日帳) 입참책록(入參冊錄), 1735년 10월 차일장 입의책록(立議冊錄), 1832년 11월 입의, 1864년 12월 개등입의(改膽立議), 1887년 4월 상여신조입의(喪興新造立議) 등이 있다.(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 5)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제주도내의 각 마을에서 발간한 향토지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로 상례 절차를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한 향토지들도 많으며, 상례와 관련된 내용들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는 제주도내 각 마을에서 행해지는 상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 6) 연구자가 2년 이상 표선리에서 거주하였는데, 주민들 스스로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교 인식이 있으며, 전통의 지속과 함께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의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였다. 또한 자생종교인 삼천교가 생겨난 지역으로 아직도 신앙민들이 많으며, 분향당을 비롯한 문전코시 등 무속신앙도 활발하게 남아있고, 4.3의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색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성읍1리는 조선시대 정의현청이 있었던 마을로서 중산간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1980년대까지 제주도내 다른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게 이루어졌다. 2000년도까지 상여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상여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등 전통상례의 모습들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반면에 공동묘지에 장례시설이 들어서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 변화 양상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주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성읍1리의 경우 1970년대에 조사된 자료가 있음에 따라 현재의 변화 양상과 비교할 수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동묘지 이용 현상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면접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각 마을에서 현재까지 상례를 직접 집행해 왔던 ‘장례주관자’들을 집중적으로 면접하여 과거와 현재의 상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각 마을에서 전문적으로 장례 일을 맡아서 처리해 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장례 절차와 내용, 장법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전·현직 이장, 청년회장을 비롯하여 마을의 역사와 문화, 풍습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공동묘지의 설립 및 운영, 마을내의 상례문화, 운상 방법, 산담, 장례 방법,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대응 방식, 부조와 문상 등 상례문화의 제반 요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70대와 80대 노인을 대상으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상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조사하였다.

면접 대상 인원은 특정 세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연령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인근 마을인 표선리, 토산리, 신천리 주민들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다. 면접한 인원은 하천리 8명, 성읍1리 7명, 표선리 5명, 토산리 2명, 신천리 1명, 가시리 1명, 신평리 1명이다. 면접 방법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사용하고, 조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공감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녹음기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직접 경험한 상례 사례
- 나. 시대별 상례의 특성과 변화 양상
- 다. 장례 절차, 토신제 등에 대한 조사
- 라. 공동묘지의 도입 및 그에 따른 변화
- 마. 노동인력 조직화 및 동원 방법
- 바. 상여 및 상여계, 상여소리, 운상 방법
- 사. 죽음에 대한 관념
- 아. 장의사의 등장과 그에 따른 변화
- 자. 부조와 문상의 변화
- 차. 귀양풀이와 민간신앙 의례
- 타. 마을 내 장례주관자 현황

(3) 참여 관찰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 포선리에서 행해졌던 장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유교 의례와 무속의례(귀양풀이)를 직접 관찰하여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상제(喪制)⁷⁾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를 하였다. 2007년 11월의 조사에서는 장례 당일 발인부터 매장까지의 의례 진행과 귀양풀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대렴(大殮)부터 매장까지의 의례와 귀양풀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상례는 가족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의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여 상례의 전 과정을 관찰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말상제로부터 협조를 구하기는 하였지만 상제 모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특히 여자 상제나 여성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사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다. 따라서 조사는 의례와 장례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례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상제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 의례의 의미와 성격, 해석 등을 보완하였다.

7) 제주도에서는 상주(喪主)보다는 상제(喪制)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상주는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맏아들뿐만 아니라 상을 치르는 아들, 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상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별히 상주와 구분하지 않는다.

II.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의 특성과 사례

1. 제주도 상례의 특성

조선시대 제주도의 전통상례에 대하여는 전해지고 있는 기록은 없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례와 상례 문화에 대한 조사한 일부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농촌의 상례는 조선시대 유교 상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 등의 영향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례 문화에 대한 조사 자료⁸⁾를 종합하여 그 현상과 특성을 제주도 상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의례와 함께 무속의례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임종부터 매장할 때 까지는 유교의 의례로 진행하지만 매장한 날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무속의례인 귀양풀이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 귀양풀이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아직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례로 인식되고 행해지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는 혼을 건지는 무혼굿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었다.⁹⁾

둘째, 민간신앙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다. 1960년~1970년대의 상례에서는 민간신앙과 무속의례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돌 아궁이를 막는 것¹⁰⁾, 조관(造棺)할 때 까지 팔죽을 쑤어서 먹는 것¹¹⁾은 민간에서 전승되어

8)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제주도 상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3호, 문화재관리국, 1966

이광규,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 1974

현용준, 「제주도의 상례, K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제42권 제3호, 일본민족학회, 1977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집문당, 2002)에 재수록

김기태, 「제주도 상례의 실태와 그 특색」,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최재석, 「장례와 친족조직」,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9) "남편이 남영호 사건으로 돌아가부난, 곳 해영, 동네 심방 데령 앞바당 강 곳 해여그네, 곳 허멍 머리밧, 열래 기 가정 강 혼 건지레 가신디, 불은덴 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 올라오란, 혼 만 건정 오랑, 적삼에 놓양 혼 오랐덴 허영, 상에 올려 놓양, 비석은 그 뒷 해, 비석 밑에 명정하고 같이 끌양 지냈주"
표선면 토산리 김오생씨(77세) 면담(2008.9.20) 녹취

은 풍습이며, 염습(殮襲)할 때에 떡¹²⁾을 시신(屍身)에 놓는 것, 출구(出柩)할 때 삼살방(三煞方)이 아닌 방위로 나가는 것¹³⁾, 출구(出柩)할 때 관(棺)을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¹⁴⁾, 출구하고 나면 방바닥에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콩을 뿌리는 것, 입관할 때 땀수건을 넣는 것¹⁵⁾ 등이다. 또한 임종이 가까워지면 죽음의 전조 현상으로 까마귀가 우는 것, 부엉이가 우는 것, 도깨비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지고 있다.¹⁶⁾ 입관을 할 때 충호법을 한다. 방에서 장례 주관자가 밖을 향하여 “oo생(生) 있소”라고 물으면 밖에서는 “없소”라고 대답하며,¹⁷⁾ 부르는 생시가 많으면 각각 일일이 부르고 답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장례 주관자는 “만사가 허사로다”라고 말한 다음 관 뚜껑을 닫는다. 또한 하관할 때에도 살(煞)이 있는 사람은 하관을 보지 못하도록 자리를 피하게 한다.¹⁸⁾ 이외에도 집 밖에서 죽은 경우에는 집 안으로 시신을 들이지 않고 집 근처에 빈소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풍습들은 1960년~1970년대의 상례에서 조사된 것들이며 현대의

- 10) “별세 직후 온돌 아궁이는 잘 막아야 하며 불이 있으면 이를 끌어서 버려야 한다. 만약 온돌을 잘 맞지 않아서 고양이 온돌에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는 속신이 있다.” 김영돈, 앞의 글, 708쪽
- 11) “옛날 어느 대감 집에 우둔하고 몰염치한 이가 살았었다. 얼마나 몰염치했던지 동네에 장사가 나기만 하면 상가에 가서는 차려놓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 치우곤 했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의 행패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어느 집의 장사 때에는 조관(造棺)할 때에 팔죽을 쑀었다. 어디 팔죽이야 먹겠는가 그대도 몰염치한은 나가 버렸다. 그 몰염치한은 사람이 아니라 악신(惡神)인 <명칭이긔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명칭이긔것>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조관(造棺)할 때에는 으레 팔죽을 쑀게 된 것이 굳어진 관례로서 전해졌다. 이 <명칭이긔것>은 인간에게 감기도 주는 악귀(惡鬼)임이 밝혀지자 동지날에는 집집마다 팔죽을 쑀어 먹음으로써 이 악귀(惡鬼)의 침입을 막는 습속도 생기게 되었다.” 김영돈, 앞의 글, 712쪽
- 12) “백미나 메밀로 만든 자그만 떡 9개를 양손과 가슴에 각각 3개씩 넣어 준다. 혹은 떡 6개를 만들어 양손과 가슴에 각각 2개씩 넣기도 하며 6개를 양손에 각각 3개씩 심기는 등 그 수효는 일정하지 않다. 이 떡은 저승문을 들어설 때 그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주어 개를 쫓으려는 것으로 믿고 있다.” 김영돈, 앞의 글, 709쪽~710쪽
- 13) “예전엔 삼살방(三煞方)이 아닌 방위를 꼭 가려 출구(出柩)했었으니 만약 삼살방이 아닌 방위가 벽일 경우면 벽을 뜯어서 출구했었던 지방도 있다.” 김영돈, 앞의 글, 715쪽
- 14) “출구에 관한 속신이 별로 없으며, 바가지도 깨뜨리지 않고, 문지방도 치지 않는다.” 이광규, 앞의 글, 66쪽
- 15) “입관하고 나서 관 안의 빈 곳을 채우면서 상제나 근친들이 조그마한 광목 조각을 넣는다. 이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 하도 멀어서 가는데 흐르는 땀을 닦도록 하라는 뜻이다.” 현용준, 앞의 글, 331쪽
- 16) “까마귀가 궂게 우는 것은 불행한 전조이다. 아침에 우는 것은 아이의 죽음을, 낮에 우는 것은 어른의 죽음을, 저녁에 우는 것은 노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다. 부엉이도 우는 소리에 따라서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된다. 도깨비불이 날아가는 것이 보이면 얼마 되지 않아 환자는 죽는다, 차사가 환자의 혼을 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용준, 앞의 글, 329쪽
- 17) “이는 입관할 때에 <강남>이란 <인간차사>가 내려와 망인과 같은 생갑(生甲)의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고 찾으나 찾지 못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관습이라고 한다.” 김기태, 앞의 글, 124쪽
- 18) “표선면에서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하관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 단결하여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면 <인간차사>가 내려왔다고 아무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 김기태, 앞의 글, 127쪽

상례에서도 부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유교 의례가 공식적인 절차라면, 이들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은 비공식 절차로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¹⁹⁾

셋째, 초혼(招魂) 시기가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상례에서도 초혼은 각 지역마다 행해지고 있는데, 혼을 부르는 시점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선 지역에서는 입관하기 직전에 하고 있으며, 초혼을 하고 나서야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입관하기 직전에 혼을 다시 부르는 것은 영혼이 자의적으로 육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²⁰⁾ 또한 흘적삼(혼을 부를 때 사용했으므로 혼적삼이라고도 한다)에 영혼을 빙의(憑依)시켜 혼백으로 여겨서 사령(死靈)으로 모시기 시작한다. 흘적삼을 시신의 얼굴에 덮어 두거나 머리맡에 놓아두며, 발인할 때는 바구니에 넣어서 혼백상으로 만들어서 맡며느리가 지고 간다. 삼년상을 치를 때는 흘적삼을 집으로 갖고 와서 혼백상 밑에 바구니 속에 넣어서 삭망제를 지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집으로 갖고 오지 않고 관을 묻을 때 그 위에 놓고 같이 묻기도 한다. 지금은 관과 함께 묻어버리고 영정사진만 갖고 돌아오며, 영정사진을 모셔놓고 삭망제를 지내고 있다.

넷째, 성복제, 일포제, 발인제, 하관제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다. 유교 상례는 망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과 동시에 망자의 영혼을 조상신으로 만드는 절차로 치러진다. 즉, 조상의 영혼이 사라지거나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주를 만들어서 사당에서 조상신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 절차에서 망인을 위하여 올리는 의례는 제사가 아니라 전(奠)이라고 표현된다. 망인의 영혼이 조상신이 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제사가 아니라 전이라는 형식으로 의례를 치르며, 성복전(成服奠), 일포시조전(日晡時祖奠), 견전(遣奠) 등으로 되어 있다. 매장이 완료되어 신주를 만들어 집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우제(虞祭)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상례에서는 전(奠)이 아니라 제(祭)라고 표현하고 있다.²¹⁾ 우제 이전의

19) 개떡을 만드는 것, 충호법, 팔죽을 먹는 것, 출구할 때 주의하는 것, 출구할 때 그릇을 깨뜨리고 콩을 뿌리는 것, 살이 있는 사람은 입관, 하관을 보지 않는 것, 집 밖에서 죽었을 경우 시신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등은 지금도 남아있는 풍습이다.

20)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8, 22쪽.

의례를 제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유교 상례를 받아들여 민간에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의례를 치르면서 제와 전을 구분하지 않고 표현해 온 것이다. 민간에서 상례를 행하면서 『사례편람』과 같은 예서에 나와 있는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보다는 행위 전승을 통하여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이다. 또 하나는 양반 계층에서는 신주를 만들어서 사당에 조상신으로 모시나,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일부 가문에서 사당을 만들어서 조상신을 모셨으나, 대부분의 민간에서는 사당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나마 존재해 왔던 사당들도 일제 강점기와 4.3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다. 사당을 만들어서 유교의 조상숭배에 입각한 상례를 치르기 보다는 민간에서는 뿌리 깊은 민간신앙과 무속신앙의 바탕 위에서 상례를 치러 왔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상복 입는 기준이 다르다. 제주도의 상례에서 상복을 입는 기준은 육지와는 달랐다. 상복을 입는 기준은 부계 친족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으로 『사례편람』 등에 엄격하고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²²⁾ 육지에서는 오복제에 근거하여 망자와의 신분의 상하 차이, 직계와 방계, 원근의 차이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상복을 입는 친족도 9종의 친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모 형제로부터 8촌에 이르기까지 당내친족(堂內親族)은 오복제(五服制)를 지켰었다.²³⁾

21) 제(祭)와 전(奠)은 의미상에서 차이가 있다. 제는 조상신을 대상으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전은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음식과 제물을 차려서 바치고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엄밀하게는 구분된다.

22) 조선 시대에 유교 의례를 전파, 교육시키기 위하여 만든 예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을 시행하기 쉽게 해석하여 만들어서 조선 후기 서민 사회에까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예서이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교를 교육시켰던 제주향교에서는 18세기에 『상례비요』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3) 오복의 제도는 참쇠(斬衰), 재쇠(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로 구분되며, 상복을 입는 친족은 9종의 친족으로 구분되어 있다. 참쇠(斬衰), 재쇠(齊衰) 3년, 제쇠장기(齊衰杖基) 제쇠부장기(齊衰不杖基), 제쇠오월(齊衰五月), 제쇠삼월(齊衰三月),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이다.

① 참쇠 3년복 : 부친상, 참(斬)이라 함은 몹시 애통하다는 뜻이고, 쇠(衰)도 역시 효자의 애통함을 뜻하는 것이다. 거친 생포(生布)로 짓되 아랫단은 꿰매지 않고, 수질과 요질의 끈을 삼으로 하며 상장(喪杖)은 대(竹)로 한다.

② 재쇠(齊衰) 3년복 : 모친상.

③ 제쇠 장기(杖基 : 상장을 짚는 1년상) : 아버지가 생존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부가 생존하고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등

④ 제쇠 부장기(不杖基 : 상장을 짚지 않는 1년상) : 아내가 죽었을 때, 조부모 상 때 등

⑤ 제쇠 5월 : 증조부, 증조모 상

⑥ 제쇠 3월 : 고조부, 고조모 상

제주도의 경우 오복제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으며, 육지의 상복제도에 비하면 단순하고 덜 복잡하였다. 제주도는 상복을 입는 친족을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망자의 배우자(주로 남편), 자녀 및 며느리이며, 다른 하나는 이 밖의 8촌까지의 친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복 제도도 최근에는 급격하게 붕괴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례 과정 중에서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만 상복을 입을 뿐이다. 상복 제도가 갖고 있었던 친족집단 유지라는 실질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하여 거친 베토 만든 상복을 입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여섯째, 일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제주도의 상례에서 일포제를 지내는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로 여겨지고 있다. 일포날은 공식적으로 문상객들을 받는 날이며, 이 날 외에는 문상객들을 받지 않는 풍습이 지금도 전통으로 남아있다. 문상객들도 이 날 상가에 가는 것이 예의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제주도의 상례에서 일포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 온 인식과 관습에 따른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성복이 끝난 다음날부터 상여가 나가기 전날 문상을 받는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일포날이 정식으로 문상을 받는 날이다. 성복을 했더라도 일포날이 아니면 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일포제의 유래에 대하여는 『사례편람』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례편람』에는 천구(遷柩)라는 절차에서 발인 하루 전날 사당에 영구를 옮길 것을 고하고, 영구를 사당에 인사시키며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싣고 견전(遣奠 : 발인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전)을 올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당이 없는 경우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일포시(日哺時)’가 되어 올리는 조전(祖奠)만 남게 되며, 이 절차가 ‘일포제(日哺祭)’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포제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신시(申時)에 지내는 데 다음날 집을 떠나서 장지로 간다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것이며, 제를 지내는 제관은 상제들이 아니라 복친이 주관한다. 상제들은 망인 앞에 죄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망인을 보내는 의례를 주관하지 못하

⑦ 대공(大功) 9개월 : 중부의 형제·자매가 입는 복.

⑧ 소공(小功) 5개월 : 증조조부·증조조고(할아버지 형제, 자매), 증조부·증조고(아버지의 중부 형제, 자매) 상

⑨ 시마(總麻) 3개월 : 족중조부·족중조고(증조의 형제, 자매), 형제의 증손, 등 문육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II), 사례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는 것이다.

일포는 발인하기 전날로서 상제들로서는 망인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며, 또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공식적으로 문상을 받는 날이다. 또한 장례에 참여하여 수놓음으로 일을 도와주는 이웃사람들에게 접대를 하는 날이기도 하다. 문상객들로서도 이 날이 공식적으로 문상을 가는 날이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이 날 상가에서 밤을 새면서 화투나 장기, 바둑 등을 떠들썩하게 노는데, 일포날은 망인을 위하여 또한 상제들을 위하여 일부러 놀아주어야 한다는 인식과 풍습이 있다. 죽은 이와 더불어 같이 놀이를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날 장례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음식으로 사례를 하는 공정(功情)을 한다.²⁴⁾ 주로 목수에게 사례를 하는데 예전에는 돼지고기 삶은 다리 한쪽, 떡, 생선, 술 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주었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현금으로 대체되었다.

일곱째, 여성들이 상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²⁵⁾ 제주도의 상례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적극적이다. 발인하여 나아갈 때 맏며느리 또는 큰딸이 망자의 혼백상을 짊어지거나, 영정사진을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상여로 운상할 때에는 동네 여성들이 설베를 매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장지까지 같이 갔으며,²⁶⁾ 장지에서도 폐와 흙을 운반하는 것을 돕거나 음식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여성들이 장례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제주도 상례의 특징이다.

<표 1> 제주도 상례 절차 비교

구 분	김영돈 (1966)	이광규 (1974)	현용준 (1977)	김기태 (1977)	최재석 (1979)
임종	임종 . 아궁이막기	임종 .정침 .아궁이막기	임종 .정침 .미음	임종 .정침 .속평	임종 . 미음

24) “옛날에는 목수 빌영 관도 짜고, 개판이란 거 다 하고, 지금은 돈주고 다 사지만... 목수빌영 허민 일포에 공정을 할 때 상제들이 떡을 해 오면 목수에게 도새기 혼 다리, 떡 일곱가지 해그네, 일곱가지 떡은 제편(침떡), 술변, 절변, 인절미, 중계, 약계, 과일까지 해서 술 한병, 생선도 하나 놓고 경 행 갖다 주어수다, 상제들이 한 가지씩 다 해오면, 상제가 없으면 혼자서 다 허고...” 표선면 토산리 김오생씨(77세) 면담 녹취

25) “상가에 여자가 참가하는 것, 장지까지의 장례행렬에 여자 상제, 여자 친척이 참가하는 것, 혼백상을 며느리가 지고 가는 것 등의 현상은 육지에는 없는 것이며, 남녀의 사회적 격리사상의 약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재석, 앞의 글, 323쪽

26) 상여 행렬은 명정-혼백상-만장-설베-상여-상제-복친-친구의 순서로 나아간다. 상여 앞에는 설베라 하여 양쪽으로 광목을 길게 연결하여 마을 부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잡고 걸어갔다.

	초혼 .원미울림 .분향 .곡	초혼 .곡 .향	.아궁이막기	.아궁이막기 초혼 .원미울림 .분향 .곡	
습(襲)/ 림(殮)/ 입관(入棺)	염습 .목욕 .반함 .개떡 소림 조관 .팔죽 입관	습염 .습 .소림 .대림 반함 .개떡 조관 입관	소림 초혼 .곡 조관 .팔죽 염습 .목욕 .반함 .소낭 대림 입관 .땀수건	택일 조관 습 .목욕 .소낭 .소림 반함 .개떡 대림 입관 .충호법	호상 .반함 .목욕 .습 .소림 .대림 초혼 .곡 조관 입관 .충호법
성복(成服)	성복제 치장	성복제 .단잔 단배	성복제 .단헌단작 치장 .장지 .택일	성복제 .혼백 .명정 .분향	성복제 .황배 삼배 .집사 단작
문상(問喪)					부고 조문 .성복전:단배 .성복후:삼배
일포	일포제 토신제 .전날밤 출구	일포제 토신제 .전날밤 출구	일포제 .삼헌삼작 토신제 .장사일아침	일포제 .일포축 토신제 .장사일아침 출구	일포제 .일포축 출구
발인	발인제 운상 .상여소리	발인 운상	발인 운상 .상여소리	발인제 운상 .상여소리	발인 .발인고유 운상

		노전제	노전제		
하관 성분	하관 . 불삽 . 현훈 성분 . 달구소리	하관 . 불삽 . 동심절 . 현훈 . 속백 초우제	하관 . 명정 . 혼백 . 불삽 . 동심절 . 현훈 . 하관제 성분 . 달구소리 초우제	하관 . 명정 . 혼백 . 불삽 . 동심절 . 현훈 성분 . 달구소리 초우제	하관제 하관 . 명정 . 혼백 . 불삽 . 동심절 . 현훈 초우제
	귀양풀이		귀양풀이	귀양풀이	
우제	삭망	재우제 삼우제	재우제 삼우제 상식 삭망제	재우제, 삼우제	재우제 삼우제 삭망제
졸곡			졸곡제	졸곡제	졸곡
					토신제
소상	소상		소상	소상	소상
대상 25개월(만 2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시왕맞이		
담제 27개월			담제	담제	담제

2.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 사례

1) 표선리 금촌칠씨 사례

표선리에 거주하는 금촌칠씨(1926년생)의 모친은 100세의 나이로 2008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돌아가셨다. 금씨의 모친은 제주 양씨로 5남 3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금씨가 현재 82세로서 맏아들이다. 금씨는 30대 중반부터 장례 관련 일을 직접 배우고 해 왔으며, 51세부터는 정의향교에 다니면서 유학 및 유교 제례 절차를 기술한 책을 보기도 하였으며, 향교에 다니는 분들과 제례 절차와 의미에 대하여 토론을 해 왔다. 현재 표선리의 원로 중 한 분으로서 마을 포제에 헌관으로 제의를 집행한 적도 있다. 또한 유교 의례 외에도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풍습, 무속의 귀양풀이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으며, 유교 상례와 함께 무속의례, 민간 신앙 요소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① 택일: 택일은 돌아가신 날 오전에 표선리에 거주하는 정시²⁷⁾에게 의뢰하였는데, 5일장으로 치르기로 하였다. 입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이며, 성복제는 같은 날 16시에서 17시, 일포는 7월 29일, 발인은 7월 30일로 택일 되었다. 만상제인 금씨는 상례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택일 결과 3일장이 나오기를 원하였으나, 택일을 해 보니 5일이 나와서 3일장을 포기하고 5일장을 치르기로 했다. 금씨는 택일은 "망인에게 좋은 날로 장례를 치러서 저승으로 보내고, 또한 자식들 중에도 망인이 막아 버리면 입관, 하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액이 닥치지 않기 위해 보는 것"이라고 한다.

② 염(殮), 습(襲): 장의사를 불러서 7월 26일 돌아가신 날 오후에 염습²⁸⁾을 했다.

27) 지관(地官)을 제주어로 정시라고 한다. 풍수지리에 따른 집터나 묘터를 정해주는 일을 비롯하여 경조사와 관련된 택일을 해주는 일을 한다. 현재 표선리에는 한 명의 정시가 있으며, 표선리를 비롯하여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택일을 의뢰하면 5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택일지를 써주고 있다.

28) 유교 상례에서는 습과 소렴 절차로 구분되는데 제주도 상례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염습이라 한다. 습은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먼저 향을 끓인 물을 준비하여 수건에 적셔서 망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힌다. 수의를 입힌 다음에 곡을 하고, 반함, 영좌 설치, 혼백을 만들고, 명정을 세운다. 소렴

표선리에는 장의사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또 한 곳은 최근에 새로 생겼다. 새로 생긴 곳은 모슬포, 안덕, 고산지역에서 장례업을 하고 있는 장의사가 최근에 표선면에 진출한 것이다. 새로 표선에 진출한 장의사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석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관은 대리석으로 옆면을 만들어서 나무 관을 둘러싸고 개관 역시 대리석으로 올려놓는 형식이다. 고인을 모시는 데 정성을 다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금씨는 기존의 장례업체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불렀다. 장례업체 직원이 와서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 놓았으며, 얼굴에는 저고리를 덮어 두었다. 금씨의 모친이 생전에 호상옷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베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직접 수의와 상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장의업체에 수의와 상복 일체를 주문했다. 준비해 놓았던 베는 귀양풀이할 때 일부 사용하였다.²⁹⁾

③ 대렴(大殮): 대렴은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였다. 전날 수의를 다 입혀놓은 상태에서 먼저 버선을 신은 발 위에 신을 신겼다. 신은 ‘꽃신’이라고 하는데 ‘저승신’이다. 저승신은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신는 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³⁰⁾ 고무신 모양이며, 명주로 만들었는데 화려하게 무늬로 장식되었다. 그리고 양 손에는 손싸개를 끼웠다. 얼굴을 덮었던 저고리를 벗겨내고, 반함(飯含)을 하였다. 물에 불린 쌀을 만상주가 손가락으로 세 번 떠서 망자의 입에 넣었는데, 망자가 저승까지 갈 동안에 먹을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반함을 할 때 장의사가 첫 술은 “백석이요”, 둘째 술은 “천석이요”, 마지막 셋째 술은 “만석이요”하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망자의 얼굴을 볼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하여 딸이 망자 앞에 앉았는데, 울음을 울려고 하자 만상제가 울지 못하도록 말했다.

망자의 얼굴을 명목(幀目)으로 덮고 나서 곁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 호상을 씌웠다.³¹⁾ 삼베를 시신 밑에 깔고 다시 위에도 덮었다. 밑에 깔았

은 추가로 상의, 산의를 입히고 금(이불), 효(빨아서 누인 고운 베)로 시신을 싸는 절차이다.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II), 상례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9) "옛날에는 상이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방 하나에 모여서 밤새도록 상복을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이 옛날 모양 동네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상가가 복잡할 것 같아서 동네사람 다 쥐버렸다." 금촌칠 씨 설명

30) 고부자,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4, 109쪽.

31) “안의 붉은 색은 현세(現世)에 사는 자손들이 눈을 밝게 하라는 뜻이며, 곁의 검은 색은 현세와 내세(來世)를

던 삼베의 좌우를 4 쪽으로 자르고 각기 시신의 가슴부터 시작하여 세 갈래로 잘라서 12폭으로 만들어서 열두 마디로 묶었는데, 이는 시신의 몸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묶을 때는 나중에 풀 수 있도록 코를 한번만 만들어 걸어두었다.

④ 초혼(招魂): 시신을 묶는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영혼을 부르는 초혼(招魂)을 하였다. 장의사가 망자의 홀적삼을 갖고서 마당 한 쪽 구석으로 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서 홀적삼을 흔들며, “제주 양씨 북, 북, 북”을 외쳤다.³²⁾ 그리고 그 홀적삼을 큰 머느리가 현관 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작은 상에 올려놓고 머리 위에 이고 방안으로 들어 와서 시신 앞에 놓았다. 그 때서야 상제들이 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초혼을 부르기 전까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울음을 울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초혼을 부른 다음에야 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초혼 의례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시신은 관 안에 모셔서 매장을 하지만, 영혼은 따로 홀적삼에 빙의시켜 탈상할 때 까지 조상으로 모시는 것이다.



(사진1) 혼을 부른 홀적삼을 맏머느리가 모시고 있다.



(사진2) 혼을 부른 홀적삼과 12매듭으로 묶은 시신.

구별하여 다시는 현세를 못 본다, 또는 이승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색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것은 얼굴이 닿는 부분이므로 눈(眼)과 관련이 있다. 눈은 광명천지를 상징하며, 눈이 밝아야 앞길이 훤히 트여서 출세한다고 믿는 유사연상속신(類似聯想俗信)에 기인한 것이다.” 고부자, 앞의 논문, 107쪽.

32) 예전에는 친족 중의 한 사람이 앞 지붕으로 올라가서 혼을 부르고 뒤쪽으로 홀적삼을 내려주기도 하고, 집 안에서 “북 북 북” 소리를 따라서 외치기도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장의사에게 맡겨서 뒷마당이나 마당 한 쪽 구석에서 한다. 표선 지역에서는 대부분 입관하기 직전에 초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입관(入棺): 입관하기 위하여 관을 방안으로 들여오고 관 안에 한지를 바닥에 깔고, 나중에 시신을 덮을 수 있도록 옆 벽면에도 걸쳐 놓았다. 예전에는 천衾(天衾, 명주로 만든 이불, 관의 크기만큼 만든다), 지衾(地衾, 명주로 만든 요)을 만들어 지衾(地衾)은 관 아래 깔고 천衾(天衾)은 시신을 안치하고 난 뒤 맨 위에 덮었는데, 현재는 종이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종이 위에 별 모양의 도장 일곱 개를 찍었다. 이것도 관 밑판에 칠성을 새기거나 그린 것을 대체한 것이다.³³⁾



(사진3) 관 안에 도장으로 칠성을 찍었다.



(사진4) 입관하고 나서 보공을 넣고 상체들이 땀수건을 집어넣고 있다.



(사진5) 입관 이후 시신을 묶었던 12매듭을 모두 풀고 있다.



(사진6) 보공을 넣고 12매듭을 풀 다음에 다라니경을 덮었다.

시신을 관 안에 옮겨 넣은 다음에 보공(補空)을 넣어서 관의 빈 곳을 채워 넣었다. 보공은 시신이 관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대까지는 산디짚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큰 며느리가 미리 준비한 옷가지를 넣었으며, 다

33) "관 안에 칠성을 그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북두칠성이 있는 하늘, 칠성골로 간다고 합니다." 금촌칠 씨 설명

른 상제들도 옷가지나 하얀색 손수건을 넣었다. 저승사자와 망인이 저승으로 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땀을 닦으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만상제와 큰며느리가 망인을 묶은 매듭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시신에 매듭을 맨 채로 저승에 가면 이승에서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가는 격이라 하여 모두 푸는 것이다.³⁴⁾ 매듭을 모두 푸는 다음에 시신 위에 흰 종이를 덮었다. 예전에는 천금이라 하여 이불이나 흰옷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 위에 불교에서 사용하는 다라니경을 덮고, 미리 벽면에 걸쳐 두었던 종이로 시신을 완전히 덮었다.

만상제가 택일지(擇日紙)를 보면서 입관을 보지 말아야 할 띠를 하나씩 “OO생 있소”라고 외치면, 장의사는 “없소”를 반복했다. 생기(生氣)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관 두껍을 덮고 나무못을 박았으며, 상제들의 울음은 더욱 커졌다. 하얀색 천으로 된 관보로 관을 덮은 다음에 관을 운반할 수 있도록 광목으로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묶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명정을 덮고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관을 옮겨서 택일지에 쓰여 있는 방향인 동남쪽으로 돌려놓았다.



(사진7) 마지막으로 흰 종이를 덮은 상태. 예전에는 천금이라 하여 이불을 만들어서 덮었다.



(사진8) 동남쪽으로 관을 돌려놓고 혼을 불렀던 저고리를 관 위에 올려놓았다.

손주며느리가 개떡을 담은 접시를 만상제에게 주었는데, 만상제는 그것을 다시 손주며느리에게 주면서 자그마한 바구니에 개떡과 과일, 소주를 담으라 하여 보자기에 싸도록 하였다. 여름철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봉에 있는 공동묘지 냉동고 시설로 관을 옮겼다. 매봉 공동묘지에 있는 냉동고는 4기의 관

34) 교부자, 앞의 논문, 112쪽.

이 동시에 보관될 수 있는 시설로서 표선리사무소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름철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봉에 있는 공동묘지 냉동고 시설로 관을 옮기기 위하여 장의차로 이동하였다. 장의차에 관을 옮겨 싣고, 혼을 불렀던 저고리를 담은 바구니, 개떡을 담은 바구니를 같이 싣고 매봉으로 이동하였다. 매봉 공동묘지에 도착하여 관을 냉동 시설 안으로 옮겼으며, 관 위에는 혼을 불렀던 저고리, 동심절, 운삽, 아삽을 올려놓고 개떡을 담은 보자기도 같이 넣었다.³⁵⁾



(사진9) 명정으로 관을 덮어놓았다.



(사진10) 저승길 열두대문을 막고있는 개를 쫓는다는 개떡을 만상제가 들고 있다.



(사진11) 표선공동묘지에 있는 냉동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운반하고 있다.



(사진12) 냉동실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 관 위에 홀적삼과 삼베, 동심절, 운삽과 아삽이 놓여 있다.

35) "개떡은 귀신이 개가 따라간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나갈 때 일곱 개를 하는데, 출상하여 나갈 때는 던져버립니다. 출상하기 전에는 상 밑에 놔둡니다. 나갈 때는 개떡을 던져 불고, 이번에는 공동묘지 영안실에 모셨으니까 개떡도 그 곳에 놔둡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에게 개가 서로 맞질 안해서 개가 와서 짓고 날 뛰고, 야단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옛날 어른들 해 왔던 풍습인데, 상례상으로는 없고, 제주에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개떡을 만듭니다." 금촌칠씨의 설명임.

냉동실에 갈 때 가지고 갔던 영정사진과 명정을 다시 갖고 집에 돌아와서 영혼을 별도로 모시는 영좌(靈座)를 설치하였다. 영좌에는 병풍을 둘러쳐서 오른 쪽에 명정을 걸어 놓고 영혼을 상징하는 영정사진을 모시고 제상(祭床)을 차렸다. 제상 양쪽에 촛대를 하나씩 세우고 상에는 밥, 국, 술잔, 수저, 고기류(돼지고기 적, 소고기 적, 옥돔), 떡, 채소(고사리, 콩나물), 과일(배, 바나나, 밀감, 사과, 수박) 등을 차려 놓았다. 망인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에 상을 차리고 음식을 올렸다. 금씨는 장지를 표선면 공동묘지로 정하였다. 30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토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모셨다. 표선리에서부터 토산리까지 상여로 운상하여 갔는데, 그 당시 토산 공동묘지가 표선면의 공동묘지였다.³⁶⁾ 현재 토산리 공동묘지는 만장(滿葬)이 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의 성읍2리 동검은이에 표선면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⑥ 성복(成服): 성복제는 7월 27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하는 것으로 택일지에 적혀 있다. 오후 4시가 되자 상제들이 상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상제들은 위를 꿰매지 않은 통두건만 쓰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입는 상복에 차이가 있으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최소한의 복(服)만 입었다. 예전에는 아들 상제는 바지, 저고리 위에 소단(小單), 중단(中單), 제복(祭服)을 차례로 입었으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평상복 위에 두루마기 하나만 입으며 등에다 ‘불림’이나 ‘두지계포’라는 배 hing 걸 조각을 달았다. 아들 상제는 띠를 두르고 두건을 쓰고, 행전을 하고 지팡이를 짚었다.³⁷⁾ 여자 상제도 예전에는 지도옷, 치마, 저고리, 머리에는 너울을 썼으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하얀색 평상복에 복치마만 입고, 머리에는 건대를 쓴다. ‘건대’는 남자의 ‘복두건’에 해당되는 쓰개이다. ‘베너울’과 ‘베수건’을 쓰는 것이 간소화된 것이다, ‘건대’를 머리에 올려놓고 여기에 ‘건대띠’를 얹어서 묶는다.³⁸⁾ 사위는 머리에 두건을 쓰되 띠가 없으며, 허리띠도 없이 두루마기만 입었으며, 손자는 두건, 허리띠, 행전을 했으며, 손녀는 복수건을 하고 복치마만 입었다. 복친 이외의 남자 친척

36) "예전에 표선의 공동묘지는 토산망입니다. 표선리 공동묘지가 매봉에 생긴지는 72년도에, 나가 동장으로 다닐때에 생겨서, 토산은 그 이전부터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금촌칠씨 설명

37) "부친상에는 대나무 방장대, 모친상에는 오동나무 방장대를 짚는다고 하나, 제주도에서는 모친상에 오동나무 대신 머귀나무 상장을 짚는다." 고부자, 앞의 논문, 122쪽 ~ 126쪽

38) 고부자, 앞의 논문, 127쪽~129쪽.

에게는 두건을 하나씩 주었다.

상복을 입고 나서 성복제를 지냈다. 아들 상제부터 차례로 잔을 올리고 배례를 하고, 며느리, 딸, 손자, 손녀, 순서로 배례를 하였다. 배례를 할 때 며느리와 딸은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상제 및 참석한 친척들의 배례가 끝나자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웃 주민들이 배례를 하였다. 이웃 주민들은 영좌에만 배례를 하고, 상제들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성복제를 지내고 나서 참석한 모든 친척들이 식사를 하였다. 예전에는 상이 나면 팔죽을 쑤어서 먹었으며, 사돈집에서도 부조로 팔죽을 갖고 오던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풍습은 사라졌다.



(사진13) 영혼을 모신 상차림.



(사진14) 성복제를 지내는 장면.

⑦ 일포(日晡)³⁹⁾: 성복제를 할 때 와서 배례를 하고 간 이웃주민들도 이 날 다시 와서 문상을 하고 부조금을 냈다. 복친이나 친척이 아니면 일포제를 지내기 전에는 문상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한다. 문상객들에게 식사 대접은 국수로 하였다. 문상객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집 옆에 상가 건물 1층을 빌렸으며, 표선농협마트에서 식탁과 의자, 식기류 등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며느리와 손자며느리 일절을 통하여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동안 금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하러 왔다. 손님 접대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으며, 그

39) "일포는 제가 아닙니다. '내일 장지로 나갑니다'라고 고하는 것 뿐이지, 제도 아니고, 일포제는 여러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오란 보기도 하고, 와서난 일포로 해서 지내는 것이난, 초제 전에는 제가 아녓주께. 초제는 영장 끝나서 지내는 초우제입니다. 일포 전에는 문상하러 가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만 한, 두 명 오지, 일반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수눌음으로 상이 들었으니 일 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서 서로 서로가 도우면서 하는 거난, 일포제라 해서 집에서 제를 지내는겁주께, 옛날에는 동네 분들이 와서 같이 도우며 하니까, 그래서 일포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수다." 금촌칠씨의 설명.

이후에는 오랜만에 모인 사촌형제들, 손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새웠다.

⑧ 발인(發靱): 발인은 7월 30일 아침 7시에 이루어졌다. 새벽에 상제들이 영구차를 타고 시신을 안치했던 매봉 냉동고 시설로 올라가서 관을 싣고 내려왔다. 영구차가 내려와서 시간이 되자 발인제 준비를 하였다. 영구차의 관을 실어놓는 곳 문을 열어서 관이 밖에서 보이도록 하고, 그 앞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차렸다. 발인은 영결식이라고도 하며 죽은 이가 집에서 나갈 때 지내는 마지막 제사이다. 제주도내 지역에 따라 발인제를 지내기도 하고 안지내기도 한다. 표선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인제를 지내고 있다. 먼저 아들 상제들이 절을 하고, 집사가 축문을 읽었다. 여자 상제들은 계속 곡을 하고 있다. 축문을 읽고 나서 아들 상제들이 술잔을 올리고 두 번씩 절을 하면,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 딸 순으로 똑같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문상객까지 절을 하고 나면 아들 상제들이 마지막으로 합동으로 잔을 올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에 다시 절을 두 번 하고 집사가 잡식⁴⁰⁾을 하여 올래 한 쪽 귀퉁이에 버리는 것으로 제사가 끝났다. 발인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인축(發靱祝) : 靈輻既駕 往則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상여를 메게 되었사오니, 다음은 곧 무덤으로 갑니다.

이에 보내오는 예를 베푸오니 영원히 이별하게 됨을 고합니다.



(사진15) 집 앞 올래(도로)에서 발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16) 장지로 가면서 아들 상제 집 앞에서 지내는 노제와 제물.

40) 제상에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한 그릇에 모으는 것, 잡귀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것임.

⑨ 노제(路祭): 발인제를 끝내고 나서 영구차에 상제들이 올라 타서 장지(葬地)로 출발하였다. 장지는 성읍1리에 있는 표선면 공동묘지이다. 운상을 할 때는 같은 길을 다시 돌아서 가지 않는다. 남자 상제들이 사는 집에 들러서 노제를 지내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집부터 차례로 들리면서 갔다. 둘째 아들이 사는 집 앞에 차가 멈추자 미리 준비해 놓은 작은 상에 절을 하고 술을 한잔 올렸다. 상 위에는 향, 과자, 연미, 술, 음료수, 술잔으로 간단히 제물을 차렸으며, 절을 하고 나서 술잔에 과자, 연미 등을 조금씩 뜯어서 잡식을 하여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집으로 옮겨서 똑 같이 간단하게 제를 지냈으며 장지로 향하였다.

⑩ 개광(開壙): 성읍리 동검은이에 있는 표선면 공동묘지에서는 장의업체 인부 4명이 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다. 개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미리 방향을 확인하여 줄을 쳐 놓고, 그 줄을 기준으로 좌우로 관이 들어갈 자리를 관 길이와 폭에 맞게 땅을 파 놓았다. 관이 들어갈 자리인 광중(壙中)은 관이 놓이는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제들에게 방향을 확인시켰다. 만상제가 관이 놓일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상제는 석관을 주문하였으며, 광중을 판 다음에 사면(四面)에 석관을 짜 맞춰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곡괭이를 걸쳐 놓았다.



(사진17) 석관을 짜 맞추어 넣고 있다.



(사진18) 하관제는 삼헌 삼작 제법으로 지냈다.

장지에는 친척 및 이웃, 친목 모임 등 15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장례업체 일꾼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참석한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지는 않았다. 봉

분을 쌓을 때 친척 중에 젊은 사람들이 흙과 떼(잔디)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는 것 뿐이었다. 망자의 손자들이 장지에 온 사람들에게 담배, 커피, 음료수, 면장갑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예전부터 있어 온 필역의 풍습이다.

⑪ 하관: 하관(下棺)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였다. 10시30분에 하관제를 지냈다. 하관제는 발인제와 마찬가지로 형식이다. 운구차의 상여 보관실 문을 열고 바닥에 돛자리를 펴서 재물을 진설한 다음에 상제들이 절을 하였으며, 별도의 축문은 없었다. 하관을 하기 위하여 영구차로 묘지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에 관을 꺼내어 광중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운반하였다. 영정사진을 든 며느리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상제들, 그리고 친척 중에 젊은 사람들이 관을 운반하였다.

관이 도착하여 장례업체 직원들이 관을 받아 임시로 걸쳐 놓은 곡괭이 위에 놓고, 관을 덮은 명정과 혼을 불렀던 흘적삼, 삼배, 동심절, 운삽, 아삽을 건어서 상제에게 주었으며, 상제는 그것을 쟁반에 올려놓았다. 관을 덮었던 관보를 벗겨 내고, 광목을 이용하여 광중 안에 관을 안치하고 다시 방향을 확인하는 줄을 쳐서 밑에 놓인 관의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재확인하면서 관의 위치를 바로 잡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향이 맞음을 상제들에게 확인시켰다. 전통적으로 묘터는 자손들의 길흉화복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풍수사상이 있으며, 특히 관이 묻히는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하관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주검이 무덤에 묻히는 시간과 공간을 정밀하게 맞춰야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

흙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상제가 망인에게 인사를 드리는 제를 지냈다. 제사는 만상제 혼자서 간단하게 지내는 것으로 명정과 흘적삼을 올려놓은 쟁반을 앞에 놓고 과일과 고기, 채소로 차린 작은 제상에 술을 올리고 잡식을 하여 광중 오른 쪽 위 구석에 뿌렸다. 그리고 명정과 삽(운삽, 불삽)⁴¹⁾, 동심절을 만상제가 인부에게 주면 인부는 운삽과 검은색 동심절은 왼쪽 위에, 아삽과 노란색 동심절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놓고, 그 위에 명정을 덮었다. 명정을 덮고 나서 그 위에 돌로 만든 개 관을 덮고, 흘적삼을 올리고 나서, 흙을 덮기 시작했다. 상제들이 먼저 삽을 들고 흙을 덮기 시작하여 만상제가 먼저 세 번 흙을 떠서 관 위에 덮었고, 다른 남자 상

41) 운삽은 구름 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상여 앞에서 상여를 인도하여 죽은 사람의 혼을 하늘로 인도해 줄 것을 염원하기 위한 것이다. 불삽은 아(亞)자 모양의 무늬를 그렸다가하여 아삽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넋이 귀인의 보호 아래 무사하게 명부(冥府)에 인도되기를 염원(念願)하기 위한 것이다.

제들, 여자 상제들이 한 삽씩 흙을 덮었다.

⑫ 봉분 쌓기: 봉분을 쌓기 위한 흙을 진토(塵土)라고 한다. 흙은 장례업체에서 4.5톤 트럭을 싣고 와서 쌓아 냈다. 인부들이 봉분을 쌓기 위하여 흙을 운반해 달라고 하여 젊은 사람들이 운반하기 시작하였고, 인부들은 봉분을 만들기 시작하여 미리 규격을 정하여 놓고 어느 정도 흙이 쌓이면 떼(잔디)를 붙이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봉분을 높혀 갔다. 밑 부분에 입히는 떼가 높아지면서 다시 흙을 쌓기 시작하여 봉분이 완성되어 나갔다.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였으나, 지금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하고 있어서 봉분 쌓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약 1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봉분 쌓기가 끝났다. 봉분을 보기 좋게 쌓는 것과 떼를 잘 입히는 것은 장례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상제들은 봉분이 잘 쌓인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⑬ 토신제: 봉분이 완성되고 나면 바로 옆에서 토신제를 지냈다. 토신제는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고인의 유택을 마련하게 되어 토지신께 아뢰고 보호를 의뢰하는 일종의 신고 행위이다. 토신제는 상주들이 지내지 않고 별도의 제관이 지내는데, 제관은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며, 축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토지신위라고 종이에 쓴 지방을 나뭇가지에 꽂아서 세우고 돛자리에 간단하게 제물을 차렸다. 제물은 밥과 국, 과일(사과,배,귤 각 1개),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각 1꼬지), 생선(옥돔 구운 것 하나), 떡과 빵, 채소(콩나물, 고사리, 무 조금), 술 한잔, 향, 사이다, 소주 등이다. 제관이 사이다를 따른 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하고 나면 집사가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반찬위에 걸쳐 놓는다. 그리고 제관이 축문을 읽 읽고 나서 제관이 절을 두 번 하면, 집사가 잡식을 했다. 잡식은 모든 제물을 각각 조금씩 세 번 뜯어서 한 그릇에 모으는 것이며, 이를 무덤 머리에 버렸다. 그리고 축문을 불사르는 것으로 토신제는 끝이 났다.

토신제 축문 : 維歲次 戊子年 六月 甲辰朔 二十八日 獻官 〇〇〇(제관 이름)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孺人 濟州梁氏 苗松
營建宅兆 窆茲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 脯醢祇薦 于神 尙饗
유세차 무자년 육월 갑진삭 이십팔일 헌관 〇〇〇(제관 이름)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유인 제주양씨 묘송

영건택조 펴자유택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해지천 우신 상향
이제 무자년 유월 갑진삭 이십팔일에 현관 000이 감히 토지 신께 고합니다.
오늘 이곳에 유인 제주 양씨의 묘소를 조성하오니
신께서는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길 바라
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해(말린 고기, 젓갈)를 차려 신께 드리오니 흠향하시
기 바라옵니다.

⑭ 초우제: 토신제가 끝나고 무덤 앞에 제절을 다 만들고 나서 초우제를 지냈다. 우제(虞祭)를 행하는 이유는 백(魄)이 땅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혼(魂)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한다고 생각하여 혼을 불러 초우, 재우, 삼우 세 번 제사를 지내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다. 유교 상례에는 장례 당일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 초우제를 지낸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장례 당일 봉분을 쌓고 나서 묘소 앞에서 초우제를 지내고 있다. 이는 장례 당일 저녁에 귀양풀이를 해야 하므로 초우제를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다. 무속을 배척하는 유교의 입장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지만 제주도 상례에서는 충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장례 절차는 모두 끝이 났으며, 공동묘지에 있는 식당으로 옮겨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만 있으며, 음식들은 모두 미리 준비를 해 왔다.

⑮ 귀양풀이: 귀양풀이는 장지에서 영정사진을 모시고 돌아오고 나서 제상을 모두 차리고 준비를 하여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7시에 끝났다. (귀양풀이에 대한 설명은 40쪽 참조)

2) 표선리 박원종씨 사례

표선리에 거주하는 박원종씨(1955년생)의 부친은 87세의 나이로 2007년 12월 18일 17시경에 돌아가셨다. 박씨는 입도 6대째로서 표선리에서 태어났으며 1남2녀 중 장남으로 부인과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층집에서 1층은 박씨 부부가 살고, 2층에 부친과 아들이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이 할아버지를 업고서 1층 안방으로 옮겼다.

표선리에 있는 정시를 찾아가서 택일을 하였는데, 5일장이 나왔다. 택일은 장례를 치르기 좋은 날, 박씨와 부인,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날을 골라서 정시가 정하는데, 5일장이 나와서 박씨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입관은 음력 11월 11일(12월 20일) 신시(申時)에 하는데 임자생(壬子生 36세), 신유생(辛酉生 27세), 경오생(庚午生 18세)은 입관하는 것을 보면 안된다고 되었다. 발인은 음력 11월 13일(12월 22일) 아침 7시이며, 하관은 오전 10시에 하는데, 병신생(丙申生 52세), 임인생(壬寅生 46세), 을유생(乙酉生 39세)은 하관(下棺)하는 것을 보면 안된다고 되었다.

본 사례는 장례 당일인 2007년 12월 23일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① 출상: 장례일 아침 7시 넘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8시경 상을 치우고 운구(運柩)할 준비를 하였다. 출상(出喪)은 마루 쪽 문이 아니라 창문으로 나갔다. '상방' 즉 마루는 문전신(門前神)이 있는 곳으로 비린 송장이 나가면서 문전신에게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나갔다. 출상하자마자 박씨의 친척 아주머니가 관이 놓였던 방에 함지박을 던져서 깨뜨리고 콩을 뿌렸다. 함지박을 깨뜨리고 콩을 뿌리는 이유는 부정을 물리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② 발인: 집 앞 울레에 손님을 받기 위하여 설치 해 놓은 천막으로 관(棺)을 옮기고 발인제를 지냈다. 발인제를 지내고 나서 운구(運柩)를 시작할 때 초혼할 때

사용했던 저고리와 동심결 등을 담은 보자기(혼백상)를 며느리가 어깨에 빗겨 매고 영정사진을 들었으며, 아들 손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누웠다. 땅바닥에 엎드려 누운 손자 몸 위로 관(棺)이 지나갔으며, 이 때 친척 할머니가 아들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잘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장의차에 옮겨서 출발하여 장지로 가는 도중에 친척 집 앞에서 잠깐 멈추고 노제를 지냈다. 노제는 과자와 술을 놓은 작은 상을 차리고 돛자리를 펴서 술을 올리고 잡식을 하는 순서로 간단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문중묘지로 이동하였다. 문중묘지는 성산읍 중산간 지역에 있는데, 앞이 훤히 트여서 멀리 성산포 일출봉이 보이고, 뒤로는 오름들이 둘러싸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임을 알 수 있었다. 문중묘지는 입도조부터 모셨는데, 약 30여기의 무덤이 있다. 한 쪽 구석에 있는 입도조의 무덤에 가서 간단하게 제를 올렸다.

③ 개광: 장의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다. 방향을 잡고 나서 나무 말뚝을 박아서 흰 줄로 연결해 놓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는데, 관이 들어갈 크기에 맞춰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만들었다. 박씨는 미리 비석을 준비하였다.



(사진21) 관 안으로 나무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명당토와 비석.



(사진22) 개광을 할 때는 먼저 줄을 놓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며,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④ 하관계: 장지(葬地)에는 천막을 쳐서 망자를 안에 모시고 병풍을 가린 다음에 작은 상에 영정 사진을 놓고, 돛자리를 깔아서 제물을 진설하였다. 며느리가

갖고 온 혼백상은 별도로 영정 사진 밑에 놓았다.



(사진23) 토신제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고 있다.



(사진24) 천막 안에서 하관제를 지냈다.

입도조 묘에 별도로 제사를 올리고, 토신제(土神祭)를 지냈으며 10시에 하관(下棺)제를 지냈다. 하관제를 지내고 나서 천막에서 관을 운구하였는데, 딸이 초혼을 부른 옷을 담은 보자기(혼백상)을 어깨에 빗겨 매고 앞장을 섰으며, 그 뒤로 명정과 관이 뒤따랐다.



(사진25) 하관제를 지내고 운구하는 장면.



(사진26) 하관하고 망인의 혼을 부른 옷을 관위에 놓고 묻는 장면.

⑤ 봉분 쌓기: 박씨와 아내는 둘 다 병신생(丙申生)으로 하관을 보지 말라고 하여 하관할 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봉분을 쌓기 시작할 때 돌아왔다. 장례업체 일꾼들이 미리 광(壙)을 파 놓았으며, 잡초뿌리, 나무뿌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고령토를 뿌렸다. 하관 순서는 관을 내려놓고 그 위에 보자기에 싸 온 망인의 옷을



(사진27) 마지막 인사인 하직배를 올리는 장면.



(사진28) 봉분을 쌓고 떼를 입히는 장면.

올려놓았으며, 신발과 지팡이를 관 옆에 놓았다. 그리고 개판 널을 잘 맞춰 덮은 후 얼굴 쪽의 개판 한 개를 들어내고 상제와 친척들이 ‘하직배’를 올렸다. 하지만 박씨와 며느리는 하판을 보지 말라고 하여 하직배를 올리지 못하였다. 개판을 덮고 어느 정도 흙을 채우고 나서 상제와 친척들이 삼으로 한 삼씩 떠서 넣었다. 봉분을 쌓는 작업은 40여분 걸렸으며 옆의 묘와 봉분 크기와 높이를 수정하여 맞추고 비석을 세웠다.

⑥ 초우제: 봉분이 완성되고 나서 바로 초우제를 지냈다.

⑦ 귀양풀이: 집에 돌아와서 귀양풀이 준비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6시 경에 끝났다. 여자 심방과 소미 2명이 왔으며, 약기는 징과 북만 갖고 왔다. 장례가 잘 치러졌는지를 산판점을 치면서 확인하였는데, 봉분이 머리는 잘되었으나 어깨 부분이 처졌으므로 내일 가서 흙을 조금 더 덮어두라고 심방이 말하였다. 또한 ‘영개울림’⁴²⁾으로 “일 년 더 살면서 손자가 장가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에 자기에겐 잘 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평소에 이층에서 지내다가 운명할 때 아래층에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손자가 업어서 옮겼는데, 이 때 숨이 끊어질 때 차사가 찾아왔으며, 망인을 함부로 옮겼다고 차사가 화가 났다고 한다. 그리고 심방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계속 그 화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42) 영개는 영혼(靈魂)이며, 울림이란 ‘울음’이란 뜻으로 ‘영개울림’은 ‘영혼의 울음’이란 말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심방의 몸을 빌어서 말을 한다는 것으로 무혼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였다. 하지만 질치기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잘 되었다고 했다.



⑧ 우제와 삭망제: 박씨는 날을 지켜서 재우제와 삼우제를 지냈으며, 또한 일년상을 하기로 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삭망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삭망제 준비는 박씨와 박씨의 부인이 직접 하고 있으며, 가까운 친척들이 참석하여 지내고 있다.

3) 사례 분석

표선리의 금촌칠씨와 박원종씨 사례를 <표1>의 1960년~1970년대의 사례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초혼을 하는 시기, 개떡, 충호법, 12매듭 풀기와 같은 것들은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으나 그 외의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던 것들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촌칠씨의 경우 장례를 치르는 시기가 여름이어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안에 관을 놓지 않고 공동묘지에 있는 냉동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면이다. 입관한 시신을 냉동실에 옮겨 놓은 다음에 집에 따로 혼백상을 차려서 문상객들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현재 제주도내 농촌마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반면에 박원종 씨는 이층에서 지내던 부친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서둘러서 아래층 안방으로 모셨다. 돌아가신 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관습을 지키는 현상이다. 두 가

지 사례 모두 집에서 장례를 치렀으며, 집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나타나고 있다.

장례 절차는 유교 의례를 따르고 있다. 금촌칠씨의 경우 향교에 다니면서 유학에 대하여 학습하고, 표선리 마을 포제에서도 헌관으로 제의를 집행할 정도로 전통 제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 그래서 성복, 일포, 발인, 하관 등 중요한 절차마다 형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례를 치렀다. 하지만 초혼 의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초혼은 입관하기 직전에 하였는데, 초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울음을 터트리지 못하도록 단속하였으며, 초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제들이 곡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에 전승되어 온 개떡, 입관 및 하관을 보지 못하는 때, 봉분을 다 쌓고 나서 초우제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귀양풀이를 지내는 것 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유교의례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간과 무속의 의례도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금촌칠씨의 사례를 통하여 유교의례와 함께 전통적으로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풍습과 속신이 현대의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풍수사상은 대단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이 안치될 방향과 하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공동묘지를 이용함에 따른 풍수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10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토산공동묘지에 모셨다고 한다. 그 때에는 토산공동묘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믿던 시기였다. 그래서 표선리에도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상여로 운상하여 약 10km 이상 떨어진 토산공동묘지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풍수를 따지지 않고 표선면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례의 주요 절차는 유교 의례를 거행하는 것이지만, 시신을 잘 모셔서 후손들에게 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내 왔던 속신에 따른 행위들이 지속되었다. 박원중씨의 사례를 보면 발인하여 관을 이동시킬 때 손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위로 관이 지나가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기복신앙의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발인하여 나갈 때 관이 놓여 있었던 방 안에 그릇을 깨뜨리고, 팔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신’이 있었던 장소는 ‘부정탄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장지에서 하관과 평토를 하고 나서 마지막 하직배를 올리면서 명정과 훌적삼을 만상제가 건네주는 것, 토신제를 하고 나서 잡식한 것을 무덤 네 귀퉁이에 묻는 것, 관 위

에 동심절, 삼, 홀적삼 등을 올려놓고 같이 묻는 것 등도 부정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금촌칠씨의 경우 무속의례인 '문전칠같이'를 해마다 해 왔으며, 금촌칠씨의 부인은 표향리 본향당에 기일마다 제를 지내러 다니기도 했다.⁴³⁾ 또한 금촌칠씨는 유교 제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만 무속신앙과 무속의례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녀들과 가족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유교와 무속을 서로 배타적인 종교로 인식하지 않고 현세기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상례를 치르면서도 죽은 영혼과 함께 상제들을 위한 의례와 기원에 비중을 두고 전통적인 방식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의례와 관습을 유지하고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액을 막겠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탈상 기일에 대하여는 박원종씨는 일년상을 치르기로 하여 초하루날과 보름날에 삭망제를 하고 있으며, 금촌칠씨는 증손녀의 결혼 때문에 백일 탈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상례에 포함된 무속의례

제주도의 상례에는 무속의례인 귀양풀이, 시왕맞이가 같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뿌리깊은 무속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유교 의례를 수용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무속을 배척하여 유교가 지배종교와 문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온 무속문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민간에 뿌리를 깊게 내린 무속은 지배 종교가 변화하였어도 지속되어 왔으며, 현대에도 그 문화와 의례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도 무속의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은 유교 의례만 가지고는 상례를 치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유교 의례로 상례를 치르지만 영혼을 위한 의례가 유교에는 없기 때문에 무속의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43) "본향당은 사람이 아프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여 가서 비는 곳이우다. 포제는 옛날부터 이 지역을 위한 제사인데, 땅을 매어서 이녁 사는 고향을 좋게 해달라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본향당이란 자식이나 부모가 아프면 가서 비넘하는 곳이다." 금촌칠씨 설명

상례는 의례주체에 따라 ‘망자의 시신을 위한 의례’, ‘상주를 위한 의례’, ‘영혼을 위한 의례’로 구별할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 상례 절차는 ‘임중-염습-초혼-입관-성복제-일포제-발인-하관제-성분-초우제-귀양풀이-재우제-삼우제-삭망제-졸곡제-소상-대상-시왕맞이-담제’ 순서로 치러져 왔다. 이 중에서 염습, 입관, 하관, 성분 등은 시신처리를 위한 의례이다. 시신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에 따라 자손들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이 있으며, 시종일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진다. 그 이외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성복제, 일포제, 초우제 등이다. 이러한 의례들은 모두 상제를 위한 의례이다. 성복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상중(喪中)에 들어가게 되며, 소상 또는 대상 이전까지 탈상을 하기 전에는 대, 내외적으로 상례를 치르는 단계에 머무른다. 그리고 소상 또는 대상으로 탈상을 하고난 이후에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상례는 망자를 위한 의례이지만 실제로 상례를 치르는 것은 상제들이기 때문에 상제를 위한 의례들이 병행되고 있다. 망인은 주체가 아니라 상례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나머지 주요 절차는 상제를 위한 의례들로 구성되게 된다. 상제들 입장에서 시신에 대한 원활한 처리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상례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의례와 상주를 위한 의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반면에 영혼을 위한 의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된다.

유교 상례에서는 영혼을 신주에 모셔서 사당에 안치시키는 절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속의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제주도의 상례에는 무속의례인 귀양풀이가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혼과 저승에 대한 관념이 유교가 아니라 무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식으로는 유교 의례를 따르지만 내면에는 무속적 사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무속에서 영혼은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로움을 가져오는 존재이기도 하다. 영혼은 삼혼(三魂)으로 존재하여 저승에도 가고 묘에도 머물고 있으며, 또한 집안에도 있다고 믿는다. 특히 원한이 있는 죽음이나, 정상적이 아닌 죽음의 경우 저승에 가지를 못하고 이승에서 해매면서 가까운 친척에게 재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혼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의례가 중요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귀양풀이와 같은 무속의례가 그 역할을 충족

시키고 있다. 상제들은 귀양풀이를 통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이승에 대한 한을 풀고 저승으로 무사히 가기를 기원한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상제들에게 아무런 해로움이 없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양풀이와 같은 무속의례는 영혼을 위한 의례이기도 하지만 상제들을 위한 의례이기도 하다.

1) 무속 의례의 종류

(1) 귀양풀이

귀양풀이는 무덤을 만들고 나서 초우제를 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심방을 불러와서 하는 무속의례이며, 시왕맞이는 대상 후 사자(死者)가 저승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 귀양풀이는 예전에는 거의 모든 집마다 해왔으며,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왕맞이는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귀양풀이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이라고 간주하고 매장한 날 밤 심방을 불러서 죽은 이의 심정을 듣고 부정을 풀어내는 것이며,⁴⁴⁾ 또 하나는 차사를 불러서 영혼이 저승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귀양풀이에서 ‘귀양’의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있지만 차사본풀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차사본풀이에 의하면 염라대왕이 소 아홉 마리와 일곱 총각을 불러 와서 버물왕 아들 삼형제를 죽인 과양생이 처를 처단한다. 그러자 소 아홉 마리와 일곱 총각이 자기들도 사람을 죽였다고 하소연하자 염라대왕은 너희들은 ‘귀양’이 되어서 귀양풀이를 받아먹으라고 한다.

“너네들 일곱 총각놈이랑 일곱 신앙으로 들어서고, 소 아홉이랑 아홉 귀양으로 들어서라”⁴⁵⁾

“염라대왕이 과양생이 처를 죽이기 위하여 천방지축 마골피를 불렀다.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에 매달아서 과양생이 처를 사지를 찢어 죽인다. 천방지축 마골피들은 사람 죽으면 귀양풀이 제를 지낼 때 사자상(使者床) 아래에서 상을 받으라”⁴⁶⁾

44) 현용준, 앞의 글, 364쪽

45)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205쪽,

46)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 1994, 141쪽~142쪽에서 재구성.

“염라대왕이 올라사젠 혼난 일곱생인 아홉장남들 오란 아이구 염내왕님아 우신 사람 죽여났젠 어디가민 부찌주지도 안 흐곡 이 노릇 어떻흐민 줍네겐 혼난 너네랑 경허건 사름 죽어낭 귀양 널 때랑(‘귀양풀이’하여 망자를 보낼 때랑) 사자상(使者床) 알로 일곱 신앙 아홉 구양으로 들어상 상받기도 마련하라. 법지법 마련해...”⁴⁷⁾

이러한 차사본풀이 내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귀양’은 ‘일곱 신앙 아홉 귀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귀양풀이에서 핵심은 ‘영개울림’이다. ‘영개울림’으로 죽은 자의 심정을 들어 위로하고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영개는 영혼(靈魂)이며, 울림이란 ‘울음’이란 뜻으로 ‘영개울림’은 ‘영혼의 울음’이란 말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심방의 몸을 빌어서 말을 한다는 것으로 무혼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교식 상례에서는 영혼의 말을 듣는 절차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심방을 통한 무혼의례가 상례에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교의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위한 의례가 장례일 밤에 한번 하고, 대상(大祥) 후에 또 다시 하는 것은 무속에서의 타계관과 영혼관에 따른 것이다. 장례 당일 밤에 하는 귀양풀이⁴⁸⁾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사자에게 잡혀 육체로부터 이탈하고 저승으로 향해갈 때 하는 것이며, 시왕맞이는 저승에 도착한 사령에 대한 무속의례이다.⁴⁹⁾ 제차의 구성은 초감제를 하여 여러 신령을 청해 들여 기원하고, 사자(死者)를 불러들여 영개울림을 한 후, 사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행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청해 들인 여러 신들을 돌려보내는 순서로 되어 있다.⁵⁰⁾

귀양풀이는 망자의 영혼과 상주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의례이다. ‘영개울림’을 통하여 상주들은 망자의 영혼이 모든 원한을 풀고서 저승길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영혼을 탈 없이 저승으로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상중(喪中)이라는 슬픔과 혼동, 고통의 상태에서 새로운 조화와 평온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귀양풀이의 의례 주체는 심방이다. 심방이 의례를 집행하며, 망자의 영혼과 상주는

47)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280쪽~281쪽.

48) 귀양풀이처럼 장례 당일에 하는 무속의례를 서울, 경기지역의 ‘자리걷이’ 혹은 ‘집가심’ 또는 ‘방가심’이라 하며, 본격적인 굿의 형태로 하는 전라도의 ‘곽머리씻김’, ‘진씻김’도 같은 범주의 의례이다.

49) 죽은 지 일년 이상 지나서 시행하는 의례로는 서울, 경기지역의 진오귀굿, 평안도의 다리굿, 함경도의 망무기굿, 경상도의 오구굿, 동해안의 수망굿 그리고 전라도의 씻김굿이 있다. 진오귀굿은 다시 매장 직후부터 한 달 이내에 하는 진진오귀와 대상(大祥) 무렵 혹은 그 후에 날을 받아서 하는 마른 진오귀 또는 평진오귀로 나뉜다. 씻김굿도 진씻김과 마른 씻김이 있다.

50)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385쪽~386쪽.

심방을 통하여 소통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유교 상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영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무속과 다르며⁵¹⁾, 영혼과 상주를 만나게 하는 존재(심방)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주들은 죽음으로 인해 생긴 ‘부정’을 귀양풀이를 통하여 물리치게 된다. 죽음을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이 가져다 준 직접적인 슬픔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떠한 액운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귀양풀이가 하고 있다.

(2) 시왕맞이

시왕맞이는 대상 전후로 하는 무속의례이다. 유교의 삼년상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유교의 의례 주기와 맞춘 것이라 생각된다. 즉, 유교의 삼년상을 받아들이면서 무속에서도 삼년 동안 저승길을 가며, 탈상할 시기에 맞춰서 저승 문으로 들어서서 타계로 접어든다는 시기를 맞췄을 개연성이 있다. 시왕맞이는 탈상할 때 하는 무속의례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다. 귀양풀이와 같이 ‘영개올림’은 동일하나 저승 열두대문으로 들어가는 의례가 추가되어 있으며, 남아있는 자손들을 위한 액막이를 하는 등, 상제를 위한 의례에 더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왕맞이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탈상시기의 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삼년상을 마치고 탈상의례를 하면서 시왕맞이를 해 왔는데, 삼년상의 전통이 사라지고, 일년상, 백일탈상, 49재, 당일 탈상으로 급격하게 단축되면서 시왕맞이가 사라지고 있다. 농촌사회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왕맞이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귀양풀이는 아직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례로 치러지고 있다.

(3) 토신제

토신제는 토지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사례편람』에도 토신제를 지내는 절차가 있으며, 장례에서 필수적인 의례로서 그 의미는 망자의 시신이 땅에 묻혀도 되느냐고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토신제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땅에 묻혔어도 자기의 집을 갖지 못하여 다른 무덤에 가서 얹혀산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지내고 있

51) 유교에서는 영혼은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무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확실하며 이러한 생각은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내려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다. 육지의 경우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면서 개토제(開土祭)를 하고, 관을 묻고 나서 지면이 평평해지면 평토제(平土祭)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들을 하지 않고 토신제만 지내고 있다.

표선면 하천리에서는 토신제를 장례 당일 하지 않고 별도로 택일하여 약 3개월 뒤에 한다. 별도로 택일하는 토신제를 지내는 이유는 장례를 치르는 기간 중에는 모두가 부정할 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택일은 만상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날을 보며 제를 지내는 시간도 새벽녘에 정해진 시간에 따른다. 하천리는 상동, 중동, 하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관은 동네별로 정해져 있으며, 제를 지낼 때는 부정하지 않도록 한다. 제관과 만상제 한명만 참여하고, 제관은 사모관대를 하고 유교식으로 제를 지내고 축문을 읽는다.

토신제의 제물은 밥과 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히지 않은 '날 것'으로 준비한다. 제물은 밥, 떡, 고기류(생선 3마리, 오분자기 3개, 삶지 않은 수탉, 고래고기, 명태 등), 야채류(미나리, 부추, 고사리, 무, 콩나물 등), 과일류(비자열매는 반드시 들어가며 이외에 사과, 배, 귤 등 계절 과일을 쓴다.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술(생감주, 청주), 향을 준비한다. 제물은 모두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준비하는데, 야채류도 간단하게 소금으로 간을 할 뿐 익히지 않는다. 밥도 그냥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불린 생쌀을 밥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이것을 그릇 채 술에 넣어 익히는 방법으로 하며, 그릇 채 한 밥이 수북이 올라와 보기 좋게 되면 좋은 징조라고 한다. 토신제를 지내는데 사용된 제물은 땅을 파서 묻거나 버린다. 제물을 집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토지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모두 '날 것'으로 준비하는 것은 민간에서 고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따른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다른 제사 제물과 유사하게 차리기도 하나, 날 것으로 준비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습이라 하겠다. 제관을 선정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식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제의 형식에서 변화를 수용한 것이나, 제물을 차리는 방식은 유교문화가 제주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풍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귀양풀이 사례

귀양풀이는 예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무혼의례였으며, 지금도 농촌마을에서는 상례를 치르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속의례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전통상례가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귀양풀이도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심방들이 귀양풀이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보살들이 농촌마을에 단골을 확보하여 귀양풀이를 하기도 한다. 표선면 하천리의 경우 당을 메고 있던 심방이 죽고 난 이후에 이웃 마을인 신평리의 심방이 하천리까지 단골을 만들었으나, 고령으로 인하여 제대로 단골들을 돌봐주지 못하자 제주시의 영신보살이 진출하여 문전코시와 귀양풀이를 해주고 있다. 심방이 하고 있는 귀양풀이와 보살이 하는 귀양풀이는 형식이 다르며, 또한 심방과 보살마다 순서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제주도의 귀양풀이에 대하여 총체적인 검토를 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2008년 7월 30일 표선리 금촌칠씨 댁에서 행해졌던 귀양풀이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귀양풀이는 14시부터 19시까지 했는데 마치순 심방이 주재하였으며, 소미로는 강금춘 심방과 000씨가 같이 했다.

① 상차림 :

- 차사상 : 차사를 청해 들어 모시는 제상으로 제일 많은 제물을 차린다.
- 영개상 : 이미 방안에 모셔 있는 사령(死靈)의 제상이다.



- 사자상 : 저승 사자를 맞이하는 상이다.
- 문전상 : 문신(門神)의 제상이다.
- 공깃상 : 무조신(巫祖神)의 제상이다. 차사상 앞에 작은 상을 놓고 쌀, 떡, 과일, 술을 올리고 신칼, 산판 등 무구를 올려놓는다.

(사진33) 사자상 차림	(사진34) 공깃상 차림

② 제차와 내용

1. 초감제

1-1. 공선가선

1-2. 날과 국 섬김 :

장구 장단에 맞춰서 굿하는 시간과 장소를 읊음

1-3. 집안연유 닦음 :

열명지에 쓰여 있는 이름과 나이를 말하며 “받은 공스”가 있다고 함. 굿을 하게 된 배경을 말함. 영평 유월 스무나흘날 아침에 양씨가 100살에 죽었는데 “귀양내영 질 치영 줌센”해서 “스제상을 놓고, 처서상을 놓고, 귀양신양상, 영개상을 놓고 굿을 하고 있다”고 함.

1-4. 분부사름 :

죽은 영혼이 이승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불만, 섭섭한 일들을 모두 풀고 가고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고를 막아달라고 비님을 함.

1-5. 신청께 :

신들을 청함. 청하는 순서는 옥황상제 - 산신대왕을 비롯한 각종 대왕 - 십오대왕 - 차사 - 사자 - 본향 - 문전신 - 몸주신 - 가신(안칠성, 조왕) 및 기타 신, 군졸 등임. 마치순 심방 혼자서 장구를 치면서 앉아서 함. 이후 쉬는 시간을 가짐.

1-6. 새드림 :

소미 혼자 왼손에는 물그릇을, 오른손에는 감상기를 들고서 서서 부정을 물리치는 사설을 읊음. “일곱신앙 아홉귀양...이 물은 먹고 청한 물입니다...오리밖에 부정 가입니다. 십리 밖에 부정, 제청 밖 부정 가입니다. 제물이여, 제상에 부정 가입니다. 본주 대감 앞장에 부정 가이고, 신의 성방 앞장에 부정 가여드립니다, 천황 부정, 지황 부정, 인황 부정 가여 드리며, 존경네 놀빚네여 한설네 반설네여 부정 서정이라 안으로 뱃깃드레 들이 카이고...”, 사설을 하고 반주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춤을 춤. 강금춘 심방은 북을 치고, 마치순 심방은 징을 칩.

이후 본주(큰머느리, 둘째머느리)를 앞히고 소미가 뒤에 서서 왼손에는 신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요령을 흔들며 새드림 노래를 함(북 반주). 새드림 노래가 끝나면 반주와 함께 신칼로 점을 칩.

점을 치고 나서 요령은 놔두고 양손에 신칼을 하나씩 들고 푸다시를 함. 신칼치매를 잡고 본주 뒤에 서서 치매로 본주들의 몸을 앞 뒤로 가볍게 치는 것을 반복함. 푸다시가 끝나면 다시 신칼점을 칩. 점을 치고 나서 물그릇을 들고 물을 한모금 물었다가 본주 머리 위로 내 뿜음.

1-7. 군문열림 :

신을 청하는 도래상을 현관문 쪽에 내놓고 마치순 심방이 일어서서 신칼, 요령, 감상기 등을 들고서 군문열기를 함. “...생불환생문이어, 삼처서 오시는 문, 아홉귀양 일곱신앙, 삼신앙 오시는 문이어...초군문, 이군문, 삼시도 군문 돌아보자”고 하면서 북과 징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고 신칼점을 칩.

이후 빠른 반주에 맞춰서 “삼처서문도 열려줍서, 귀양시앙문도 열려줍서, 저승 십이지원문도 열려줍서...”하면서 산판점을 칩. 산판점을 치면서 백지를 마당으로 던지고, 다시 산판점을 치는 것을 반복함.

점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본주들에게 “무엇무엇을...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처서문도 열려줍서,...삼처서문도 열려줍서, 아홉귀양 일곱신앙문도 열려줍서, 저승 십이지원문도 열려줍서, 불쌍한 제주 양씨 영혼 영신 오시는 문도 열려줍서...” 하면서 각각 산판점을 칩. 각각의 문이 잘 열렸는지를 산판점으로 확인함. 소미는 도래상에 올린 술잔을 비움.

이후 사설을 하다가 “...오리정 신청궤로 신매와 올립네다”하고 반주가 울리면 공깃상에 올려져 있는 쌀을 들고 신칼로 쌀을 떠서 마당과 제상으로 번갈아서 수차례 뿌림. 앉아서 쌀점을 치고 그것을 본주에게 줌. 소미는 도래상을 방안으로 들이고 향로를 들어서 두어바퀴 돌림.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움.

심방은 떨어진 신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신도 오는 듯 하옵네다...처서 뒤에 군졸이어...본향에 신당에...떨어진 군졸없이 신질로 노립서”라고 하면서 칭함.

1-8. 방광침(산반음) :

소림부터 시작하여 봉분을 만들 때까지 각각의 장례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영혼이 섭섭한 것이 있었는지를 산판점으로 각각 확인함. 산판점

을 하면서, “임종하는 것을 못 본 자식이 있다. 딸이 임종할 때 없어서 섭섭하다”, “다 풀렁갑서”, 성복, 입관, 일포, 동관, 하관, 개광, 하관, 개관, 봉분, 용미, 제절 등에 원이 없습니까라고 묻고 “다 풀렁갑서”라고 함.

상주에게 탈상을 언제 할 것인지 물어보고 일년상을 할 것이라고 하자, 영혼에게 일년상을 해도 괜찮은지 섭섭하지 않은지, 풀렁가라고 산관점으로 확인함. “원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원이 없다”고 함.

영명지를 앞에 놓고 상주들을 비롯하여 손자, 며느리, 딸, 각각에게 원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산관점을 쳐서 확인함.

상제들을 불러 모아서 말을 들으라고 함. “올해 9월, 10월이 안 좋다고... 처서액 잘 막으라... 며느리들이라도 본향에 보내라... 초군문 열 때 백마강 얼음질이라...어디서 초혼 소리 날 것 같다...명심하라... 선한 처서가 왔다... 자손들 다 못보고 아들도 다 못봐서 원이 있다”등의 말을 함.

1-9. 영개울림 :

영혼이 심방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함. “큰 아들, 며느리야 너희들도 80이 넘었다. 큰 며느리야 형제간 많은 집안에 와서 고생했다. 너도 이제 며느리들 보고, 손주 보아시니 나 심정 알 거 아니냐, 손주 며느리 고생했다... 귀양풀이 해줘서 원이 없다, 저승질로 강 도와주마, 아들이 며느리야 너 섭섭한 거 다 풀려주고, 나 섭섭한 거 풀려주고, 셋아들 며느리야 애기들 키우젠 허난 고생했져, 설운 애기들아 너희들도 나이가 80넘고 70넘고 오래오래 살라, 형제간 배기 중요헌거 없다. 나 성질 때문에 큰며느리 고생했다. 며느리들이 귀양질치영 닦아주고 해서 고맙다...”등의 이야기를 함.

1-10. 질치기 :

소미가 두꺼운 종이상자를 펴서 바닥에 깔고 대나무 가지로 열두 문을 만들고 문마다 문지기를 상징하는 기메를 달았음. 문전상과 도래상을 방에서 꺼내어 현관문 앞에 놓음. 심방이 “...십이지옥 질 치위담으젠 햄수다... 처서질, 신감상 불러반앙... 영혼영신님 저승질 치위담으젠 햄수다... 신감상 둘러반앙 처서영질로 돌아보져”라고 하면서 시작함.



(사진35) 질치기를 하기 위하여 대나무 가지로 문을 만들고 있다. 대나무에 문지기를 형상하는 기메가 매달려있다.



(사진36) 문전상과 대령상을 현관앞에 놓고 질치기를 하고 있다.

질치기는 길 돌아보기- 언월도로 풀베기 - 작대기로 치우기 - 따비로 파기 - 발로 밟기 - 삼태기로 치우기 - 밀대로 밀기 - 비로 쓸기 - 이슬다리 놓기 - 마른다리 놓기 - 나비다리 놓기 - 처 서영혼다리 놓기(삼베를 뗏가지의 문 밑으로 깔기 시작하여 영신상까지 연결해 놓음) - 울궁기 메우기 - 바둑다리 놓기 - 시루다리 놓기 - 상제들에게 절을 하라고 해서 문전상에 상제들이 절을 함 - 흥마음다리놓기 순서로 진행됨.

1-11. 적패지 매고 차사 부름 :

심방이 “...처서가..신감상 둘러받고 처서감장님에 적패지 타당 사제님 문전 분향에 상고드립니다”, “...처서 행차를 찰리라 합니다”라고 하면서 소미가 도와주어 적패지를 등에 붙여서 처서의 차림을 함. 불쌍한 영혼 영신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비님을 함.

처서질을 돌아보자고 하여 왼손에 향을, 오른손에 감상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12문을 돌아보고 나서 처서를 부름. 처서영신기, 감상기를 들고 마당 쪽으로 나와 술을 한 모금 뿌리고, 처서영신기를 앞 뒤로 흔들며 불러들임.

12문에 인정을 검. 손자며느리들에게 각 문마다 지전을 걸도록 함. 지전을 걸고 나서 큰며느리에게 각 문마다 상제들이 인정을 걸라고 함.

1-12. 혼 부르고 12문 열림 :

심방이 처서영신기와 감상기를 들고 마당쪽을 향해 서서 상주의 본관을 말하고 상제를 비롯하여 손자들을 열명서에 적힌 나이들을 모두 열거하고 나서, “...부모 공 갓젠해영 서천 12지옥 질 치위 다향수다.. 불쌍한 영개 처서 안동행 갈 때 되어수다, 거신기 둘러받앙, 영혼 영신 안동해영 가젠허난 영이 나가고 혼이 나가수다, 어~ 초녇, 이녇, 삼녇, 사녇, 오녇, 육녇, 칠녇 어서옵서~ 영혼영신님도 제주양씨 영혼영신, 어~ 영평 유월 스무나흔날 영개기 둘러받앙, 영개도 혼이 나가수다, 초녇, 이녇, 삼녇 어서옵서, 어~ (홀저고리를 들고) 어~ 영혼영신님 제주양씨 영혼영신님 저승 초혼 읍서, 제주 양씨 영혼 영신 저승 이혼 읍서, 제주 양씨 영혼 영신 저승 삼혼 읍서”⁵²⁾라고 혼을 불러들임. 혼을 불렀던 저고리는 12문 앞에 놓음.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들에게 절을 하라고 함. 소미가 문전상에 차렸던 제물을 각각 조금씩 뜯어내어 그릇에 담고 나서 문전상을 치우라고 함.

소미가 도래상을 12문 옆으로 옮기고, 혼 불렀던 저고리를 12문 앞에 놓음. 심방이 “사나 사나” 노래를 부르며 12문을 열기 시작함. 상제가 12문 앞에 앉아서 인정을 걸면 심방은 각 문을 지키는 12대왕을 차례로 말하며 “애기들 인정걸업수다, 누구 누구우다, 인정받앙 들어가게 해줍서”라고 하면서 신칼점을 치고 신칼날이 한쪽을 향한 ‘즈부연드리’가 되면 ‘열려맞자’ 하는 소리와 함께 징을 울리면 그 문을 떼어 내고 다음 문으로 들어가고, 점괘가 나쁘면 몇 번이고 신칼점과 인정 받는 것을 반복함. 소미는 술을 따

52) 초혼은 저승길로 가고 있는 혼이며, 이혼은 무덤을 지키는 혼, 삼혼은 집 안에서 삭망, 삭제를 지켜보는 혼이라고 한다.

라서 각 문마다 상제가 술을 올리도록 하고 댓가지로 술을 조금씩 뿌림. 심방은 열명지에 올린 상제들의 나이를 말하며 “인정걸엄수다, 반양갑서, 풀령갑서, 애기들 편안하게 해줍서” 하면서 신칼점을 치는 것을 확인함.

12문을 다 열고 심방은 방안으로 들어가 켓상 앞으로 가서 “...쳐서 영개질 치위닥야 올려수다...관장패도 벗영 올림수다. 팔지거리도 올림수다...쳐서님 난지본산국 풀어 올림수다”라고 하고나서 본주에게 “삼촌 초감제해수다”라고 인사를 함.



(사진37) 저승 12문에 인정을 걸고 있다.



(사진38) 저승 12문을 하나씩 열고 가는 장면.

2. 차사본풀이

차사본풀이는 강금춘 심방이 양손에 각각 북채를 잡고 북을 치면서 하였다.

2-1. 날과 국섬김

2-2. 연유닥음 :

귀양풀이를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함.

2-3. 차사본풀이 :

처음부터 끝까지 북 장단에 맞춰서 쉬지 않고 차사본풀이를 함.

2-4. 산받음 :

열명지를 놓고 각각 상제마다 “막아줍서” 하면서 쌀점을 치고 그 결과를 큰며느리에게 줌. 쳐서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함.

※ 강금춘 심방이 차사본풀이를 하는 동안 마치순 심방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망인이 입었던 의류를 망인이 갖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점을 쳐서 결정한다. 옷들을 하나하나 들고서 신칼점을 쳐서 군문 꽤가 나오면 가져가고 싶은 것이라 하고 불태우라 하고 한다.

3. 액막이

마치순 심방이 켓상 앞에서 서서 오른 손에 요령을 들어 흔들면서 각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소미는 상에 올렸던 소지를 불살라서 마당으로 내 놓는다. 심방이 요령을 흔들면서 비념을 하는 동안 소미들은 제상에

올린 음식들을 치운다.

마루에 작은 상을 차리고 마치순 심방이 그 앞에 앉아서 신칼점을 치면서 ‘사냥갑서’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부름. 상제에게 액막이할 인정을 걸라고 하고, 바구니에 쌀그릇과 소주, 삼잔을 올려 놓고, 열명지를 앞에 놓은 다음에 지전을 걸고 상제들에게도 인정을 걸라고 하면서 각각 신칼점을 친다. 점괘가 나오는 것을 알려준다.

인정 걸기가 끝나면 요령을 흔들면서 열명지에 올린 각각의 나이를 열거하며 액을 막아달라는 액맥이를 함. 액맥이를 하면서 쌀점을 치고, 산판점을 치면서 “잘 막아줍서, 시겨줍서”라고 함. 병환, 사고, 불길한 것 등을 막아달라고 하며, “....등을 명심해야되쿠다”라고 점괘를 말함.

4. 도진

액막이가 끝나면 불러들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며 “도의협서”라고 하면서 돌려보냄. “대별왕, 소별왕, 옥황상제, 산신대왕, 시왕, 열두대왕...아홉귀양...맹두맹감삼처사... 세경, 문전... 영혼영신님... 궂은 것들 모두 거뒀갑서, 오방신장... 몸 받은 조상....” 모두 이름을 부르며 돌려보냈다.

모두 돌려보내고 나서 아홉귀양 일곱신앙 앉았던 곳을 향하여 콩을 뿌리고, 문전 쪽으로도 콩을 뿌림. 또한 물을 입에 물고 방안과 문전 양쪽으로 뿌리고 나서 마당으로 나가며 남은 콩을 뿌리고 곧바로 떠났다.

귀양풀이는 영혼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전부 풀고 저승으로 편안하게 가기를 기원하는 곳이다. 예전의 귀양풀이에는 ‘액맥이’할 때 수탉을 죽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다. 제차에서 주목할 것은 ‘새드림’과 ‘질치기’이다. 새드림은 부정을 물리치는 의례로서 모든 곳에서 빠지지 않는다. 부정이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사람이 죽었던 자리, 가족들, 귀양풀이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새드림은 이러한 부정들을 모두 물리쳐서 정화된 공간을 만들어서 차사와 영혼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의례이다. 특히 새드림을 할 때 본주를 앉히고 푸다시를 하면서 본주에게 묻어있는 부정을 없앤다. 새드림은 부정을 물리치는 의례로서 제장(祭場)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특히 살아있는 본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의례이다.

질치기는 귀양풀이에 추가된 제차이다. 예전의 귀양풀이에는 질치기는 없었다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한다.⁵³⁾ 질치기는 시왕맛이와 용왕맛이와 같은 곳

53) 성읍1리에 있는 오OO 심방은 질치기는 원래 귀양풀이에 없는 것이나 본주들이 원하면 했다고 한다. 본주들이 원하여 인정을 걸면서 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질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귀양풀이에서는 하지 않았었다. 귀양풀이는 사망한 날 하는 것이며, 시왕맞이는 3년 탈상을 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다. 즉, 3년만에 저승에 도착하여 저승 12문을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을 치는 것이다. 따라서 귀양풀이할 때 질을 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귀양풀이에서 질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탈상 시기가 단축되어 3년상이 없어짐에 따라 시왕맞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저승 12문에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질치기가 귀양풀이로 옮겨온 것이라 하겠다.

시왕맞이에서 질을 치는 것은 시왕(十王)을 청해서 그 앞에서 질을 쳐서 저승으로 잘 보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죽은 영혼이 살아온 역사를 설명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을 말하여 열두 지옥에 빠지지 않고 저승세계로 들어가기를 청하는 것이다. 12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승 돈과 이승 돈으로 인정을 걸고 각 문들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점을 쳐서 확인한다. 12문을 지키는 12대왕이 있으며,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다. 이 문들을 통과하기 위하여 인정을 걸고 기원을 한다. 영혼이 원한을 품지 않고 저승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인한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12문을 여는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정을 걸고, 질을 하며 영혼을 위한다.

귀양풀이에서 질치기와 저승 12문을 여는 것을 함에 따라 제차의 순서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의 귀양풀이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감제를 하면서 연유를 닦고, 여러 신들을 청해 들이고 나서 가내의 안전을 기원하고, 죽은 자를 위로하고 영개울림을 하였다. 죽은 자가 이승에서의 불만, 이별의 슬픔과 이승에 대한 미련, 장례에 대한 불만 등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과 영개울림을 통하여 직접 죽은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리고 차사본풀이를 하여 저승차사를 위로하고 방광침을 하여 저승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원하고, 상주들에게 액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순서로 진행되었다.⁵⁴⁾

o 1980년대의 귀양풀이 순서

- ① 초감제 : 연유닦음-군문열림-방광침-영개울림
- ② 차사본풀이 : 날과국섬김- 연유닦음-차사본풀이

54) 현용준, 앞의 책, 365쪽~374쪽.

③ 방광침 : 소지울림-방광침

④ 액맥이

⑤ 도진

o 2008년의 표선리 귀양풀이 순서

① 초감제 : 연유담음-신청례-새드림-군문열림-방광침-영개울림-질치기-차사와 영혼을 부름-저승 12문 열기

② 차사본풀이 : 날과국섬김 - 연유담음-차사본풀이

③ 방광침

④ 액맥이

⑤ 도진

현재의 귀양풀이에서 질치기와 저승12문을 여는 것은 시왕맞이에서 하던 것을 갖고 온 것이다. 귀양풀이는 영혼을 떠나 보내는 의례이고, 시왕맞이는 영혼이 저승에 도착하여 저승문으로 들어갈 때 하는 의례이다. 그런데, 시왕맞이에서 하던 질치기와 12문 열기가 귀양풀이로 옮겨 오면서 순서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시왕맞이에서는 차사와 영혼을 청하여 들인 다음에 영개울림을 하는데,⁵⁵⁾ 귀양풀이에서는 영개울림을 하고나서 차사와 영혼을 청하여 들이고 있다. 이러한 변형은 시왕맞이에서 하던 것을 귀양풀이에 삽입시키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삼년상의 전통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시왕맞이도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귀양풀이가 중요한 의례로서 치러지면서 시왕맞이에서 하던 제차가 자연스럽게 귀양풀이로 옮겨 온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 상례에서 귀양풀이는 종교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죽음이 갖고 온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한 회환, 미련, 마음의 상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산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마음도 달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으로 인한 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례이다. 그래서 영개울림으로 죽은 이의 여한을 달래고, 심방의 입을 통하여 남아있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듣도록 한다. 영개울림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이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 죽은 이의 원한이 풀린다고 생각

55) 현용준, 앞의 책, 377쪽~381쪽.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지 않고 무사안녕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귀양풀이에 질치기가 삽입된 것은 이러한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상제들이 죽은 영혼이 저승길을 가는 도중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가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기 위하여 귀양풀이에서 질치기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귀양풀이가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III.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 변화 양상

1. 상례문화의 특성과 변화

농촌사회에서의 상례는 마을 공동체 의례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친척집단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상례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상례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표선면내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1) 역할분담과 노동조직의 관계

(1) 남성과 여성의 역할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의례와 장례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는 한편, 여성들은 장례비용과 문상객 접대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한다. 형식적으로는 상례를 치르는 주관자는 남성이다. 남성들은 상복을 입고 성복제, 일포제, 발인제 등을 집행하고, 문상객들과 인사를 하고,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한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데 중요한 의사결정도 남성들의 몫이다. 택일과 묘터 선정, 장례날 성분쌓기, 산담쌓기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진행을 남성들이 담당한다. 의사결정을 남성들이 함에 따라 여성들은 불만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상례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은 택일에서 이루어진다. 택일은 마을 내의 지관이나 잘 보는 사람, 또는 대도시의 철학관 등에서 하는데, 택일을 하게 되면 3일장보다는 5일장 이상 날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7일장 등 장례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자 상제들을 비롯하여 아들 상제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으나 맏상제가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추종하게 된다.

여성(며느리, 딸)들도 상복을 입고 상례에 참여하는데 의례를 집행하는 데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여자 상제들은 남자 상제들이 의례를 집전하여 마치고 나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절을 하는 것 밖에 안한다. 절을 하는 순서는 남자상제, 며느리, 아

들손자 또는 딸이 일반적이다. 여성들의 주요 역할은 비용을 관리하고, 물품 구입, 음식 장만, 문상객 인사와 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상례 과정에서 유교식으로 치러지는 의례에서는 남성들이 중심이 되나 귀양풀이와 같은 무속 의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크다. 심방이 주관하여 의례가 진행되나, 실질적인 참여에 있어서는 여성들, 특히 며느리가 중심이 된다.

의례를 집행하는 것은 남성 중심이지만 실제로 상례를 치르는데 필수적인 노동력의 동원 및 비용 관리에서는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일집⁵⁶⁾을 통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고, 제반 비용을 관리하여 상례가 무사히 치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례의 형식적인 측면을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실질적인 측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조직과 역할분담

상례에 동원되는 노동조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상호 노동교환 조직이다. 일집, 친목계라는 형식으로 상제가 가입되어 있는 조직이다. 둘째는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가까운 친척, 이웃,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전문 노동조직이다. 이들은 앞의 두 집단과는 달리 노동의 대가를 화폐로 직접 받는다.

상례를 치르는 주체는 상제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제와 친족집단 외에 다른 조직들이 관여하여 처리한다. 상제를 비롯한 근친들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문상객 접대, 비용관리, 장례에 필요한 물품 조달 및 관리, 기타 장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한다. 장례 기간 동안의 직접적인 노동에는 전문가와 ‘일집’을 통한 인력이 동원된다. 장례와 혼례 등 큰일을 앞두고 개별 가정에서는 각각 소규모로 일집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이 발생했을 때 상호 부조로서 서로를 도와주고 있다. 일집은 자식들에게 승계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가입한 일집을 아들이 이어받아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때는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러 가며, 며느리는 가지 않는다. 또한 며느리도 별도로 일집을 구성하여 큰일에 대비하고 있다. 일집으로 도와주는 인력들은 아침부터

56) 농촌사회에서 일종의 계 조직의 하나로서 5명 또는 7명으로 홀수로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다. 회원들 가정에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노동력과 경비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회칙을 갖추어 회비 규모와 지출 방법, 정기모임, 친목행사, 노동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저녁까지 일정한 분업체계를 갖고서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 일점과 며느리 일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은 일정하게 협업 또는 분업체계(시아머니 일점 : 밥과 반찬 담당, 며느리 일점 : 손님 접대, 설거지 등)를 형성하여 장례기간 동안의 일을 전담한다.

"현재 들어있는 일점은 3개, 일 나면 들어와 일하는 친목이 있고, 관광 가는 친목이 이신디, 3개 다 일 도와주는 친목이주, 7명인데, 보통 5명, 7명, 9명 홀수로 모이고, 한 달에 만원씩 모아서 일 나면 30만원 내친다. 일하는 것은 점으로 맡아서 하는데, 설거지, 밥, 무침 등 상황에 따라 일을 해주, 일 친목하면 주인이 신경을 안 쓰게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동네 사람 오면 이거 해줍서, 저거 해줍서 못한다. 친목이 오면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일을 시킬 수 있주, 일이 나서 못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별금도 없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도 그 사람 일 생길 때 해이해지주, 와서 도와주면 반드시 일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의무감이 적지, 아들 점이 많아서, 아들 친구들이 큰일을 다 해준다. 아들도 네 개 정도 점을 들었는데, 40대 중반이다. 어떤 집에 큰 일이 나면 어느 정도 돌아봤는가, 인심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다. 인심이 그만큼 밖에 안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박복생씨, 표선리, 53세)

"시아머니 일점에서는 밥하고, 음식 만들고, 고기 삶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내 일점은 설거지, 음식 나르기, 물건 사오는 심부름을 해수다. 친척들은 음식 재료 사는 것, 밤 8시 이후에는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리니까 그 이후의 손님 접대를 친척들이 하고, 동네사람들도 같이 와서 거들었지만 큰일은 일점에서 하고, 동네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같이 도와주는 것이다. 일점은 임종한 날부터 장례날, 장지까지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평소엔 친목으로 회칙을 정하는데, 하천리로 시집 온 며느리 7명이 친목으로 모였고, 나이는 2~3살 차이이며, 결혼이나 상을 치를 때 도와주는 목적이다." (김금희씨, 표선리, 41세)

두 번째 부류의 근친이나 이웃들은 일점으로 참여한 인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촌수가 낮거나 젊은 연령의 친족들은 물품 구입 심부름이나 잡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이들은 일점으로 참여한 인력들이 주간엔 일을 하고 야간에 귀가한 다음에 밤늦게 오는 손님 접대를 비롯하여 밤을 새우며 상가에서 놀이를 하는 문상객들에 대한 처리, 기타 상가에서 필요한 일 등 부수적인 일들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이외에도 가까운 이웃주민들이나 특별히 친밀관계에 있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여 참여한다.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며, 별

도의 보수는 받지 않지만 상가에서 식사를 하고 담례품을 받는 것으로 상호 교환관계가 성립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속은 사례’라고 하여 별도의 담례품으로 보상을 받기도 한다.

"옛날에는 생활이 단순하여 일당을 벌 일자리도 어셨주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동네에서 일이 나면 가서 도와주고, 일 도와주러 오지 않으면 옥을 들어서... 자기 일 같이 해주고, 받은 만큼 해 주고, 먹을 게 귀한 시절이라 상이 나면 그 집에서 계속 일을 도와주면서 먹기도 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오히려 영장 받이 안 왔다고 옥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1:1 교환 관계이고, 3일 동안 봐준 만큼 해주는 분위기이고, 무상으로 도와주는 풍토는 사라졌다. 무상으로 도와 줄 여유가 있으면 돈을 벌러 가고, 일 봐주다 보면 꼭 갈 사람만 간다." (송심자씨, 성읍1리, 58세)

세 번째 부류의 노동집단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로서 돼지고기와 산담 조성 등을 담당한다. 돼지고기는 제주도의 상례와 혼례에 필수적인 음식이다. 다른 음식들은 계절에 따라 일부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어도 돼지고기는 사계절 불변의 음식이며,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삶고 나눠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부른다. 돼지를 직접 삶고 중요한 부위들을 구분하여 칼로 자르는 ‘도감’을 비롯하여, 고기를 접시에 골고루 나누어 ‘반’⁵⁷⁾을 만드는 ‘찻도감’, 찾아 온 문상객들에게 한 접시씩 골고루 나눠주는 ‘반을 테우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감은 전문적인 실력으로 돼지고기를 삶는데, 장작불을 피워서 하루 종일 삶고, 삶은 고기를 부위별로 나누어 얇게 썰는 일을 하는데, 경험과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비계와 살코기를 골고루 섞어서 접시에 담아 반을 나누는 ‘찻도감’의 역할도 중요하며, ‘반을 테우는 사람’은 사람은 총기가 있어서 같은 사람에게 두 번씩 반을 나눠주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고기를 관리해야 한다. 돼지고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문상하러 온 손님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돼지고기를 분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상제들은 손님들로부터 불평을 듣지 않기 위하여 신경을 쓰며 일을 치르고 난 이후의 뒷말(평가)이 안 좋게 나오는 것에 우려한다. 도감으로 동원된 인력들은 별도의 일당(수고비)

57) 접시에 떡과 고기 등을 놓고 나눠주는 것을 반이라고 한다. 1960~1970년대에 접시가 없었을 때에는 장지(葬地)에서 대나무 꼬지에 돼지고기 석 점이나, 녁 점을 꿰어서 주었다. 지금도 반을 나눠주는 관습이 전승되고 있다.

를 받는다.

일집과 친족조직, 도감은 각각 자신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장례일까지 상가에서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운상(運喪), 개광, 폐, 진토(塵土) 장만, 봉분 쌓기, 산담 조성 등은 추가로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나서지 않으면 당일에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문에 상제들은 적극적으로 마을 구성원들의 협조를 구하게 된다. 마을 내의 청년 및 장년층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마을 구성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도와주게 된다. 이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같은 것이며, 마을 규범으로 존속해 있다. 만약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마을 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78년도에 친정아버지가 선홀리에서 돌아가셨는데, 동네에서 다 하고 행상 매고 부녀회에서 설배 매고 했다. 정월에 돌아가셔서 장의사도 없고, 오빠도 없어서 언니 두 명이 청년층을 만나서 영장해달라고 했다. 눈이 오는 날 영장을 했다. 오빠는 4.3때 돌아가서 불고,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품앗이를 가서 일을 해 주고, 일 나면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는데, 아들이 없어서 다른 집 일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청년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 (박복생씨, 표선리, 53세)

"이웃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경해도 사람들... 권당들도 있고, 권당들이 운상까지는 안하니까, 전체적으로 안하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도와줍서 허면 말 댄 안하주게, 그 때는 가면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괴기도 얻어먹고 했다."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상제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마을 내에서는 당연히 공동의 행사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규범이 존재해 있다. 하지만, 상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마을 구성원들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집단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도움을 준 구성원들에 대하여 상제는 당연히 보답을 한다. 그것은 아침 식사 대접, 무덤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점심 식사 대접, 반을 나눠주는 것, 돌래떡을 돌리는 것들이었다.

특히 1970~198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마을마다 청년회에서 장례를 책임지

고 처리하기도 하였다. 마을마다 청년회에서 자발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일을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청년회의 활동은 마을내의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장의사가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청년회의 주요 사업에서 장례와 관련된 항목은 사라졌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은 상제들이 마련하지만 기타 소요되는 인력 및 도구, 장비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달하여 사용한다. 상여와 장막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은 구성원끼리 집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때 지불된 비용은 마을에서 공동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였다. 상여가 없어진 지금은 천막 같은 경우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구입, 운영하거나, 중소도시의 경우 농협 마트 같은 곳에서 물품 구입 대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운상을 할 때에 당연히 마을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다. 부녀자들은 설배를 이끌고, 상두꾼들은 상여를 매고 장지(葬地)까지 함께 갔다. 즉, 상제와 친척집단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마을 공동행사로 치러졌다. 또한 장례에 참여하여 핵심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정시, 지관, 목수, 산담 쌓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상 및 기일제사에 음식물과 술로 대접하는 게 마을내의 관행이다. 마을 구성원들도 탈상과 기일제사에 당연히 참여하는 관행이 있어왔으며, 1980년대 이후 의례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소기를 야제로 하면서부터 그런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3) 산담과 석물

제주도 상례문화의 특징 중 독특한 것은 산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덤을 둘러싸고 돌로 담을 쌓는 것인데, 이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제주도에만 있는 현상이다. 산담을 조성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목초지에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무덤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즉, 무덤에 불이 붙은 것은 조상의 머리에 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후손으로서 불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산담을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산담점에 가입하여 상호 부조로 일을 처리하거나, 묘터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같은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마을 주민까지 불러서 일을 처

리했다. 돌을 나르려면 무료로 하지는 못하고 돌래떡 하나씩 주기도 하였으며,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것으로 산담을 쌓는 보상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산담점을 이용하여 접군들에게 돈을 주고 산담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전문 기술자에게 요청하여 비용을 주고 산담을 만들게 된다. 물론 마을 청년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여 산담을 만들어주었던 시기도 있었으며, 상제들이 청년회에 사례비를 내기도 하였다.

“산담점도 여러 개 있주, 돈 받았 몇 자 산담이라 해서 돌을 말마차로 싣고 가서 했다. 옛날에는 쌍담도 힘들었지, 우선은 외담이라도 행 낫당, 쌍담 하는 이유도 방해하면 산에 불 붙는다 말이며, 산에 불 붙으면 조상 머리꼭지에 불 붙은 거나 다름없던 허영, 방해하면 산에 불끄러 가기 바빴지, 가난해도 쌍담을 하려고 했지, 워낙 못살면 외담으로 하는 거고, 육떡주게, 조상 묘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산담은 대개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외담으로 돌을 쌓는데, 부자는 나중에 쌍담으로 돈 쥔 허젠 합니다. 산담하는 접이 이수다, 많이 허면 열 명도 하고, 마차가 못 들어가는 자리는 마차가 들어가는 자리까지 돌을 싣거당, 그 다음부터는 등에 지영 날라수다. 쉬운 데는 돈을 적게 주고, 할아버지 산담할 때 받갈쇠 하나 달랜 허영 쥔 해서, 그 때가 지금부터 55년 전이라, 돌아가성 7,8년 이후에 산담 올려신디, 산담은 방화 때문에 만들었주, 외담으로 한 디는 방화불이 들어갑니께...”

(송순원씨, 성읍1리, 83세)

예전에는 당일 날이나 전날 사람들을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여 놓았다가 산담을 쌓았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외담으로 쌓았으며,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곁담으로 쌓았다. 담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돌을 사용하고, 산담용으로 돌을 깨거나, 돈을 주고 돌을 운반해 오기도 했다. 산담은 초기에는 무덤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여 무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후대에 들어와서는 산담 자체가 집안의 위세와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 가난한 집에서는 산담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조성하더라도 외담으로 만드는데,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쌍담(곁담)으로 산담을 조성하며, 석물 등을 비치하기도 한다. 봉분, 비석, 용미 제절은 제주도의 묘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산담은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어지며, 이외에 켓돌(어긋돌), 시문(神門), 상석(床石), 혼유석(魂遊石), 동자석, 문인석, 망주

석, 향로석(주가석, 축판석 포함), 산신단, 토신단 등을 만들기도 한다.⁵⁸⁾

산담을 만드는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다. 표선면 토산리 공동묘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담이 있는데, 기존의 양식으로 쌓은 쌍담, 외담 외에 1970년대에 시멘트 블록으로 쌓은 산담도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공동묘지와 가족묘지에는 산담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적으로 조성된 무덤에는 산담을 만들더라도 외담이 아닌 쌍담으로 만들어 놓는다. 또한 전문적으로 봉분을 쌓고 산담을 쌓는 기술자들은 효율적인 노동조직이다. 최고 기술자(산담을 쌓거나 비문을 새기는 등 돌을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돌챙이’라고 부른다)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하며, 이러한 노동조직의 일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마을 내부에서 평가를 하기도 한다. 현재는 산담접과 같은 공동조직은 거의 사라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산담을 만들 필요가 없는 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공동묘지의 도입과 가족묘지의 확산으로 산담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산담을 만들 경우 장례업체에 맡기거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다.

2) 장례비용 및 부조와 문상

(1) 장례비용 공동 분담

제주도에서는 상·제례의 비용을 자식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만상제가 상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지만 장례의 경비는 여러 상제들이 적절하게 분담하여 처리한다. 비용을 자식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상속 보다는 공동 분배하는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족 구조에 있어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의 전통을 만들었으며, 또한 재산도 자녀들에게 공동 배분하고 제사 역시 아들들이 나누어 갖는 전통이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상례에도 적용되어 아들과 딸 구분 없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문화를 낳았다.

제주도의 상례에서 딸들도 평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제주도의 친족조직의 특징에서 그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들이 출가하였다고 하여 친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출가 이후에도 친가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

58) 엄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15쪽~25쪽.

성들이 직접 노동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딸들도 친가의 상례에 공통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분담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일포날의 저녁식사를 장녀가,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장례날의 아침과 점심식사를 딸들이 담당하였다. 현재는 현금으로 분담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장례비용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데, 보편적으로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장례비용을 분담한다. 그리고 부조금이 들어온 것은 장례를 치르기 전날 밤에 상제들이 함께 모여 합의를 거쳐서 분배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고 한 후 정산하여 비용이 남았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삭망제나 기타 부수적인 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제사를 맡은 아들이 갖기도 한다.

“비용은 자식들이 똑 같이 냈다. 먹는 것은 딸들이 했고, 사촌 언니들도 밤에 증식한 끼 하고, 사촌 오빠네도 부조로 한 끼하고, 상에 부조금도 얼마 내고. 그 때 당시 돈이 흔하지 않으니까, 상부조 조금 하고, 밤에 증식하는 것이 부지다. 밤 1시 정도 번갈아 가면서 잠을 안자고 이야기 하고 놀고, 밤 1시 경에 먹인다. 낮에는 언니 친목에서 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친척들이 증식을 했다. 먹는 것은 돈은 똑 같이 내 봐도 내 친목은 10명 왔다. 표선 와서 못산다고 장례비용 만원 냈다. 언니네는 더 냈을 것이고,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장례비를 충당했다.” (박복생, 표선리, 53세)

“예전에는 딸나면 조반상제, 점심상제 했는데, 요새는 똑 같이 합니다. 설러분지가 한 15년, 20년 되수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녀 부모니까 부모 밑에 한 자식이라고 하여 똑같이 분담해수다. 부친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딸들, 아들들 다 부조를 해십주, 큰 딸은 조반하고, 셋딸은 점심하고, 작은 딸 필역하고,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사이의 공간 음식하는 것은 일가들이 모여서 하고, 손자들이 많으니까 손자들도 하고 그렇게 해수다” (김옥희씨, 표선리, 63세)

(2) 부조와 답례품

부조에는 상호 교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나중에 되돌려 받는 적금이자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제주도의 부조의 특징은 개별부조이다. 한 집안에 부모와 기혼자식이 같이 살아도

부조는 부모와 자식 따로 한다. 즉 부모가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구분하여 각각 따로 부조를 하며, 받을 때도 각각 따로 받는다. 만상제에게만 대표로 부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상주 각각에게 별개의 부조를 한다.

이러한 부조문화는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낳은 현상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밭농사가 중심이며, 핵가족 단위로 경제활동을 해 왔다. 같은 울타리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아들부부는 취사와 경작을 분리하여 별개의 가족으로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⁵⁹⁾ 척박한 자연환경과 생산 조건에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핵가족 문화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핵가족 문화에서 서로에 대한 부조도 각각의 가족에 대한 개별부조라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1950년대 이전까지는 잉여생산물이 풍부하지 않았으며, 화폐경제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서의 부조는 일정량의 곡식을 주거나, 물을 길어다 주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등이었다. 1950년대 이후에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개별부조도 활발하게 되었다.

"부조는 여자도 따로 하고, 남자도 따로 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여기는 오래수다, 한 100년은 더 되어수다. 우리 난 보난 햄시나네, 부조는 예의니까, 남자들은 보통 상제들 여럿이 있어도 한 사람에만 하니까, 여자들은 상제들마다 하는 거난, 옛날엔 동네에서 해 가니까 사돈집에서는 그것을 무시 못행 하는거난 허단 보난 모든 집이 다 하게 되실거라." (금촌칠씨, 표선리, 83세)

"1950년대에는 남자는 말린 생선 한마리를 산디짚으로 싸는데 그걸 끝녁지라고 해, 그렇게 부조를 했고, 여자는 약간의 쌀이나 잡곡으로 상가에 부조를 해..." (강임용씨, 성읍1리, 65세)

"옛날에는 지금처럼 각자 부지 안해수게, 빙떡 행 차룽에 가져가, 대구덕에 낱 가져가, 무신거 각자 할 거 이서서, 상제별로 안 해, 상에만 올려서, 돈이 이수가, 떡이 이수가, 쌀이 이수가, 한 밧디만 해서, 각자 부조는 해방 후에, 제국 시대 돈이 이수가, 곡식도 공출해 불고, 술 할 재료도 없고, 못하게 맨들고, 경허난 해방 후 조금 살아지난 허게 된거라, 옛날에는 쌀 한말은 사돈부지로 하고, 돈은 얼마 어섯주, 그거 풀아그네 빈 돈 물고..." (김을정씨, 성읍1리, 77세),

59) 최재석은 “핵가족과 형제간의 가산의 균분상속, 강한 부계혈연의식과 자립정신에 근거한 합리주의, 그리고 부락내혼에 연유한 모계친 준중,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 가족의 특성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다.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42쪽.

개별부조는 여성들의 경제권과도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가정 경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따로 수입을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 또한 여성들이 직접 노동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경제권을 갖고 가정을 꾸려나간다. 여성의 경제권, 결정권이 강하며 그만큼 가정에서의 위상도 높다. 상례에 출가한 딸이 상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성들이 가정경제권을 주도함에 따라 여성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부조금을 교환하는 문화가 발전한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부조는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매개가 되고 있으며, 부조 관계는 고정적인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상가에서는 혼백상을 차려 놓고 그곳을 통하여 부조금을 받는 한편, 상제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부조금을 받는다. 문상객들도 부조금을 두 개로 준비하여 주로 남자들은 혼백상에 부조금을 올리고, 여자들은 여자 상제들(딸이나 며느리)에게 부조를 한다. 혼백상을 통하여 들어온 부조금은 대개 장례를 치른 날에 정리하여 각 상제들에게 들어온 것은 개별적으로 상제들에게 주거나, 종합하여 각각의 상제들(아들과 딸 구별 없이)에게 공통배분하거나, 삭망제와 기일제사를 맡은 상제에게 제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제들끼리의 합의와 의논을 거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임종 후부터 성복 때까지는 상주는 4촌 범위의 가까운 친족들이 쭈어 오는 팔죽을 먹어야 하는데, 특히 망인의 사돈은 반드시 죽을 한 허벅 쭈어 오는 것이 의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팔죽을 쭈는 풍습은 많이 사라졌으며, 라면이나 음료수 등으로 간소화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고적’이라고 하여 친척들이 장례일 당일에 돌래떡을 만들어서 장지에서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 상가에서 직접 떡을 만들거나, 친척들이 만들어서 장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고적은 메밀이나 조, 혹은 보리쌀로 둥그렇게 만든 ‘돌래떡’이나 ‘물떡’이라 하여 속에 소(속)을 넣어 둘로 접어 반달모양으로 만든 떡이며 해방 이후에는 ‘보름떡’이라고도 하였다. 돌래떡은 40개, 물떡은 60개를 한 말 고적이라 셈하여 좋다 나쁘다 평하면서 역군을 접대하였다.⁶⁰⁾ 이렇게 떡이나 빵으로 접대하는 풍습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 장지에서 점심밥을 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60) 고성리, 『고성리지』, 1993, 216쪽.

“78년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조 들어온 것은 5천원, 3천원 부조였다. 친척들이 쌀을 가져와도, 5천원 부지하면 잘 한 것이고, 3천원 부지도 흔했다. 떡 부지도 있었다. 떡 부지를 받았으면 자기도 떡 부지로 갚았다. 구덕 하나에 떡을 해서 조그만 바구니에 빵떡을 상제마다 주었다. 상제는 그 빵떡을 필역할 때 모아가지고 간 사람이나 행상한 사람에게는 다 태운다. 상제들이 많은 곳은 빵떡을 한 바구니 받아온다. 빵떡 20개 정도 구덕에 담았다. 답례품은 없었다. 떡 같은 것을 주고 했다. 빵떡을 주었다. 83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일반미 쌀 한말이 6천원 정도였다.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미 한말을 부지한다. 쌀 한말 부지가 최고였다. 몇 년전만 해도 집 짓고 이사가서 상량할 때 쌀부지 했는데, 어느 날 쌀 부지 없어지고 돈으로 부지한다. 83년도에도 답례품은 없었다. 12년 전쯤 집들이도 일어나고, 답례품도 일어났다. 그 전에는 집들이도 신경을 안 썼다. 집들이 한다면 세제, 휴지 그런 거 사서 갖는데, 이제는 다 돈으로 한다.” (박복생씨, 표선리, 53세)

“예전에는 보통은 혼말부지라, 구덕에 보리쌀, 쌀, 팥 등 농사지은 것을 가져가면, 상가에서는 빈 구덕에 떡, 고기, 밥 한 냥푼을 담아 돌려주었지,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의 풍습이다. 80년대만 해도 말чат부지, 혼말부지, 닳되부지라 했다. 그 이후 먹을거리가 풍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떡, 고기, 밥이 흔해지고, 위생 관념이 강해지면서 먹을거리로 돌려주는 것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물건, 치약, 비누, 세제로 주게 되면서 답례품이 생겨나서...” (송심자씨, 성읍1리, 58세)

- 말чат부지(현재 5만원) : 다섯되, 당사돈집, 정말 가까운 최고의 예
- 혼말부지(현재 3만원) : 녁되, 가까운 당상
- 닳되부지(현재 2만원) : 두되, 친척의 동네 이웃, 가까운 집

3) 풍수 사상과 장법

풍수사상에 따라 묘지는 자손의 번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성복제(成服祭) 이후에 아들 상제들은 지관에게 부탁하여 묘터를 고르러 다닌다. 묘터가 정해지면 지관은 장사지내는 날을 택일한다. 택일에 따라 장법이 달라지는데, 망인과 상제의 생갑(生甲)을 비교하여 걸리는 것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나 만약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봉분을 쌓되 용미(龍尾)와 제절(階節)을 만들지 않고, 우제도 지내지 않았다가, 다시 좋은 날을 택해서 용미제절을 만들고 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묘지 풍수신앙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은 시간과 방위를 따져서 한다. 개광은 지관이 정한 방위에 맞추며, 하관도 시각을 준수하고 방위에 꼭 맞도록 한다. 묘의 앞 쪽에 시체의 발이, 뒤쪽에는 머리가 오도록 한다.

무덤을 둘러싸고 외담 또는 겹담으로 산담을 쌓는다. 돌로 만든 제단인 상석(床石)과 비석을 세우고, 상석의 뒤에는 유혼석(遊魂石)을 세우고, 산담에는 신문(神門)이라 해서 사령(死靈)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돌담을 터놓는다. 여자의 묘에는 오른쪽에, 남자의 묘에는 왼쪽에 터놓는다. 장법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토장(土葬), 퇴관장(退棺葬), 가장(假葬) 등이 있다. 토장은 일반적인 매장법이며, 퇴관장은 매장할 때 관에서 시신을 꺼내어 시신만 묻고, 관은 태워버리는 방법이다. 가장(假葬)은 임시로 가매장하는 것으로 봉분을 쌓되 용미(龍尾)와 제절(階節)은 만들지 않는다. 일명 ‘토롱’이라고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토롱을 하는 경우는 택일을 하였는데 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이다.

예전에는 비정상적으로 죽은 이에 대한 장법이 각각 달랐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장례, 출산하다 죽은 부인의 장례, 폐병으로 사망한 자의 장례, 출타(出他) 중 사망한 자의 장례, 어린이의 장례 등 사례에 따라 장례법이 달랐다.⁶¹⁾ 하지만 지금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이 중에서 집 밖에서 사망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집 밖에서 죽을 경우에는 집 안으로 들여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 이는 뿌리 깊은 관습 중의 하나이다. 집 밖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집 근처에 빈소를 차려서 장례를 치르는 가에 대하여는 민간 신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토산리에 누구네 집에 유월 초사흘날이라, 며느리가 빨래허랜 갔당 빠정 죽었주, 건져왕 시아방이 집안에 들영 영장을 지내신디, 그 해에 그 집이 온창 망해그네, 사람들이 며느리 영장을 집 안에 들영 망했덴 굴양 했주” (김오생씨, 토산리, 77세)

61)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집 가까이에 빈소를 만드는데 돌담 위에 시신을 넣고 소나무 가지 등으로 덮고 주쟁이를 씌워 두었다가 전염병이 사라진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 출산하다 사망한 경우는 가 매장한 후 오, 육 년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정식 장례를 치른다. 폐병으로 사망한 자는 관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하되 복부가 밑으로 가도록 한다. 집 밖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집 가까이 장막을 쳐서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른다. 유아(乳兒)의 장례는 아기구덕에 넣고 가서 매장하고 아기구덕은 불태운다.”

김영돈, 앞의 글, 722쪽~723쪽.

“어릴 적(1950년대) 신천리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가 이서신디, 아버지가 배를 타고 가다가 소섬(우도) 근처에서 배가 뒤집혀져서 죽언, 아버지 신체도 못 건져 곳을 하여 혼을 건져당 빈 무덤을 만들언, 심방이 혼 불른 거 보니까 듬북이라, 훌적삼 넣고 영장을 하여 봉분을 했지, 관을 만들언 옷을 다 넣고, 훌적삼 넣고 장례를 치웁... 신천리만 하루 저녁에 12군데 제사를 하지, 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10시 물 든 때 제사를 지낸다. 꿈에 선몽해서, 늦게 지내니까 큰 아버지 꿈에 나타나 “늦게 제사를 지내니까 벗들도 없고 배가 나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여 10시에 물이 들 때 제사를 지낸다.” (고순자씨, 하천리, 69세)

2. 농촌마을 상례문화 변화 사례

1970년대 이후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는 크게 변화한다. 국가 권력이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서 가정의례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 대상은 상례였다. 이에 따라 의례의 축소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만들어지면서 제주도의 상례문화는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또한 상업적 농업의 발달, 이농현상의 확산, 도시문화의 농촌 유입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조직 및 인간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표선면의 하천리, 성읍1리에서 1970년대 이후 상례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현지 주민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겠다.

1) 하천리의 상례문화 변화

(1) 마을 개관

표선면 하천리는 약 500년전에 위씨(魏氏)가 설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천미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자연스레 ‘내끼’(내의 끝에 있는 지역)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조선 중엽 이후 웃내끼(上川尾, 현재의 신평리)와 알내끼(下川尾, 지금의 하천리)로 불리웠다. 신평리와 하천리는 천미촌(川尾村)으로 웃내끼, 알내끼로 불리웠으나, 조선시대말 고종 때 하천리를 분리시켜 현재의 위치로 부락을 옮겼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좌면(지금의 성산읍)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에 표선면에 편입되었다. 상동(윗동네), 중동(방상동네 : 강씨가 집단으로 사는 동네라

는 뜻), 하동(넓밭 : 넓은 평원이란 뜻)의 3개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971명(남자 494명, 여자 477명)이며 349가구(농가 204, 어가 124, 기타 21)가 있으며, 이 중 40가구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며, 1940년까지는 자급자족 목적으로 조, 보리, 메밀, 피, 산디(밭벼), 팔 농사를 지었으며,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식량 대체와 환금작물로 주요 소득원이 되었다. 1960년도부터는 고구마 절간(切干), 유채가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고구마는 1970년대까지 주요 작물 중 하나였다. 1970년에 밀감 식재 붐이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1988년도부터는 감자가 환금작물로 부각되어 감귤 수입보다 감자 수입이 앞서는 때도 있었으며, 감자와 함께 당근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10년 전부터는 더덕 농사가 고소득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마을 공동목장에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있으며, 하동에는 해녀 30명이 잠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어장이 협소하여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다. 마을 신앙으로는 상동에 본향당이 있으며, 하동에는 고척당이 있다. 본향당의 제일은 일 년에 두 번이며, 이 날에 인근 마을에서 심방이 오며 단골들이 제물을 만들어서 찾아간다.

(2) 공동묘지 조성 및 운영

하천리의 공동묘지는 1973년도에 남제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 인근 달산봉에 조성되었다. 공동묘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달산봉 남쪽 경사면에 자연스럽게 묘지들이 들어섰는데, 이를 ‘망 앞’이라 불렀다. 이후에 생긴 공동묘지는 ‘망 뒤’라고 불렀는데, 공동묘지 방향이 서북향이라 하여 방위가 좋지 않다고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했다. 때문에 토산리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상여로 운상하여 가는 경우도 있었다.

1992년도에 감귤 간벌 및 적과 우수 상사업비 1억원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였으며, 1994년도에 기계실을 만들었다. 1996년에 재일교포의 도움을 받아서 총계와 관리사를 건설하였으며, 2000년도에 영안실을 만들어서 냉동고에서 관을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도에는 식당(관리사)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그릇을 비치하여 공동묘지에서 문상을 받고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묘지 운영은 향약에 조항을 넣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현재 하천리가 본적이

며, 하천리에 거주할 경우에는 15만원(영안실 5만원, 묘지 5만원, 식당이용 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하천리가 본적이며, 타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25만원을 내고 있다. 공동묘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초 마을 정기총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하천리는 공동묘지가 생기기 이전에 달산봉 남쪽 경사면에 자연스럽게 묘지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구 공동묘지라고 불렀고, ‘망 앞’이라 하고 신 공동묘지는 ‘망 뒤’라고 해. ‘망 앞’은 관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묘지를 쓴거고, 공동묘지는 달산봉에 생겼. 구 공동묘지는 남향이고 신 공동묘지는 약간 서북향이라 하여 처음에는 사람들이 꺼렸고, 안 좋으니까 안간다고 했지. 처음에는 토산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기도 했고, 세화1리는 마을 공동묘지를 안 쓰고 토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갔지, 포선리도 매봉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지만 매봉보다는 토산으로 많이 가서...” (강순배 씨, 하천리, 50세)

(3) 상례문화의 변화

가. 장례 주관자

하천리의 상동, 중동, 하동마다 옆과 습, 입관, 매장 등의 장례 절차를 지도하는 주관자 별도로 있었다. 3개 동에 한 사람씩 있었는데, 현재는 상동에만 일명 ‘오공주네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송OO씨가 남아 있다. 송씨는 1990년대까지 상동 뿐만 아니라 중동과 하동에도 일을 도와주었는데, 현재는 친척 중에 일이 났을 때 직접 일을 도와주고, 필요한 물품을 장의사로부터 구입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장례 필수품인 동심절, 운삽, 아삽 등을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고 장의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묘지에서 개광 작업을 할 때도 관이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등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전에는 정시를 부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공동묘지를 이용하면서 별도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시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장의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 장의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의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송씨가 직접 마을사람들의 장례 일을 처리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중에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참여하여 조연을 하거나 의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송씨는 예전에는 목수 일

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상례 절차를 배웠으며, 마을 내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례를 치르면서 송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제삿날에는 떡과 음식으로 송씨에게 보답을 하고 있다.

나. 노동의 변화

1980년대 이전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날 일포날에 문상 온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날 장례에 동원될 인력과 장비, 도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다. 그리고 장례날 아침 새벽에 가까운 친척이 동네 사람들 집을 돌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불러 모은다.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트럭 등을 몰고 나오는 데 동장이 3개 조로 나누어 역할분담을 시킨다. 선발대는 묘지로 가서 개광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조는 떼(잔디)를 구하러 간다. 또 한 조는 상가에서 운상 준비와 정리 작업을 하고, 묘지로 가서 다른 조가 구해 온 떼를 운반한다. 떼는 인근 임야나 목장 등에 가서 캐오는데 예전에는 떼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유지로서 땅 주인이 규제를 하여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

떼는 봉분을 쌓고 나서 그 위를 덮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공동묘지에 묘지를 조성하는데 떼를 운반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여 동네 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일을 도왔다. 한 사람이 떼를 세 개 짊어지고, 30회 정도 왕복하였으며, 떼 운반을 비롯하여 산담 쌓기 등 필요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였다. 동별로 남녀노소 없이 다 가서 떼를 옮겨주었다.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약 200명으로 같은 동의 사람들 전체가 동원되었다. 1992년도에 마을 공동묘지에 모노레일이 설치된 이후에는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흙과 떼를 옮김에 따라 협동노동이 줄어들게 되었다. 모노레일이 설치된 이후에도 관은 상여를 벗겨내고 밑에 받친 나무틀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옮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노레일로 관을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지금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청·장년층의 이농 현상과 젊은 계층에서 표선리 및 인근 지역의 사업체에 직장을 구하여 다니는 등 마을 내의 젊은 계층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장례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장사를 치르는 인력 공급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여 협동으로 공동노동의

문화로 일을 치렀지만 실질적인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인력을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봉분을 쌓고 때를 구하여 입히는 과정에 일당을 주고 인력을 구하여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장의사에게 일괄하여 맡기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장의사를 이용함에 따라 장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며,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상제 및 친척 30여명, 동네 사람 30명 정도, 친목 20명~30명 등으로 약 100명이 참여한다.

장의사 이용에 따른 변화는 동네 사람들이 실질적인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처럼 동네사람들이 나서서 때를 구하는 일은 사라졌으며, 개광 작업이나 봉분 쌓는 것도 장의사가 동원한 전문 인력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일부 흙을 나르는 등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다. 운상(運喪) 방법의 변화

상여는 상동, 중동, 하동 동별로 다 있었으며, 관리도 동별로 했다. 별도의 상여집은 없었으며, 상(喪)을 당하여 상여를 사용하는 사람이 꽃을 만들어 붙여 꽃상여를 만들기도 하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했다. 목수가 관도 짜고, 상여도 수리하고, 끈을 매주고 했다. 상여의 구조는 세로로 굵은 찻대 2개를 놓고 그 위에 가로로 5개의 대를 걸쳐 묶었다.⁶²⁾ 직사각형 모양의 천으로 관을 감싸도록 틀을 만들었고, 꽃으로 장식을 하였다. 광목을 길게 30~50미터 정도 상여에 두 줄로 연결하였는데, 이를 ‘담포’⁶³⁾라 하고, 여자들이 끌고 갔다. 여자들은 앞에서 ‘담포’를 당기고, 뒤에서는 상여를 매어서 갔다. 상여를 매고 가는 사람들을 ‘상디’라고 불렀다.

상여를 처음 댈 때는 소리를 하고, 출발하여 나가다가 친족집에서 노제를 지낼 때는 ‘하매(下馬)’라고 외치며 상디들이 무릎을 굽혀 앉았다가 일어선다. 잘 먹고 간다

62) 상여의 구조는 마을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찻대 2 개와 가로대 5개가 기본 구조이다. 상여의 구조와 보관 방법에는 다음의 자료 참조. “상여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상여막(상여집)’을 지어서 보관해 둔다. 상여를 지탱하는 ‘찻대(찻낭)’는 길이가 길므로 상여집이 좁아 보관하지 못할 경우는 ‘돌방에왕(돌그레왕)’이라는 연자뿔간에 보관해 둔다. 보통 6자를 1칸으로 치는데, 찻대는 2칸 반 이상이나 되는 길이였다. 그 사이에 걸쳐놓는 나무는 ‘돌개’라 했다” 『토평마을』,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회, 2004, 355쪽.

63) 다른 지역에서는 ‘실배’라고도 한다. 영혼을 위로하는 행렬이며,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노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담포 매어서 상여소리 하면서 영장을 내어달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상례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문화요소였다.

고 상여가 조금 내려앉았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묘지로 가는 길 가에 윗대 묘가 있으면 상여소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마을을 벗어나기 전까지도 소리를 하지 않았다. 마을 밖으로 벗어나면 소리가 나오고, 장구를 치면서 흥겹게 놀면서 묘지로 갔다. 앞에는 키가 크고 젊은 사람들 3명이 어깨위로 상여를 매었으며 좌우로 각각 3명, 뒤에 2~3명 총 12명이 상여를 매었다.

상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며, 마을에 트럭이 들어오고 나서, 트럭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상여 대신 트럭을 이용하게 된 것은 젊은 연령층의 도시 이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진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위기 조성도 원인이라 하겠다. 현재는 장의사를 불러서 장의차로 운구하고 있다.

“상여가 사라진 것은 20년쯤으로 78년까지는 사용한 기억이 있고, 80년도까지도 상여를 사용했었다. 타이탄 트럭 나온 후에 사라져서, 트럭 나온 때도 트럭 위에 관을 놓고 상여를 올려놓아, 잣대 없이 상여만 띄우고 이동해서, 트럭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것도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동 별로 장례를 치르다 보니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상여 대신 트럭을 이용하기 시작했지, 상여를 쓰지 않고 트럭으로 이동할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해서, 마차로는 이동하지 않았고, 그 후에 상여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고 트럭에 관을 올리고 이불을 덮어서 가기도 하고, 마차를 쓰지 않는 이유는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유라...” (송종원씨, 하천리, 50세)

라. 산담

1960년대 이전까지는 장례일 당일이나, 그 전날 사람들을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여 놓았다가 당일 날 산담을 쌓았다. 돌을 운반할 때는 말마차(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하였다. 산담을 쌓는 데에 따른 보수는 없었으며 먹을 것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였다.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동별로 청년회가 조직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수눌음으로 도와주었다. 청년회원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내의 잡일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특히 산담 쌓는 것을 맡아서 하였으며, 수고비를 받아서 청년회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며⁶⁴⁾, 1980년 이후에는 친목 모임에게 부탁하여 산담을 쌓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에게 수고비

64) 상동에는 ‘이사청년회’, 중동에는 ‘동심회’, 하동에는 ‘4H청년회’가 활동하였으며, 동심회는 1982년까지 활동하다가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해체되었다.
하천리 향토지 『넷끼』 259쪽.

를 주고 만들고 있다. 산담의 크기와 모양은 집안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상동에는 ‘이사창조회’, 중동에는 ‘동심회’, 하동에는 특별히 단체가 없어서 옛날 ‘4H단체’가 있었다. 동 별로 청년회가 있었고, 동심회가 중동 청년회였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단체가 많지 않았다. 상동에는 20대 ~ 40대로 구성된 ‘이사창조회’가 장례 일을 다했다. 중동에는 ‘동심회’가 장례 일을 맡아서 했다. 각 동으로 일하기 시작한 게 75년부터 동 별로 자치 비슷하게 시작했다. 그 때까지 장지에 동민이 다 가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40대까지만 장지로 가다가, 80년대 후반~ 90년 초반에는 50대까지 장지에 가고, 70년 중반까지는 80~90세도 장지에 같이 갔다. 새마을운동 시작 이후에는 나이 제한을 했다. 모노레일 생기기 이전 잔디 올리는데 동네 사람 모두가 참여했다. 동네 사람이 다 같이 갔다. 동별로 남녀노소 없이 다 가서 잔디를 옮겨주었다.“ (강순배씨, 하천리, 50세)

마. 귀양풀이

하천리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장례 날 저녁에 귀양풀이를 하였으나, 지금은 귀양풀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귀양풀이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하천리에는 삼천교⁶⁵⁾라는 제주도의 자생종교가 생겨난 곳으로 이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 신자들은 유교의 관습에 따른 제례와 함께 무속신앙에 따른 행위들을 배타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서 귀양풀이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 일부 가정에서도 귀양풀이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귀양풀이를 한 가정이 있으며, 심방은 제주시의 영신보살 또는 인근 신평리에 거주하는 심방에게 의뢰하여 하고 있다. 제주시의 영신보살은 1993년도부터 하천리에서 문전코시와 귀양풀이를 하고 있으며, 단골을 확보하고 있다.

바. 화장 및 납골당

화장은 2005년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모두 매장 하였다. 화장은 최근에 확산되는 추세이며, 가족 납골당은 2004년도에 1기, 2006년도에 2기

65) 도교의 영향을 받은 신종교로서 1966년부터 표선면 일대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에 들어와서 자체적인 상례와 제례 절차를 만들어서 유교식 상례와 제례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무속신앙도 배척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 토산리, 하례2리, 중달리, 하천리에 포교활동을 위한 시설(宮)이 만들어져 있으며 신흥1리 반고동에 신도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있다.

가 생겨났다. 납골당은 묘지 벌초 관리가 어려운 집안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후손이 마을에 살지 않거나 앞으로 장래에 묘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생겨나고 있다. 특히 같은 공동묘지에 있으면서 벌초를 하지 않으면 마을 내에서 비난 여론이 조성되며, 또한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납골당은 묘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짐에 따라 조상들을 더 잘 모시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까운 친족들끼리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후세대에서 묘지를 관리하는 풍토가 희박해질 것을 우려하여 현세대에서 준비를 하자는 게 주요 논의의 핵심이다. 납골당의 경우 몇 가지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몇몇 가정에서 납골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용 분담 문제이다.

<표 2> 2000년 이후 하천리 매장 및 화장 현황 (자료: 하천리사무소)

년도	사망자	매장(공동묘지)	화장	비고
2001년	6	6	0	
2002년	11	11	0	
2003년	7	7	0	
2004년	8	8	0	
2005년	3	2	1	
2006년	7	6	1	
2007년	4	3	1	
2008년 8월까지	4	1	3	

(4) 가정의례 간소화 및 탈상 시기의 변화

정부의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 추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탈상시기가 단축되기 시작하였다. 예전까지 삼년상을 했으나, 정부 시책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일년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부터는 소기에도 손님을 부르지 않고 친척끼리 야제(夜祭)로 지내기로 하였다.

1997년도에 남제주군에서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정의례 간소화를 적극 받아들여 청년회와 부녀회가 앞장서서 마을 내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청년회에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였으며⁶⁶⁾,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과 상례가 발생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간소화를 실천하도록 하였다.⁶⁷⁾ 주요 실천 사항은 음

66) 제주일보, 1997년 3월 8일자 기사, “하천리 청년회, ‘상제별 음식 안차리기’ 가정의례 홍보물 제작, 전 가구 배포”

식물 간소화, 개별부조 안하기, 답례품 안주기였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 간소화 실천으로 문상객들에게 밥 대신 국수를 주는 전통이 생겨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개별부조 안하기는 1997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부활하였으며, 답례품도 2년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일년상을 치르던 탈상 풍습에서 1999년부터는 100일 탈상을 하는 가정도 생겨났다. 그 이후 49재 탈상, 당일 탈상을 하는 가정도 생겨나는 등 탈상 시기가 계속해서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천리는 남제주군의 캠페인을 실천하여 1997년 7월에 7개 최우수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어 상(賞)사업비를 받았다.

소기를 야제로 치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야제로 지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문상을 가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목들이 참여하고, 동네 사람들도 참석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1년상을 치르는 집도 생겨나고, 야제로 지내며 손님 접대를 하지 않고 있으나 동네 사람들도 가까운 이웃에서 쌀 한말, 2만원 정도 소액으로 부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조금 간소화는 추진되다가 말이 많아서 안되었다. 남자는 일괄 상부조하고, 여자는 상주마다 개인 부조하는데, 상주 많은 집에 부조가 많다. 교환 원칙에 어긋나서 부조금 간소화를 추진하여 여자 부조도 상부조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심이 박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강제조항도 아니고 규제도 없어서 부조 간소화는 실패했다. 97년 가정의례 간소화 시책에 따라 개별부조와 답례품을 없앴는데, 그 이후 99년도에 서귀포에서 답례품이 되살아나니까 다시 환원되었다. 밥 대신 국수 대접은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99년도부터 백일 탈상이 시작되고, 99년 이전에는 소상으로 탈상했다. 3년상 탈상은 93년~94년경까지 시행된 것 같고, 탈상은 거의 야제로 하기 때문에 손님 접대를 하지 않는다. 할 때 가까운 이웃에서 쌀 한말, 2만원 정도 부조하고, 개별부조를 하지 않으며, 한 집안에서 봉투 하나 전달한다.” (이 봉주씨, 하천리, 50세)

2) 성읍1리의 상례문화 변화

(1) 마을개관

표선면 성읍1리는 약 650년 전 맨 처음으로 거천리에서 시작하여 소진리, 영전리, 화원리, 진사리까지 5개 부락으로 형성되었다가 부락의 중심지인 진사리로 통합되

67) 제주일보, 1997년 4월 3일자 기사, “하천리, 혼례 예정 가구주 3명 초청, 건전 가정의례 실천 협조 부탁”

었다. 1423년 정의현청이 성산면 고성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설되면서부터 성읍리로 개칭되었으며 같은 해에 정의향교가 고성리에서 이설되었다. 1609년 행정개편으로 정의현 좌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에 면 경계를 다시 확정하면서 표선면에 편입되었다. 1984년 6월 7일 국가에서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하였다.

약 500년 동안(1423~1914)의 정의현청이 있었던 도읍지이면서 많은 유형, 무형문화재가 밀집되어 남아 있어서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1,306명(남자 659명, 여자 647명), 501세대가 살고 있다. 농가가 331가구이며, 상업 및 기타가 170가구이다. 다른 마을보다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은 성읍1리가 민속마을로서 1970년대부터 관광지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감귤, 당근, 감자, 콩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관광업소(식당, 토산품판매, 건강보조식품판매 등) 경영 및 종사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편이다.

(2) 상례문화의 변화

가. 상례 조직의 변화

성읍1리에서는 1960년대 이전에 상이 났을 때는 친척, 이웃사람, 같은 동네 사람, 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치렀다고 한다. 마을 안에 일이 생기면 마을 구성원들은 당연히 문상을 가고 장례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의무이자 관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네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분위기였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례에 참석했다고 한다. 성읍1리의 송OO씨(1943년생)의 경우 1967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이 때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만든 ‘바육꼬지’(대나무 꼬지에 돼지고기 넉 점을 끼운 것)가 500개 넘었다고 한다. 상가의 경제력에 따라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를 수 있으나 마을내에서는 매장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장례를 담당하는 ‘골’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그 당시 조사⁶⁸⁾

68) 김영돈 교수에 의하여 실시된 조사 결과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탐라문화』 2권부터 4

에 의하면 성읍1리에서 장례를 담당하는 조직인 ‘골’은 네 골로 나누어져 있었다.

- o 상골 - 1, 2, 3, 4, 5, 6, 7반
- o 하골 - 18, 19, 20반
- o 동골 - 8, 9, 10, 11, 12반
- o 서골 - 15, 16, 17반

‘골’ 안에 장례가 생기면 각 집에서는 만사 제쳐놓고 한 사람씩 운상, 매장, 산담 쌓기를 치러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었다. 보통 한 골을 동원하지만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싶을 때는 마을안 가구 전부를 동원하는데 이를 ‘골 청한다’고 한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장례가 있었다고 한다. 골 청하는 경우는 장지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상과 산담 쌓는데 많은 노역이 필요할 때이다. 상여를 매고 가다가 중간에 교대를 하려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묘터가 산위 높은 지역에 있을 경우 산담을 쌓는데도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한다.⁶⁹⁾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골을 청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성읍1리는 7개 반⁷⁰⁾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각 반 단위로 장례 및 혼례 등 큰일을 치르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예전의 20개 반을 통합하여 현재의 7개 반이 되었으며, 마을 총회에서 각 반별로 혼례와 장례 등을 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반별로 기금을 만들어 천막 및 식기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 단위로 하는 것은 그 이후이다. 80년대 이후다. 자꾸 사람 빌고 하는 것도 불편하다. 새마을운동을 해 나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20몇 개 반이었다. 그것을 통합하여 7개 반으로 만들었주게, 7개 반으로 만드니까 반끼리 야유회 가고,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니까, 큰 일 나면 반에서 하자, 이것이 마을 총회에서 결정해서, 답례품 하자말자 하는 것도 마을 총회에서 결정했다. 경 해난 반별로 하고 있다. 어느 반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마을 총회에서 하고 있지.”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권까지 조사 내용이 실려 있으며,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 4권에 실려 있다.

69) 성읍1리에 있는 영주산 정상에 묘가 하나 있는데 산담을 쌓을 때 많은 장정들이 동원되었으며, 돌 한덩이 운반할 때마다 돌레떡 하나씩 주었다고 한다.

70) 1반부터 8반까지가 있으며, 4반과 5반은 통합하여 총 7개 반이다. 현재 성읍1리에서는 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읍1리는 현재와 같이 관광지가 되기 이전에는 농업이 주요 생산활동이어서 별도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으며, 마을 내에서 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 노동 또는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경제적인 상호교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이 나면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 친목계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음식 만들기와 손님접대 등 일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성읍1리가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 외에 상업이 주요 경제활동이 되어 있음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농사에만 종사할 경우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으나, 상업 활동을 하면서 시간에 제약을 받고, 또한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보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풍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 운상 방법의 변화

2000년 까지 상여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4개 동(현재는 7개 반)으로 구분되어 각각 상여가 있었으며, 관리를 해 왔는데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서 관리비용을 충당했다. 같은 반원이 사용할 때와 다른 반원이 사용할 때 사용료에 차등을 두었다. 현재 상여는 1개가 남아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정의골 축제' 때 행사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나무로 상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새로 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나무 대신 철물로 뼈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천을 씌웠다. 차대는 나무로 하고, 차대 묶는 줄은 말총으로 했지만 지금은 만드는 사람도 사라졌으며, 나이론 줄로 한다.

상여는 처음 나갈 때는 고인과 가까운 친척, 긴밀한 친분 관계있는 분들이 이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한번 메어 드리고 싶다'면서 메고 가나, 구간마다 교대를 하며, 먼 거리로 갈수록 젊은 층으로 바뀌진다. 상여에 인정(돈)을 꽂으면 상여 운영 기금이나 상두꾼 수고비로 처리하였으며, 상여를 매고 갈 때는 앞에 올라타서 종을 흔들며 상여소리를 하면 설배를 지고 가는 부녀자들이 뒷소리를 받아서 했다.

상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염불소리'와 같은 조용한 노래로 시작한다. 상여 나가는

날에 동네에 있는 가옥 중에서 '문전코시'나 혼례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하여 택일을 한 집, 제사를 앞두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큰소리로 하면 부정탄다고 하여 조용한 소리를 한다. 동네 어귀를 벗어나면 '어거리넝창'을 부르며, 장지에 가까워질수록 빠른 소리인 '자진난봉'을 부른다. 천수를 누린 호상일 경우에는 상여소리는 아니지만 '삼마둥둥'(사랑가)와 같은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상여를 매더라도 뒷소리를 받을 젊은 연령층이 없으며, 또한 상여로 운상하는 기회도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여소리가 전승되는 현장도 없어지고, 상여소리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 전승이 끊기고 있다.

“보통 5키로 이상, 많이 갈 때는 10키로 이상 사슴이오름까지 가기도 했주, 보통 세 탕 이상, 네 탕까지 매영 가주, 쉴 때 마다 술하고 떡하고 필역이랭 허영 백여, 아주머니들도 앞에서 끝까지 가주, 아니 가젠 허민 여자들이 땡겨, 안 가면 돈도 걸고, 돈 걸면 매간 사람들이 갖기도 하고, 동네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여는 옛날에 동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상골, 동골, 하동 3개가 이서나수다. 화단 관리하는 소임이라고 이서수다. 없는 반에는 임대비 반양 관리했당, 다음에 소임이 나오면 인계해주고 경 해수다. 7,8년 전까지는 상여 맹 가는게 간간히 이섯주, 상여 나가면 상여소리도 올래 밖에 나가면 험니다. 마을 안에서는 조용히 나가기 위해서 슬프게 느린 소리가 이수다. 마을 밖에 나가면 빠른 거 하다가, 장 발이 가까워가면 더 빠른 소릴 합니다. ‘염불소리’로 시작하다가 ‘어거리넝창’이런 현게 이수다, 그 다음엔 ‘자진난봉’이런 현게 이십주, 평장할 때는 그거 밖에 안합니다. 현장에 가면 흙 팔 때 하는 진토긋소리가 있고, 흙을 멩텅이에 담아수다, 장난 삼양 밟으멍, 비올 땐 복친들이 하주게, 복친들 얼메기젠 쉽게 비우지 못하게 밟양 담기도 해수다, 봉분 쌓을 땐 달구소리를 합니다. 상여 맨 사람들이 후창을 험주, 노래하던 할머니들도 다 죽어수다, ‘삼마둥둥’은 장 날 때 허는 소리가 아니우다, 놀 때 하는 소리우다, 상여 소리는 아니우다, 가정에서 놀 때 많이 해수다.” (송순원씨, 성읍1리, 83세)

상여를 맨 앞에서 매는 사람을 ‘므새기므루’라고 하였다. 산디짚을 두텁게 해서 앞에서 매는 사람들의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한다. 앞에 선 사람들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다. 처음에 상여가 나갈 때는 친척이나 망자와 친한 사람들이 매기도 하나 운상 길이 길어져서 중간에 교대를 할 때는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로 교체한다. 운상하다가 힘이 들면 앞에서 맨 사람들이 버티기도 한다. 상여 뒤에 종을 달아서 종소리가 달랑달랑 나도록 흔들면, 상제들이 잘 모셔달라고 하면서 상여 옆에 끈에

다가 돈을 꼽는다. 이 돈을 나중에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힘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서며 키 큰 사람이 뒤에서 들면 앞에서는 밀려서 가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각 반별로 장례를 치를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운상하는데 동원되는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며, 떼를 조달하는 사람, 진토하는 사람 등 사람이 모자라기도 하여 떼와 진토는 그 전날 하기도 했다.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서 상여 대신에 1톤 화물차로 운구하기 시작했다. 젊은 층의 이농 현상이 심각해



지면서 장례를 치를 인력 부족 현상이 1980년대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부터 일부 트럭을 이용하여 운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상여보다는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었다.

"서상동에서 영장 맬 사람이 없어부니까, 영장만 매면 되는데, 허젠 허면 영장 매는 사람, 떼하는 사람, 진토도 해야지, 경허니간 사람이 모자라, 게난 어떻게냐 하면 떼는 전날 하고, 진토까지,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 할 수 없이 1톤 화물차에서 운구 했주, 경도 했주, 그러다가 이제는 영안실로 간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른 반에서는 안오니까, 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친목이라도 있으면 간다."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다. 공동묘지 운영

2001년에 공동묘지에 있는 안치소를 증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영안실과 빈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수도가 없어서 불편하여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묘지의 영안실과 빈소를 이용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다.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표 3> 성읍1리 공동묘지 장례시설 사용 현황

년도	사망자	매장지		장례식장	
		공동묘지	기타	공동묘지 시설	집 또는 병원
2006년	8	6	2(화장)	2	6
2007년	10	9	1(문중 묘지)	8	2
2008년 10월까지	9	8	1(화장)	7	2

(자료 : 인터넷 사이트 '제주의 마을-성읍리' 게시판에서 편집)

<표3>을 보면 2007년부터 공동묘지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집에서 치르던 상례가 공동묘지로 옮겨서 치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편리하게 상례를 치르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농촌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낳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 탈상 시기의 변화

탈상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단축되기 시작하였다. 삼년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행해졌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년상을 하는 것도 감소되고 있다. 탈상시기의 축소는 농촌사회에서 탈상을 둘러싼 규범과 관습이 갖고 있는 구속력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삼년상을 비롯하여 삭망과 삭제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공동체내의 관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성읍1리 경우도 국가에서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상례를 규제하던 것에 반발하여 전통으로 내려왔던 관습을 유지해 왔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관습과 전통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년상 안한지는 몇 년 안 되수다, 한 오,육년 전부터, 일년 허당 백일로, 요새는 당일로 탈상햐수다, 하루아침에 어서져 부난, 그 이유는 모름주, 허지 말랜 현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허란 말란 소리 어시 어서져 가난, 한 사람 안하기 시작해 가난, 옛날에 천일이 아방 이장혈 때는 소상이랑 하고 대상이랑 허지 말레 막으려 다니고 혈 때주, 그 때는 곱양 허기도 해서, 남군에서 간소화 캠페인 혈 때는 일부러 더 허기도 해서, 하루아침에 대상이 사라지고 지금은 소상도 안하고 백일 탈상으로 변하고, 앞으로는 백일도 안할 수도 이서, 사람이란 게 부모 은공 갚젠 허민 그런 거라도 한번 해 봐야 하는디, 결혼 시켜주면 지네들만 편안하게 허젠 허민 경허민 안되지, 다 죽어 불면 어서질 거지만... ” (송순원씨, 성읍리, 83세)

3. 변화 요인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를 변화시키는 외부 요인으로는 공동묘지의 도입, 행정당국의 가정의례간소화 정책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세대교체에 가치관의 변화, 도시문화의 유입에 따른 농촌사회의 도시화 경향, 전통적인 규범의 약화와 자본주의 문화의 확산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공동묘지 도입, 행정정책의 영향, 세대교체와 가족공동체의 약화를 주요 변수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상례문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공동묘지의 도입

제주도에 묘지를 조성하는 전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밭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풍수사상에 따라 이른바 명당을 찾아서 무덤을 만드는 것으로 한라산 기슭이나 오름 전체가 묘지를 쓰는 대상이었다. 또한 묘지를 쓰고 나서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산자전’으로 삼았으며, 산자전은 문중에서 공동 명의로 하거나 종손이 관리하며 상속하기도 한다.

제주도에 공동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다. 일제는 1912년에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묘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공동묘지는 1930년에 지정되었다. 1960년대 말기부터 묘지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묘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마을마다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정책이 추진된다.⁷¹⁾ 일제시대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 관

71) 식민지시대의 공동묘지 제도의 도입, 1970년대 묘지 정책, 제주도내 마을에서의 묘지 관리 현상을 다룬 연

리를 목적으로 각 마을마다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선면의 경우 성읍1리, 표선리, 하천리, 가시리, 세화리 등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것이 이 시점이다. 공동묘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각 마을마다 명당이라고 불리우는 오름 능선이나 마을 주변, 또는 밭에 묘지를 조성하였다. 표선면은 토산리에 있는 알오름이 명당으로 알려졌으며, 일찍이 표선면 공동묘지로 지정이 되자 인근 표선리, 가시리, 세화리, 하천리에서 토산 공동묘지까지 운상하여 묘지를 만들었다. 토산리 공동묘지가 만장(滿葬)이 되자 표선리 공동묘지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표선리 역시 만장이 되자 남제주군에서 1993년도에 성읍2리에 표선면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동묘지의 도입은 상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장 큰 것은 산담을 만드는 풍습이 사라진 것과 풍수사상이 약화된 것이다.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토산리 공동묘지의 경우 봉분의 크기, 산담 형태, 산담이 차지하는 규모 등 묘지의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공동묘지들은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중형을 맞추고, 사용 공간을 규제하여 정형화하였다. 무덤을 만드는데 있어서 평등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무덤 주위를 특별하게 조성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비석을 차별화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치장을 하지 않는다. 비석의 경우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다. 마을 공동묘지에는 그 마을 출신자들에게만 묻힐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마을 정기총회에서 수입과 지출결과를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묘지정책으로 묘지를 임의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풍수사상이 약화되었으며, 가족묘지 아니면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공동묘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마을내 또는 인근 마을에서 이름난 지관을 청하여 묘터를 보러 다녔다. 살아있을 때 묘터를 미리 정하여 놓는데 미리 산담을 쌓아 놓거나, 가짜 봉분을 만들어서 해마다 벌초를 하며 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풍수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공동묘지는 장례의 풍습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의 공동묘지는 단순히 묘지의 집합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 수도와 전기시설이 들어

구로는 다카무라 료헤이(高村龍平)의 「식민지 조선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묘지문제와 그 전개과정」(교토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3)이 있다.



서고, 식당이 설치되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냉동고를 갖춘 영안실이 설치되는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동묘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있다. 부녀회와 리사무소에서 주관하여 냉장고, 식기류, 가스 및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겨울철에 문상객을 위한 난방 시설도 갖추는 등 공동묘지가 장례식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에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풍습이 이제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환경과 의식변화에 따라 공동묘지에 있는 영안실에 시신을 모시고, 문상객들을 받고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장의사에게 의뢰하여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함에 따라 마을 구성원들이 할 일이 줄어들었으며, 마을 공동의 행사가 친족집단 중심의 행사로 처리되고 있다. 의례의 공간이 집과 마을에서 공동묘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관습이 사라지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관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2) 행정 정책의 영향

(1) 1990년대의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

1960년대 말부터 행정당국에서는 밭에 묘지를 만들고 있음에 따라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밭에 무덤을 만드는 것, 풍수 사상에 따라 무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 당국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

하였다.⁷²⁾ 제주도의 전통 장묘제도인 밭에 무덤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경작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조상숭배의 사상,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하여 이때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관혼상제의 전통의례에 대하여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가정의례 관련 법률을 제정, 공포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⁷³⁾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하여 도시 지역에서는 상례 절차가 간소화되어 3일장이라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지만 농촌에서는 예전의 전통적인 관행이 지속되었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약하였으며, 또한 친족집단과 마을공동체의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치리지는 상례에 대하여 정치권력이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2000년대까지 전통적인 의례에 권력을 행사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글에서는 1997년도에 남제주군에서 추진한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과 그 결과 상례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남제주군은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97년도의 남제주군 군의회 업무 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 ‘건전가정의례’의 주요 내용은 겹부조 안하기, 소기 야제로 치르기, 음식물 간소화, 답례품 안하기 등이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소기를 야제로 간단하게 치르기는 1994년도 이후 정착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사항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⁷⁴⁾ 남제주군은 1997년도에 들어와서 ‘가정의례 간소화’를 주요한 시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당시 두 가지를 중요한 시책으로 선정하였는데, 하나는 ‘감귤 간벌’이며, 또 하나는 ‘가정의례 간소화’이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실천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각각 포상금을 주겠다는 상(賞)사업비 지급 정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997년 1월부터 6월까지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 실적을 평가

72) 제주도 당국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비롯하여 도내 언론사 기사를 통하여 밭에 무덤을 만들고, 풍수사상에 따라 무덤을 만드는 관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73) 국가 정책이 상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김시덕,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역사민속학』 1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송현동, 「근대 이후 상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등이 있다.

74) 1995년도 남제주군 의회 연도보고서.

하여 7월에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제주군의 정책에 따라 남군내 각 마을에서는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을 추진하였는데, 각 마을별로 추진된 간소화 운동 내용은 제주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표4>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⁵⁾

- 이장,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자체 결의대회, 정기총회시 결의
- 청년회, 부녀회 등 상례 가구 입구에서 현수막, 입간판 설치 계도활동
- 혼례집 방문 결의문 나눠주기
- 여성 조문객 개별부조 안하고 조문하기
- 곁부조 안하기
- 읍,면 소재지 거리행진 및 홍보활동
- 청년회 마을 자체 홍보물 배포
- 각 단체 연합명의 결의문 제작 읍,면 소재 가구 배포
- 마을 내부 규약에 가정의례 간소화 미실천시 규제조항 신설 (공동묘지 사용제한, 공공혜택, 용자사업 추천에 불이익 등)
- 관내 마을 연합 간소화 캠페인 결의대회 개최
- 가정의례 비용 절약 마을 기금으로 기탁

<표 4> 1997년도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에 대한 제주일보 기사 목록

일자	기사 제목	지면
97.01.12	곁부조 안하기 실천 안덕면 감산리 부녀회 앞장	남제주군
97.01.15	건전가정의례 주민 실천 낮아, 설문조사 결과	북제주군
97.02.01	건전가정의례 실천 의식 부족, 표선면 조사 결과	남제주군
97.02.13	표선면 가시리 곁부조 안하기 운동 전개	사람과 사람들
97.02.14	대정읍 무릉1리 상주별 개별부조 안하기 운동	
97.02.18	안덕면 화순리 건전가정의례 결의대회 및 캠페인	
97.02.25	한림읍 월림리 가정의례비용 절약 마을기금으로 기탁	북제주군
97.02.27	건전가정의례 결의나선 상모2리 주민 단합 눈길	
97.03.02	한림읍 대림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결의	사람과 사람들
97.03.08	하천리, '상제별 음식 안차리기' 가정의례 홍보물 눈길	
97.03.08	대정읍 개별부조 안하기 등 결의문 채택	
97.03.09	성산읍 고성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캠페인	
97.03.11	대정읍 부녀회, 가정의례 실천 결의	
97.03.11	위미3리, 건전가정의례실천 '일거양득'	
97.03.13	대평리, 위미1리, 감산리, 하천리, 표선면 등 건전가정의례 실천 결의 및 간담회, 중간평가회 등	사람과 사람들

75) 199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임.

97.03.14	하례1리 가정의례 실천 계도	사람과 사람들
97.03.15	남제주군의회, 50회 임시회, 가정의례간소화실천 관련 우수마을 선정 기준 및 추진방법 질의	
97.03.15	마을시상제 기간 조정 필요	
97.03.15	대정읍 동일1리 가정의례실천 간담회	
97.03.16	한림읍 월림리 가정의례간소화 서한 3백부 발송	사람과 사람들
97.03.16	건전가정의례실천 답례품이 문제, 남원읍 설문조사	
97.03.19	동일1리, 대평리 가정의례실천 캠페인	사람과 사람들
97.03.20	표선면, 개별부조 안하기 여성 조문객 영전 배려로 실천	
97.03.22	대정읍, 화환진열 자제, 지도층부터	
97.03.26	신산리, 건전가정의례실천 결의대회	사람과 사람들
97.03.27	상모1리, 가정의례실천 간소화 캠페인	
97.03.27	남원1리, 옹포리 답례품 안하기 실천해 성금	
97.04.01	동일1리, 건전가정의례실천 캠페인	
97.04.02	상모3리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 결의	
97.04.03	하천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결의	
97.04.03	신도1리 가정의례 간소화 내부 규정 제정	북제주군
97.04.03	한림1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캠페인	북제주군
97.04.04	월림리 건전가정의례 정착 계도	북제주군
97.04.09	한림2리 부녀회 가정의례 실천 간담회	북제주군
97.04.09	일과 2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결의	
97.04.12	한림 상명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결의	북제주군
97.04.12	가정의례간소화 운동 대정읍 5개마을 동시 추진	
97.04.13	보성리,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 계도	
97.04.17	'마을 시상제' 평가 불합리	
97.04.22	무릉1리 건전 가정의례 실천 계도	
97.04.25	온평리 건전 가정의례 실천 결의	북제주군
97.04.29	한리1리 건전 가정의례 실천 결의	
97.05.07	상주별 개별 부조는 여전	
97.05.21	표선면 세화2리 건전 가정의례 실천 계도	
97.05.24	성읍1리 건전 가정의례 실천	
97.06.07	서귀포 하효마을회 건전 가정의례 캠페인	서귀포시
97.06.08	토산2리 가정의례 실천 중점과제 선정	
97.06.10	표선면 가정의례 실천 10개 마을 자제 평가회	
97.07.09	마을 규약, 가정의례 간소화 '큰 몫' 가정의례 실천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선정	
97.07.12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용도 제한	

1997년 1월부터 남제주군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각 마을에서도 이장, 청년회, 부녀회 등이 나서게 된다. 특히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은 마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데 좋은 유인책이었다. 이에 따라 각 마을별로 형식적인 결의대회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상례를 치루는 집이나, 혼례를 앞두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현수막을 걸고 결의문 등을 나눠 주는 행동, 혼례를 앞둔 가구주를 불러서 다짐을 받는 것, 마을 규약에 구체적인 규

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나게 된다. 199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일보 남제주군 지면을 보면 거의 매일 간소화 운동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북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도 간소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기사가 나온다. 캠페인 추진의 주요 목표는 백일 탈상을 하는 것, 부조 및 답례품을 없애고, 접대 음식을 간소화하여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2) 탈상기일의 단축과 음식 접대의 변화

캠페인 추진 결과 변화한 것은 백일 탈상으로 상례를 마치는 것과 음식물 간소화로 밥 대신 국수로 접대하는 것이다.⁷⁶⁾ 백일 탈상은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에 개별 가정에서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행하는 풍토로 정착되었으며, 밥 대신 국수로 손님 접대를 하는 것도 제주도의 동남부 지역(서귀포에서부터 성산읍까지)에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물론 행정 당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마을이나 개별 가정에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 밥 대신 국수로 문상객들을 접대한다고 할 때 개별 가정에서는 반발을 하였다. 마을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찾아온 문상객들에 대한 접대가 소홀하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서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마을에서도 커다란 부담을 갖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즉, 다른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상호 호혜주의적인 의식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개별부조 안하기, 답례품 주지 않기는 캠페인 기간 중 일부 시행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지속되었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반강제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캠페인이 종료되고 그 이후 반강제적인 분위기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지속된 것이다. 오래된 전통과 관습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일시적인 관 주도의 캠페인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캠페인의 영향으로 달라진 것은 탈상 시기의 단축과 음식 접대 품목의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캠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탈상 시기는 1970년대 이후 기준

76) 국수를 대접하는 것은 남제주군의 일부 마을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가정의례간소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의 삼년상 문화가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여 일년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세대가 바뀌면서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의 약화, 국가 공권력의 상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유교망국론과 같은 전통 사상 배척 풍조,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한 농촌사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음식 접대에서 기존의 밥을 국수로 대체한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전에 상례에 메밀로 만든 국수를 대접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 밥으로 문상객들을 접대하고 있다. 밥 대신 국수로 변화한 것은 낮은 수준의 변화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손님 접대의 핵심인 음식은 여자들의 몫이다. 음식을 잘 차려서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고 나쁜 평가를 받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농촌사회에서 직접적인 대면관계와 일상적인 친밀관계가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는 상호 관계에 감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집안에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음식물 및 답례품 제공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또한 부조금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음식품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캠페인 초기에 밥 대신 국수로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변화가 가능한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캠페인에 일정 부분 마을에서 호응을 해야 하는 것과 다른 마을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또한 국수로 대접하는 것은 일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으로도 중요하다. 국수를 대접한다고 해서 크게 욕을 듣는 것도 아니며, 밥을 차리게 되면 반찬도 많아야 하나, 국수를 하게 되면 반찬가짓수도 적어지고 일처리가 편리하게 된다. 특히 음식을 담당하는 여성들에게서 국수로 접대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국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국수는 송택근 면장 있을 때부터 시작했지. 국수를 주기 시작할 때 반발이 있었지. 외방 사람에게 어떻게 국수를 주느냐고 반발이 있었지, 그런데 서귀포 가서 국수를 먹고 오니까 우리도 국수를 주는 게 부담이 없었지, 결혼식 때 언제 국수 먹느냐 했는데, 상가에서는 국수를 주지는 않았다. 여자들이 반발이라 처음에 국수를 허는 게, 아까 그런 이유로 반발했는데, 그 시대가 지난 탓인지, 지금은 간소화를

여자들이 앞장선다. 지금도 남아있는 게 답례품, 그것도 몇 번 시도했는데, 받은 게 있는데 어떻 안해져, 예전에 서귀포에 가면 냄비, 내복, 무신거 여러 개 줬다고, 그때 밀감 시세가 좋을 때만, 여기는 그런 거 어시난 기껏해야 풍풍, 생활 품목으로 주었다.”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3) 캠페인 실패의 원인

캠페인의 주요 대상 중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일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의 표선면내의 각 마을의 대응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변화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표선면의 중심지인 표선리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인근 마을보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천리, 신천리, 성읍리, 가시리, 세화1리, 토산리 등 인근 마을에서는 표선리에서 생활필수품 구입을 비롯하여 교육 및 의료, 복지 등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 주변에 제주민속촌박물관과 해비치호텔 및 해비치콘도, 양식장 등 많은 사업체들이 있으며, 독립적인 상권이 존재하고 있다. 외지에서 들어 온 구성원들도 많으며, 농업과 상업이 공존하는 경제적 기반, 조직 연대감의 약화, 다양한 종교의 침투 등으로 행정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다른 마을에 비교하여 표선리에서는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는 마을의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마을내의 규제력이 약화되고 익명성이 향상되는 도시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는 인근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을간 상호 교류, 친척 거주 등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마을에서는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개별부조, 답례품을 안하는데, 표선리에서는 예전과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한 교환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상호 평등한 교환관계가 성립되어야 동시에 변화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시도되는 변화가 전체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마을 단위에서는 집단 의식 형성되어 있어 행정 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 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호응을 해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체가 어디고,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마을 주민들은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캠페인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개별부조와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이다. 개별부조는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부조는 엄격한 상호교환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답례품도 안 주게 되면 인심이 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의와 인심을 따지는 문화 풍토가 짙게 깔려 있어서 답례품 역시 지속되었다.

캠페인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여성 조문객이 영전에 배례하기이다. 그동안 제주도의 문상 풍습은 여성은 상가에 가더라도 영전에 배례를 하지 않으며 별도로 상제들과 만나서 인사를 한다. 하지만 캠페인을 하면서 여성 조문객들도 남성과 평등하게 영전에 배례하는 것을 권장하였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며, 여성들도 그동안의 문화 풍습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영전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남자 상제들의 몫이며, 여자 상제들은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성 역할 분담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문상을 가더라도 영전에 배례를 하고 남자상제들은 만나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은 별도로 여자 상제들에게 인사를 하는 풍습이 고착화되어 있다.

3) 세대교체와 가족공동체의 약화

상례문화 변화의 한 요인은 농촌사회의 세대교체로서 특히 탈상기간의 단축을 주도하고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전에 삼년상을 당연하게 치렀던 세대들이 현재는 70대 이후의 연령층이 되었으며, 상례에서 중심이 되는 50대와 60대의 연령층에서는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세대 간의 의식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50대층 이상에서는 전통적인 조상숭배와 의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갖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0~40대 연령에서는 이러한 조상숭배의 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조상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영혼과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도 믿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농촌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크며, 이에 따라 50~60대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따르고 있다.

인식의 변화는 전통으로 이어져 온 상례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요새는 귀신이 없던 생각허난 상을 치를 때도 제 멋대로 하는 거라, 당일 탈상도 하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헌 거다. 남원리 누구네는 며느리가 시어멍 죽영 그 날 탈복해부런, 며느리가 탈복허켄 허연...” (김OO씨, 토산리, 85세)

근대화 교육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이 농촌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젊은 계층의 세대들이 농촌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읍, 면소재지와 같은 중소도시나 제주시와 같은 대도시로 나감에 따라 이제까지 전승되어 온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식세대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제사 지내는 시간도 저녁 10시 이전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 등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대교체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평등화 현상도 상례문화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례를 치르면서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동원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일은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들의 결정권이 높아지면서 편리하게 일을 치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에서 직접 의례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농촌 여성들도 다양한 직업 또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현상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 달에 두 번 지내는 삭망제가 한번으로 단축되고, 현재는 그것도 쉽게 준비하지 못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옛날에 삼년상 하고 상식하고, 한 달 두 번 삭망하고, 요샌 삭망 안 해도 아무 충도 안하는디, 우린 상제들 어시난 나만 죽어나란, 우리는 정말로 산 생각허민양, 옛날엔 법이 이성 옛날 어른들이 경허랜 해부난, 그걸 안하민 동네사람들이 얼마나 뉘랜 험니까, 경허난 상식을 다 해수게, 큰 시아바님은 칠월 여드레날 돌아가난, 셋어머니는 정월 여섯날 돌아가난, 상을 두 개 뉘, 상식 두 번 험디다. 우리 아방 죽어네 상식행 소상 넘영 구월달에 돌아가난, 몇 달 여성 동짓달에 대상할거난 상 두 개 놓양, 우넉거리 하르방 산 때난, 돌아가난 거기다 상을 놓고, 우리 아방은 삼년을 허고, 하르방은 소상 끝난 일본서 큰아방 큰어멍 오난, 소상 끝나난 모성 가켄 허영 들양가부런, 옛날에 삭망할 때는 표선까지 가서 고기영 떡이영 사그네 등에 지영 토산까지 걸영와그네 음식차령 제를 지내수다.” (김오생씨, 토산리, 77세)

젊은 세대의 이농과 농촌 마을의 고령화 현상,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로 인한 국제 결혼 등의 변화가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와 가족 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유교 의례는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현대 농촌사회에서는 친족집단의 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 공동체의 약화는 자연히 의례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친족제가 유교식 상·제례와 통합되어 나타났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가족, 친족집단의 약화가 상·제례 문화에도 반영되어 의례의 약화와 문화의 변동을 낳고 있다.



IV. 상례문화 변화의 의미

1.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그 의미

1) 장례 주관자의 소멸

농촌사회 상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안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천리와 성읍1리, 표선리의 경우 현재 60대 이상 연령에서 1명씩 남아있을 뿐이며, 실제로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안하고 있다. 이들 장례주관자들이 일을 배우는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배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수받은 것이다. 마을 마다 목수라고 불리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의례를 전수 받고 직접 장례를 주관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여 실습 하면서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배웠으며, 당시에는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단지 염, 습 절차뿐만 아니라 관을 짜는 것, 장지에서 개광, 하관, 봉분 쌓기, 산담 조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례를 치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실제로 장례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농촌 마을 어디에서나 장의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도 농촌사회에서 장의사들에게 맡겨서 장례를 치름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또한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전승이 끊기고 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더 이상 농촌사회에서도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장례 주관자가 사라지고 전승이 끊김에 따라 장례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장례 주관자가 참여할 때는 직접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상제들을 지도하여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과정을 상제들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상제들이 직접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이 가슴에 간직하게 하고, 망인을 정성을 다하여 모심으로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기도 한다.⁷⁷⁾ 또한 상제들이 직접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에 참여하여 망인을 접함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경험과 느낌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고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표 5> 장례 주관자 현황

구 분	하천리	성읍1리	표선리
이 름	송OO씨 (1943년생)	현OO씨 (1926년생)	금OO씨 (1926년생)
연 령	65세	82세	82세
직 업	농업	농업, 목수	농업
장례 일을 시작할 때 연령	25세	35세	33세
동기 및 배경	일을 하면 운수가 좋다고 하여 시작함	목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움	자발적인 의사로 배우게 됨
전 수 자	마을 선배	선배 목수	마을 선배, 목수
학습 방법	직접 의례에 참여하여 전수받음	직접 의례에 참여하여 전수받음	직접 의례에 참여하여 배웠으며 예서를 참고함
현재 활동	가까운 친척 장례를 처리함	하지 않고 있음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장의사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일을 장의사들이 처리하고 상제들은 단지 관찰자로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제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관찰만 할 뿐이며, 그로 인하여 망인과 상제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상제들도 시신 처리 방법과 절차를 모르고 있으며, 그 절차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 예전에는 장례도 일상의 영역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여 치러지는 행사였으나, 지금은 장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의례의 절차와 의미를 모르고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의례의 축소와 생략이 발생하며 또한 장의사들이 주관하면서 지역에 따른 특성도 없어지고 있다.⁷⁸⁾

77) 하천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장례 주관자인 ‘송OO씨’가 지도하여 상제들이 직접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78) 현재 제주도내 장의사들은 일정 지역을 독점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경쟁을 하고 있다. 표선리의 경우 기존의 장의사 외에 모슬포 지역의 장의사가 2005년도부터 진출하여 현재 장의사가 2곳이 있다.

2) 탈상 기일의 단축

장의사들이 장례를 주관함에 따라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던 의례들이 사라지고 있다. 개떡, 충호법, 초혼 등 가족이나 친척들이 하였던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유교의례에 있어서도 성복과 일포, 발인 등과 같은 중요한 절차만 남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또한 탈상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의 의례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례의 축소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례에서 ‘시신처리 의례’와 ‘상제를 위한 의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영혼을 위한 의례’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삭망제와 같은 것도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 현상은 조상 숭배 사상을 의례로 구체화한 유교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 기반이 약화되고 현대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전통상례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모든 상례를 마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탈상 의례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문상을 받는 풍습이 지속되었다. 1996년도에 북제주군에서 실시한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⁷⁹⁾에 의하면 ‘소기를 야제로 봉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주위의 체면(27.6%), 망인에 대한 불손행위(27.6%), 집안 어른의 반대(24.9%), 남이 하니까(19.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겉부조 안하기 미실천’ 사유에 대하여는 남에게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83%)와 주위의 체면(16%)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조사 당시인 1997년만 해도 농촌사회에서 소상 또는 대상인 탈상 의례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현재 탈상 의례를 공개적으로 하는 집은 거의 없다. 하천리와 성읍1리, 표선리의 경우 소기를 대부분 가까운 친족만 모여서 야제로 축소하여 지내고 있다.

또한 탈상 시기도 급속하게 단축되어 일년상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100일 탈상 아니면 49재, 당일 탈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탈상 의례를 하더라도

79) 제주일보 1997년 1월 15일자 기사. 199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6개 마을 주민 48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음.

도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및 마을 구성원들도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현재는 탈상 의례에 참석하는 의무와 부담이 사라졌으며, 참석하지 않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또한 소기 이전까지 지내는 삭망제에도 참석하는 친척이 거의 없는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탈상 시기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중이나 친척의 영향력보다는 상제들의 생각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탈상 시기가 단축되고 있는 것은 농촌사회가 외부 사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탈상 시기의 단축이 농촌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쳤으며, 마을 구성원 사이에서 한 집에서 탈상 시기를 단축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마을 내의 다른 집에서도 탈상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3) 공동체 규범의 약화

장례를 치르는 날 마을 구성원들의 노동을 빌리지 않고 장례업자에게 모든 일처리를 맡김에 따라 마을 내에서 장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지에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으며, 서로를 구속하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노동과 협조를 받지 않고 전문적인 장례업자를 통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참여자에서 방관자로 신분이 변동하고 있다. 장례 날 장지에 쫓아가도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단지 음식만 먹고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장지에 쫓아가는 것은 상제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심리적인 의무감과 부담감을 갖고 행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구속하였던 규범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제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장지에 쫓아가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이 끝나면 일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으면 상제들이 고맙다고 큰 절을 하는 풍습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장의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다.

전통사회에서 장례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과 참여가 필수적이었으며, 마

을 공동의 행사로 치르면서 구성원들의 단합과 협력, 의무와 강제를 부여하면서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쉽게 노동력과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더 이상 마을 구성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농촌사회의 고령화 현상, 젊은 세대의 부족 등의 현상은 이러한 공동체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상호 교환주의와 화폐 중심의 거래관계가 농촌사회에도 침투하여 상호 작용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사회에서 삼년상을 치르지 않으면 같은 마을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유교 전통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유교는 농촌사회의 질서와 전통을 지속시키는 기준이자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기준이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삼년상 문화가 사라져 버렸으며, 노인 세대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 자신들이 삼년상을 치르면서 고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관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관념이 보편적인 인식이 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 상례는 마을 내의 규범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 고리였다. 하지만 상례의 축소와 변화는 마을 내에서 상호간에 대한 규범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다.

4) 풍수사상의 약화

정시의 역할 축소와 풍수사상의 약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묘지를 사용함에 따라 별도로 묘터를 보지 않게 되어 정시들의 장례 과정에서 정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공동묘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입관 절차를 끝내고 상주와 정시가 묘지를 찾기 위하여 며칠 동안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 납골당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묘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또한 기존의 묘지를 풍수지리에 따라 좋은 곳을 찾아서 이묘하는 사례도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에 별초 문제 등 효율적인 묘지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묘지를 천리하거나 화장하여 납골당 또는 납골묘로 만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시의 역할 축소는 풍수사상의 약화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정시는 묘터만 보

는 것이 아니라, 관이 문힐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묘터는 주검의 집이다. 삶의 집인 양택의 위치와 방위가 그렇듯이 주검의 집인 음택의 위치와 방위가 후손들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풍수사상이다. 하지만 정시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동묘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방향 관념도 더 이상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풍수사상은 유교의 조상숭배와 배치되는 것이다. 유교의 조상숭배는 조상의 후손으로 자손이 존재하는 것이며, 조상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풍수는 이러한 효도와는 상관이 없다. 조상이 묻혀있는 땅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으로 조상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땅의 기운이 좋으면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합리주의와 이성애 따른 사고를 중시하는 근대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는 풍수사상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묘자리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공동묘지에 묘지를 만들면 자손들에게 안 좋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으로 정착되어 있다.

5) 장례 놀이, 전통 음식의 소멸

상례문화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놀이문화이다. 상여소리, 달구소리, 사또놀이⁸⁰⁾ 등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던 놀이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상여소리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전승이 끊긴 상태이며, 달구소리는 아직도 일부 지역(대정읍, 안덕면, 구좌읍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행해졌던 사또놀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놀이문화들은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이 유교와 무속의례만이 아니라 민속의 건강한 심리를 반영하여 죽음을 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상여소리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상제, 후손, 이웃에게 당부, 인생 허무라는 소감, 그래도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수용, 죽은 자에 대한 위로 등이 있

80) 오문복의 『풍천약사』(풍천국민학교, 1987)와 김영돈, 고광민의 「제주민의 통과의례」(『제주의 민속 I』 제주도 별채, 1993)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다. 달구소리 역시 봉분을 쌓는 노동요가 아니라 의식요로서 망자와 상제들을 위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은 각 마을마다 상여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어받을 세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소멸되어가고 있다.

음식의 경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복제가 끝나면 필요한 음식을 자식들이 분담하기도 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돼지고기와 떡이었다. 떡의 경우 시루떡, 솔번, 절번, 인절미, 중계, 약계, 과절 등 일곱 가지였으며, 자식들의 수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었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 날에 보편적인 떡은 ‘돌래떡’이지만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다. 1950년~1960대만 해도 운상을 하고 나면 ‘부역부침’이라 하여 돌래떡 2개와 오메기술 한 잔씩을 돌렸으며, 점심을 먹을 때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이고 가거나, 상여에 걸었던 ‘다포’를 길게 펴 놓고, 그릇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2~3명분의 밥을 퍼다 놓고 바육꼬지에 돼지고기 석 점을 꿰어 하나씩 나눠주었다. 점심 식사는 나이 많은 어른 순서를 지켜서 했으며, 사용했던 다포는 상가에서 마을에 바쳐서 마을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통례였다.⁸¹⁾ 또한 모든 일이 끝나면 필역이라 하여 상여를 운반한 사람들과 복친들에게 ‘등절미’라 하여 메밀이나 쌀로 만든 반달 모양의 큰 떡을 세 개씩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⁸²⁾

이러한 풍습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하였다. 장례날에 떡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떡이 아니라 떡집에서 만든 인절미와 같은 떡이 대부분이며, 점심 식사 역시 공동묘지에 만들어져 있는 식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농촌이 도시문화를 쫓아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2. 지속되고 있는 현상과 그 의미

1) 의례 공간의 변화

81) 가시리 향토지, 『가스름』, 1988, 191쪽~192쪽.

82) 신례2리 향토지, 『공천포지』, 1994, 178쪽.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농촌사회에서도 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내의 농촌마을에서도 규모가 큰 지역은 장례식장이 만들어져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장례식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병원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다. 공동묘지의 도입과 죽음에 대한 전통 사상의 약화는 장례를 치르는 사회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을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도 집이 아니라 편리하게 손님을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선호하고 있다. 표선면의 경우 하천리, 성읍1리 등의 마을 공동묘지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표선리는 최근에 리사무소에서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준공하기도 하였다. 표선리의 자금으로 건축하였으며, 장례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표선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장례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표선리사무소에서는 전문 업자에게 장례식장을 대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집은 태어나고 죽는 공간이며, 자신이 태어난 안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집은 신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가신 신앙의 전통이 있으며, 이들 신들이 집과 가족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가신 신앙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해마다 지내던 문전철같이, 문전코시와 같은 의례가 농촌사회에서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소는 세대교체에 따른 영향이 크다. 40대 ~ 5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무속신앙에 근거한 의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며, 부모 세대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으려는 인식들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을 타지 않으려는 의식은 지속되고 있다. 집 밖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인식이 강하게 전승되고 있다. 또한 집에서 운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을 확인받은 다음 장례시설로 옮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죽음을 ‘부정’⁸³⁾으로 받아들이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가져온 부

83)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다. 숨이 멈춘 상태인 시신은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며, 시신을 접촉하거나

정으로 인하여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의식이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대 농촌사회에서 유교가 더 이상 관습과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유교 의례의 전통이 존속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에 있어서 시신 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따라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식이 유교 의례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전문 장례식장으로의 공간 이동은 부수적으로 또 다른 현상을 낳고 있다. 마을 밖에서 장례를 치름에 따라 밤을 새면서 상가를 지켜주던 풍습도 사라지고 있다. 상가에서 밤을 새면서 ‘넉동배기’(웃놀이)를 하면서 돈놀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쌓였던 감정이 싸움으로 번지는 등 상례와는 별도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는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축소되고 있기도 하다.

2) 택일 전통의 지속

풍수사상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택일⁸⁴⁾은 아직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사회 뿐만 아니라 도시(제주시)의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택일은 아직도 의례를 치르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례를 치르는 날짜와 장례 기간 동안 중요한 의례를 치르는 시간의 중요성은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장소는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를 이용하더라도 택일에 따른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과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택일을 할 때는 마을 내에 있는 지관 또는 주변 마을에 있는 지관을 찾거나, 제주시 내에 있는 철학관을 찾아서 한다. 택일을 통하여 날짜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처리하는 의례를 집행하면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이 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날짜와 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직접 보는 것은 금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4) “택일은 음양서의 일종인 『천기대요(天機大要)』의 규정을 따르는데 택일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관을 짚 날자, 짜기 시작한 시간, 시신이 있는 집에서 어느 쪽 방위에서 할 것인가와 입관할 시간, 성복 시간, 일진에 따라 부딪치는 나이(입관할 때 보지 못하는 나이), 출상하는 날에 충(沖)이 되는 생갑(生甲 : 生年), 출상할 날자와 출상할 방향, 매장 일자, 하관 전까지 상여가 머무를 방위, 흙을 파올 방위”등을 결정한다. 오문복, 「민속」, 『남제주군지』 III권, 남제주군, 2006, 760쪽~761쪽.

나쁜 영향이 생길수도 있다는 철저히 현세기복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 세계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힘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의례를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죽어서 땅에 묻히는 시간이 저승살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관념도 있다.⁸⁵⁾ 따라서 망자를 모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망자를 모시는 시간이 역학에 따라 좋은 날과 좋은 시간을 골라서 행하는 것은 자식들의 정성을 다해 망자를 모시지 않아서 망자의 영혼이 원한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3) 화장의 증가

상례문화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국가권력이다.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의 불교식 상례문화를 탄압하여 유교식으로 상례를 정착키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공권력을 동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공동묘지 조성을 비롯하여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전통상례를 탄압하였다. 해방 이후 정부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상례를 비롯한 유교식 의례를 탄압하고 기존의 의례를 수정하여 새로운 의례절차를 확산시켰다. 그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3일장이라는 만들어진 전통이 뿌리를 내렸으며, 화장 문화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시대의 장례정책은 불교식 화장을 금지하고 유교식 매장을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고려시대의 장법은 화장을 하고 나서 뼈를 땅에 묻는 2차장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따라 화장은 조상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관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화장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는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유교식 상례문화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장법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화장 금지 정책이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정치적 목적이라면, 현재는 토지 이용이라는 사회경제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조상숭배 사상의 약화도 이러한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 묘지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화장이 증가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⁸⁶⁾ 납골당과 납골묘의 확산도 농촌사회에

85) 임재해, 『전통상례』, 91쪽.

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화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로 화장 유연하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4) 부조와 답례품의 지속

1950년대 이전에는 부조문화가 거의 없었다. 일제 강점기와 4.3항쟁 등을 겪으면서 생산력의 약화, 생산 활동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부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물품으로 하였다.⁸⁷⁾ 또한 잉여생산물이 부족한 경제 현실에서 개별부조 문화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조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특히 감귤 농사를 통하여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부조내용과 규모도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바구니에 보리쌀, 쌀, 팥 등 농사지은 것을 담아서 부조하면 부조를 받은 쪽에서는 빈 바구니에 떡, 고기, 밥 등을 담아 돌려주었다. 특히 상례의 경우 떡이나 빵으로 부조하는 풍습이 많았다. 이러한 부조는 제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조를 받은 쪽에서는 항상 답례로 먹을거리를 일부 나눠주었다. 떡, 고기, 밥 등을 바구니에 일부 나눠 담아 답례를 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먹거리가 흔해지고, 위생 관념이 강해지면서 먹거리로 답례하는 것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생활필수품(치약, 비누, 세제 등)으로 변화하게 된다.

부조와 답례품은 상례를 비롯한 혼례, 제사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일종의 거래관계이지만 내면에는 관계의 친밀도가 작용하는 복잡한 문화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받았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관습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주시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개별부조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개별부조가 중요한 관습으로 행해지고 있다. 제한된 사회적 공간에서 기존에 형성된 인간관계의 밀도가 개별부조라는 전통을 지속시키고 있다.

86) 2008년 9월 11일자 제주일보 기사에 의하면 2007년도 제주도의 화장율은 41%로서 2006년 38.2%보다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87) 서귀포시 토평마을 향토지(2004년)에도 “1950년대까지는 남자 부조금으로는 생선 말린 것, 만장, 양초, 소주 1되, 여자는 보리쌀 2되, 좁쌀 등 현물로 부조를 했다”라고 나와 있다.

전통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헌 부조는 사라지고 새 부조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세대가 변하면서 예전에 했던 부조는 상대방이 죽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롭게 주고받는 부조가 생긴다는 말이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 부조는 물품이 아니라 화폐로 통일되고 있으며, 부조금의 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관련이 있으며, 물가 수준에 맞춰서 부조금의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도 부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조금으로 지출되는 항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상가에 부조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제들은 이제까지 지출된 부조금을 일시에 되돌려 받게 된다. 이러한 부조문화는 농촌사회에서 ‘보험과 적금’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을 유지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부조를 통하여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를 확인하고, 또한 공동체내에서 객관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V. 결 론

제주도에 유교 상례문화가 들어온 것은 조선왕조 초기 15세기부터이지만, 하층 계층에게까지 전파되어 정착된 것은 조선왕조 후기 18세기 또는 19세기부터라고 하겠다. 유교 문화는 제주도의 환경과 만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무속신앙에 뿌리를 둔 기존의 토착문화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배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 특유의 역사와 환경과 만나면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상례문화 역시 부분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상례에 다양한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으며, 일포가 중요한 날이며, 무속의례가 행해지고 있는 것, 일접과 개별부조 등은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전통사회에서 관혼상제의 전통 중에서 상례는 다른 의례보다도 반드시 절차와 관습을 지켜야 하는 의례로 전승되어 왔다. 상례는 가족 및 친족집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의례였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유교 상례가 가져왔던 친족공동체 유지, 마을 공동체 규범으로서 해왔던 역할과 기능들이 축소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탈상 시기의 변화로서 삼년상은 이미 사라졌으며, 일년상, 백일, 49재 등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러한 탈상 시기의 단축은 조상숭배 사상의 약화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유교 상례의 절차와 관습을 준수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3일장 문화와는 달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에 따른 상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농촌사회에서의 상례문화의 특성과 함께 변화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의례와 함께 무속의례, 민간신앙에 근거를 둔 의례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민간의 속신으로 전승되어 온 것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귀양풀이와 같은 무속의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유교 상례가 들어왔지만 기존의 뿌리 깊은 무속의례가 민간에 전승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절차는 유교 의례를 따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민간 신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의 형식(의례절차)과 무속의 내용(영혼과 저승세계에 대한 사

유체계)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농촌사회 상례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행정당국의 정책(공동묘지 도입, 가정의례 간소화)과 농촌사회 내부의 친족 및 가족공동체의 약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공동묘지의 도입은 풍수사상의 약화, 의례공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의 영향으로 탈상시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화장의 증가 역시 행정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유교 상례가 전통사회에서 수행해 왔던 농촌공동체 통합, 친족구조의 재생산과 같은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축소와 함께 약화되고 있는 조상 숭배사상은 현대의 상례를 시신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의례 보다는 살아있는 상제들을 위한 기복 의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농촌사회 상례문화에서 축소되고 있는 현상들은 장례 주관자의 소멸, 탈상 기일의 단축, 풍수사상의 약화 등이다. 장의사의 농촌 침투, 공동묘지의 확산 등은 전통적인 상례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조상숭배 사상, 풍수사상의 약화도 상례문화의 변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영혼'과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이 약화되고, 특히 조상신의 보살핌이라는 신앙보다는 현대 과학문명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상례가 수행해왔던 농촌사회의 규범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사라지고 있다.

다섯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들은 의례공간의 변화, 택일 전통, 화장, 부조와 답례 품 등이다. 집에서 치르던 장례가 공동묘지에 설치된 장례시설로 옮겨지고 있다. 공동묘지가 없는 마을에서는 제주시의 병원이나, 인근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례공간의 변화는 집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변화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집 안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음으로써 죽음이 가져다 주는 '부정'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자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제주도 농촌사회에서의 상례문화가 어떻게 변천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상례문화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권력은 상례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농촌사회의 보수성은 그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상례와 상례문화가 지속되어 왔다. 행정 당국에 반대하여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를 지켜내는 현상도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상례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농촌사회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농촌공동체의 해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세대의 교체, 전통적인 가치관과 관습의 변화, 기존의 전통의 약화, 농촌문화의 도시화 경향 등 1990년대 이전의 농촌사회와 2000년대의 농촌사회는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농촌사회 상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대 제주도 농촌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상례와 상례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상례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의례이기 때문에 영혼관과 죽음관, 타계관의 문제가 중요하다. 제주도 문화에서 이러한 관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구조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전통의례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유교 의례와 무속 의례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역시 보완되어야 할 점이며, 특수한 장법에 대한 사례연구, 풍수 사상의 변화 과정 역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제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와 농촌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가시리 청년회, 『가스름 연구』, 1994.
가시리 향토지, 『가스름』, 1988.
고성리 향토지, 『고성리지』, 1993.
『남제주군 의회 연도보고서』, 1995
『남제주군지』 III권, 남제주군, 2006.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3호, 문화재관리국, 1966.
신례2리 향토지, 『공천포지』, 1994.
오문복, 『풍천약사』, 풍천국민학교, 1987.
위미리 향토지, 『위미리지』, 위미협동조합, 1991.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토평리 향토지, 『토평마을』, 2004.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문화재관리국, 1974.
하천리 향토지, 『넷끼』, 1995.

2. 단행본

- 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예절』,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8책, 198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2003.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 우용출판사, 1977.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김유정·손명철, 『제주의 무덤』,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2007.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국보존회, 1998.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II), 상례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터너, V., 박근원 옮김,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반겐넵 A. 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이광규,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1985.

이기욱,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2005.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8.

장철수, 『한국의 전통상제』, 집문당, 1997.

-----, 『옛 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5.

지재희 해역, 『예기 상, 중, 하』, 자유문고, 2000.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9.

-----, 『남국의 민속: 제주도 세시풍속』, 교학사, 1976.

최길성, 『한국 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현승환, 『제주인의 일생』,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2007.

제주도, 『제주의 민속 V』, 1998.

3. 논문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고부자,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4.

-----, 「제주도민의 호상옷과 내세관」,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구회, 1984.

-----,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 『제주도연구』 제2집, 1985.

고정하, 「제주도 상·제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의 교육적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분재기연구」, 『탐라문화』 24호, 탐라문화연구소, 2004.

금장태, 「조상숭배의 유교적 근거와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김기덕, 「한국의 매장문화와 화장문화」, 『역사민속학』 1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김문택, 「상례와 시묘살이」,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1988.

- 김봉옥, 「이형상 편저 남환박물 2」, 『제주도』 통권 제93호, 제주도, 1993.
- 김시덕,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 『민속학연구』 7집, 국립민속박물관, 2000.
- , 「신주 유무에 따른 상례의 차이」, 『역사민속학』 제1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 ,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역사민속학』 1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 다카무라 료헤이, 「식민지 조선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묘지문제와 그 전개과정」, 교토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3.
- 문애리, 「유림장의 의례절차와 사회적 의미」, 『역사민속학』, 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 박종오, 「진도의 초분」, 『남도민속연구』 21집, 남도민속학회, 2006.
- 송재용, 「의례와 경제」, 『비교민속학』 27집, 비교민속학회, 2004.
- 송현동,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
- 안호용, 「유교의례의 보편화와 전통사회의 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2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 「조선전기 상제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염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이두현, 「장제와 관련된 무속연구」, 『문화인류학』 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4.
- 이상철, 「제주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동」,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동』, 백산서당, 2003.
- 임재해, 「장례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비교민속학』 12호, 비교민속학회, 1995.
- 장주근,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 ,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 장윤식, 「신앙체계로서의 무속」, 『한국문화인류학』 1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4.
- 장하열·강성경, 「한국의 전통상례와 죽음관 연구(1)」,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 전경수, 「관혼상제의 전통만들기」, 『역사민속학』 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정승모, 「제주도 하효리 상장구 관련 성책계문서 해제」, 『역사민속학』 제1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 정승모, 「상·장제도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 『한국 상장례』, 국립민속박물관, 1990.

- 정종수, 「우리나라의 묘제」, 『한국상장례』, 국립민속박물관, 1990.
-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제사」,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조혜인, 「조선 향촌질서의 특성과 그 정착과정」,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최근덕, 「조상숭배와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 최길성, 「풍수를 통해 본 조상숭배의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1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4.
- 최래옥, 「민속 신앙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죽음관」, 『비교민속학』, 17집, 비교민속학회, 1999.
- 표인주, 「호남지역 상장례와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관」(『한국민속학』 32호, 한국민속학회, 2000.
- 허용호, 「전통 상례를 통해서 본 죽음」, 『한국고전연구』, 6호, 2000.
- 현용준, 「제주도의 상제」,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승환,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Abstract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funeral-rite's culture in Je-Ju rural society

Funeral-rite includes socially, religiously important meanings and has practiced diversely in modern society. A rural society has inherited in traditional funeral-rite, while a city has practiced funeral ceremony using a funeral company after 1970s. The religious and social functions of traditional funeral-rite have already disappeared in the city. As people use professional funeral-system that is not the same as rural community's funeral-rite to work with the members of community, the forms and meanings of funeral-rite have been changed. Also, funeral-rite in rural society has forfeited the function to integrate a community. The funeral-rite in traditional society has performed as the role of norm to keep a kinship-community but this has been reduced in modern rural society.

The idea of ancestor-worship has been weakened. Also, the maintenance of the kinship-community and the order of the reestablishment in which traditional funeral-rite play a role have been abated. The phenomenon of deconstructing a community, which modern rural society has gone through makes the integrative function which traditional funeral-rite has acted weak in the community. The cultural change of the rural community results from the phenomenon of young-generation moving from rural into city, the debilitation of traditional values, the changes of custom which keeps the unity of rural community and the penetration of the rural community by the urban-culture.

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funeral-rite's culture change and the social

meaning of this change in the procession to destruct modern rural community. Funeral-rite's culture in Je-Ju has changed rapidly in 2000s. The government's power strived to alter funeral-rite's culture after 1960s but the conservativeness of the rural society did not accept the change. Even though the traditional funeral-rite and its culture had maintained, it has been transformed fast in 2000s. The change starts from inside funeral-rite culture by outside influences. A shift in generation to keep a rural community,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norm, the decline of existed tradition and the trend of urbanization in a rural culture have renovated briskly the rural society in 2000s. The aspects of these changes have affected largely funeral-rite's culture.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funeral-rite's culture has mingled Confucian ceremony with shamanistic ceremony. Confucian culture has transmitted in traditional society. After that it encountered with the deep-rooted shamanistic ceremony in Je-Ju. As a result, Confucian culture coexists with shamanistic ceremony.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funeral-rite in Je-Ju is the coexistence of Confucian ceremony and shamanistic ceremony. The formal procedure of funeral-rite's culture follows Confucian ceremony but folk beliefs are working in the contents. Confucian form (the procedure of ceremony) and shamanistic contents (the thoughts of the soul and another world) complements each other.

Second, the functions of funeral -rite such as the integration of the rural community and the reproduction of kinship structure have disappeared in the traditional society. As a result, the role and function of funeral-rite that performs as a rural community's norm has been diminished.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traditional society participated in funeral-rite and offered their labors to the community. However, the functions of funeral-rite in modern society have been decreased taking over

it to a funeral company. Funeral-rite transforms from community ceremony to family ceremony.

Third, ancestor-worship religion that focuses on ancestors' cares has been weakened. Instead of this rational thought occupies in a main stream by means of the modern scientific civilization. As ancestor-worship thought has weakened, funeral-rite has mainly practiced such as the ceremony for handling corpse and for the remnant people. Also, the term of funeral-rite is reduced and cremation is increasing by family rite-simplification policy that the government makes. The period of funeral-rite has been reduced from Three-year funeral to 100-day funeral, 49-day expiration of the period of mourning.

Fourth, the acceptance of a public cemetery makes traditional theory of configuration of the ground depreciatory. Custom to find a propitious site for a grave diminish and it is established for people to use a public cemetery. Also, the place of funeral ceremony has changed from house into the funeral system of the cemetery. The communities that have no public cemetery make the phenomenon of using a hospital or near funeral ceremony places increasing. The phenomena of using a public cemetery and preferring the convenient funeral-rite transforms existed funeral-rite in which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ipated into family -centered funeral-rit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funeral-rite's culture in rural society we can have the valuable views to perceive modern Je-Ju rural culture.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funeral-rite is the foundation of keeping basic custom and norm in rural community. However, the foundation itself is undermined. As a result, the interaction of relationship within the inner-community has been transformed dramatically. To practice funeral-rite, the custom to offer labors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munity's members has declined and funeral culture has changed into

funeral-rite to buy labors for the ceremony. The custom that gives rice-cake and food as a contribution disappeared. Instead of this now people give money for a contribution. According to this, people assure that the principle of the exchange is working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action among them.

This article emphasizes on the various phenomena which construct funeral rite' culture and explains how it have changed. Also, this study summarizes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rough the concrete case studies. The issues with which I did not deal in this article are the view of the soul and death, the thought of another world, th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ritual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Confucianism ritual and shamanism ritual. The funeral rite in the city has forfeited traditional form and transformed it into modern form. However, funeral-rite in a rural society is still working for important custom and people consider it of meaningful ceremony in kinship community and community. Also, ancestor-worship thought still has remained.

The maintenance and change of tradition are co-existed. Through the case studies this research will help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rural society's culture in Je-Ju.

